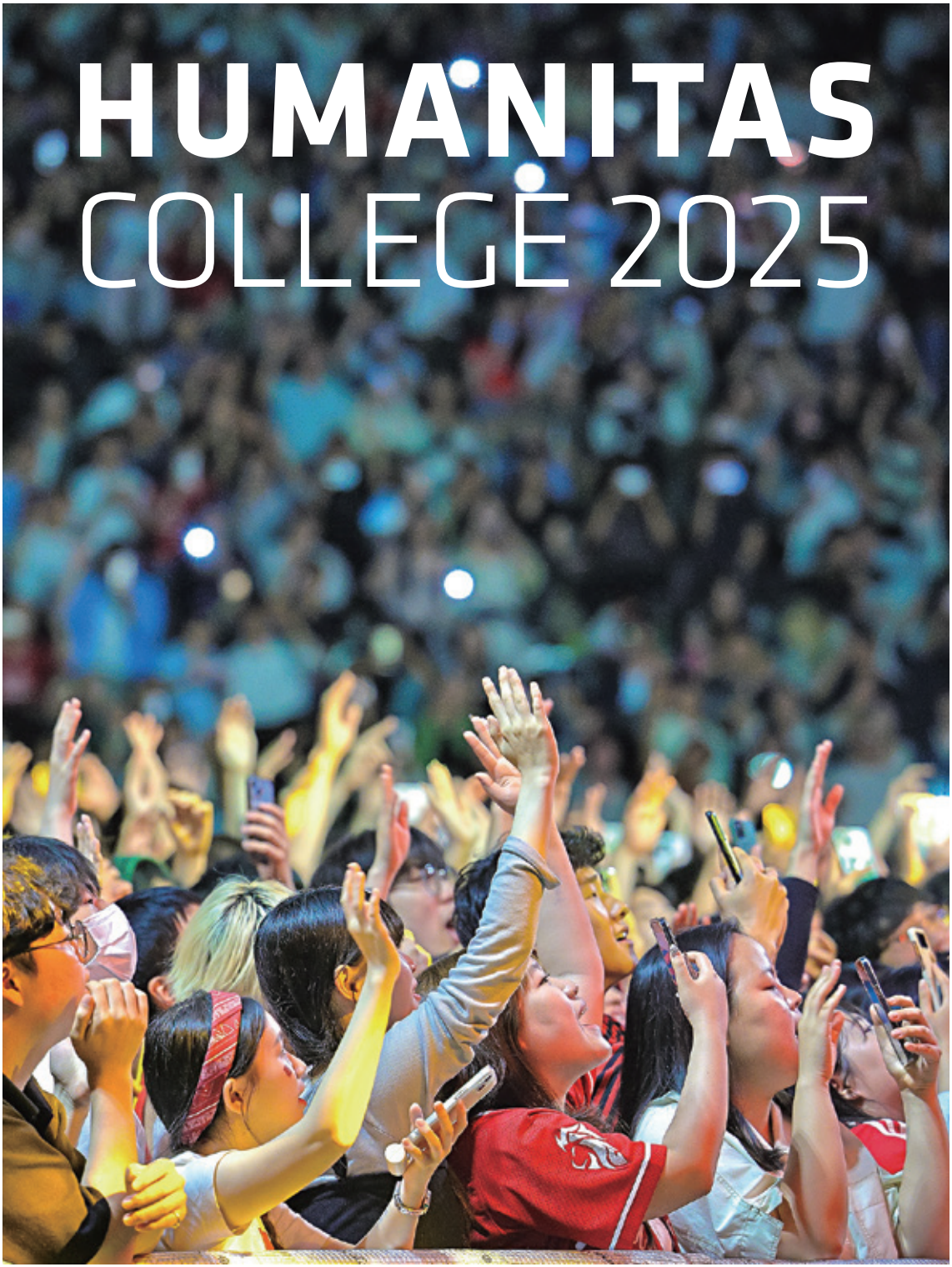
HUMANITAS COLLEGE 2025



KYUNG HEE UNIVERSITY

후마니타스는 누구인가?
'스스로를 발명하고 문명을 혁신하는 인간'

후마니타스(humanitas)는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들어 있다.
경희대학교는 교양교육을 혁신하면서 후마니타스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의했다. 경희의 후마니타스는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변모시키고 재발명해나가는 인간이자,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을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이다.
후마니타스는 스스로를 발명하는 탁월한 개인이자, 타자와 더불어 문명을 혁신하는 지구적 실천인이다.

CONTENTS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2025 가이드북

1
Welcome to Humanitas 2025

04 총장 입학 환영사
12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인사말

2
후마니타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가

16 후마니타스칼리지 소개
18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19 세계시민교육
20 글쓰기
21 독립연구
22 예술·체육 교과
23 배분이수·자유이수 교과
24 고전읽기
25 대학영어 | 특강 프로그램
26 마이크로디그리
27 교육과정 기본 구조와 이수 학점

3
너와 나, 우리는 후마니타스

30 세계시민교육 우수 사례
38 독립연구 우수 사례
46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
54 글쓰기 우수 사례
58 사회혁신학기제
59 집중이수제
60 예술축전
62 대학생위원회
63 교양교육연구소·후마 전환센터
64 후마니타스 세계평화주간
65 미래혁신원
66 글로벌봉사팀

4
후마니타스가 말하는 후마니타스

70 후마니타스에 바란다
78 후마가 후마에게
88 후마니타스 포럼

5
경이로운 경희,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

94 경희의 도전과 성취
100 경희를 빛낸 경희인
104 기부문화

6
1949~2025 학문과 평화의 76년

110 경희 창학정신
112 경희의 역사
118 세계평화운동

122 Campus Map

발행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발행일 2025년 3월 2일
편집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가이드북 편집위원회
주소 우)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우)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홈페이지 http://hc.khu.ac.kr
전자우편 humanitas@khu.ac.kr

01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후마니타스는 자기 자신을 발명하면서 타자와
더불어 문명 전환을 이끌어가는 지구적 실천인이다.
복합 위기가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이때,
대학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 대학생이자 성인으로서 여러분은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붙잡아야 한다.
그 질문에서 미래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Welcome to Humanitas 2025

꿈의 재설계, 비상하는 '경희의 기적'

**신입생 여러분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경희의 시작이자 처음'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첫 마음과 첫 표정과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싱그러운 봄을 만나기 위해 지난겨울 그토록 폭설이 잦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해에는 꼭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여러분 모두에게 풍년이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지난겨울에 내린 하얀 눈들이 여러분의 입학과 더불어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한 서설(瑞雪)이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든 처음은 낯설고 두렵습니다. 대학에서의 첫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트에 따르면 '낯선 두려움(Unheimlich)'은 자아를 형성시키는 불안감의 원형에 해당합니다. 이 감각을 '익숙한 편안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대학 캠퍼스라는 장소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과도 자연스레 낯을 익히는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와 사람에 대해 익숙해지기까지 '낯선 두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자신이 왜 대학에 입학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질문하면서 더 나은 자신과 세계를 재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으로의 입학은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던 여느 입학과는 그 의미가 현격히 다릅니다. 초중고교에서의 입학은 의무교육임과 동시에 개인별 심신의 성장과 더불어 단계별로 주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자연스레 다음 단계의 관문으로 진입하게 되는 통과 의례적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큰 배움터로서의 대학'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성인이 되어 인생 전체의 방향을 가늠하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설계해 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입학 자체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 큰 배움'을 위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학교 안팎의 활동에서 매사에 도전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히면서 대학 생활에 안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올해 개교 76주년이 되는 우리 대학은 1949년 설립되어 창학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구현하기 위해 학술과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며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온 경희의 역사는 그 자체로 경이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세계대학총장회'를 창립하고 제2회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제 행사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경희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1979년 국제캠퍼스를 설립한 이후로 1981년 유엔이 지정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주도하면서, 양 캠퍼스의 독자적 발전과 함께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과 연구, 실천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9년 개교 60주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고민하며 '지구적 존엄의 구현'을 내세우고 경희의 미래가 대학의 미래이자 인류의 미래임을 천명하고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나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세계적 수준의 교양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하면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고등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구적 세계시민의 양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희인이 된다는 것은 이 자랑스러운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세기 문명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담대한 도전 의식과 창조적인 사고, 공존 공생의 협력 정신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경희학원의 설립자인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세 가지의 경희정신'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등의 경희정신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경희인의 포부와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경희의 가치와 철학, 역사와 전통을 내면화함으로써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시민적 자아실현을 통해 탁월한 지구적 실천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배움을 갈망하는 신입생 여러분!

교육은 태생적으로 기성세대가 신세대의 사회화와 문화 전수를 위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가르침에서 시작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금 시대에도 자신과 세계를 향해 던지는 호기심 어린 질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에는 아직 우리가 탐험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 무한히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지의 세계에서 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비유를 강조하는 계몽주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계몽'이 '미성숙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숙한 인간이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려면 필요한 도구가 바로 '계몽'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계몽'이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적 깨우침'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이성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이성(理性)은 사물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인간이 보유한 최고의 능력으로 자연과 인간과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논리적 사유 능력을 말합니다. 계몽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타인과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세상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학습을 강화할 때 이성의 기능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서는 '교육'의 기본 근간을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이라는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본질적으로 학습을 통해 지식과 행동, 공존·공생과 자존감 등의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희는 이미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을 통해 탁월한 지성인이 되기 위한 '교학상장(敎學相長)',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를 강조하며 '경희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라는 전제 아래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입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응하는 개인의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과 창의력(creativity),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과 협업 능력(collaboration)' 등의 '4C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비판적 인식과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고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적 실행을 통해 토론 중심의 맥락 교육을 지속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미 후마니타스 교양교육과 내실 있는 전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로 나아가기 이전에 주도적으로 발표와 토론, 실천 활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선제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면서 지구적 실천인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제공하는 교양교육의 내적 견고성을 함양하고 전공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겸비함으로써 경희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웅비하는 '세계의 경희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실천하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현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나는 어떤 크기의 꿈을 꿔야 하는가?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명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신입생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어떤 시대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환 시대의 세계 인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후 재난이나 전쟁과 폭력 등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한정적인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초국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디지털 시대를 넘어 '초연결과 초지능'을 강조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혁명적인 변환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전 세계인들이 골고루 공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점점 더 좌우의 대립과 빈부의 양극화 속에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장벽이 세워지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고독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전환점을 모색해야 할 위기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는 '기존의 틀'을 깨뜨리며 앞서서 나아가는 쇄빙선처럼 '재설계의 꿈'을 지닌 이 시대의 개척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안팎의 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미래의 꿈과 인생의 설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처음처럼'의 노력이 필요합니

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응전을 응원하는 우리 경희가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직한 버팀목이자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로 비상하는 신입생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자신이 미래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를 미리미리 점검하는 '삶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성찰적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무 살의 여러분에게 지금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며,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며 다른 세계의 경계로 진입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지난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과거 전체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가족과 친구, 선배와 후배, 선생님 등 타인의 모습이 비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유의미한 장면들을 되짚으면서 꼭 의미를 부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찰적 질문과 답변이 여러분을 더 나은 미래로 안내하며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성장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삶의 방향을 유지해 왔다면 이제는 '정형화된 삶의 방향' 너머 자신이 스스로 '주어가 되는 삶'을 기획했으면 합니다. '주어의 삶'은 주인의 관점이자 주연배우의 태도를 지녀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좌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선택받은 최상위 그룹의 소수 인재에 해당합니다. 캠퍼스 안팎에서 여러분이 보유한 재능을 잘 갈고닦아 경희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탁월한 지도자로 성장하길 당부합니다.

장자(莊子)의 「소요유편(逍遙遊篇)」에는 '붕정만리(鵬程萬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전설 속의 '붕새'가 단숨에 '만 리'를 날아간다는 뜻으로,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거나 앞날이 전도양양(前途洋洋)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큰 성취를 이루고자 할 때 격려의 표현으로 활용하는 한자 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붕새'를 닮은 여러분의 날개가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는 비상의 몸짓이 되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라는 모토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멋진 대학 생활을 꿈꾸는 신입생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학 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면서 '개인의 역량과 더불어 공동체의 감수성'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세 가지 요소로 언급한 '로고스(Logos, 창의적 지식)와 에토스(Ethos, 윤리적 진정성), 파토스(Pathos, 소통과 공감)' 등은 지금 시기에도 고스란히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세계를 응대하는 '합리성과 윤리의식, 공감 능력' 등은 동서고금의 석학들이 대부분 중요시하며 21세기에도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들에게 필수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감성을 배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경희의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현실화시키는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고스의 신장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양교육과 내실 있는 전공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내길 바랍니다. 둘째로 에토스의 함양을 위해서는 먼저 '나'를 탐문하고 사회를 탐색하며 세계를 사유했으면 합니다. 우리 학교의 설립 정신에는 이미 에토스에 기반한 학문과 평화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파토스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경희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미 국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며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신입생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이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성패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학 안팎에서 마주치는 교수, 직원, 학생 등 다양한 학내외 구성원들 속에는 이미 다양한 멘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멘토들과의 친숙하고 유연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조언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합니다.

특히 기존의 관계나 체제에 안주하지 말고 이 세계의 모순과 한계를 발견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평불만만 일삼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분의 감수성을 예리한 감각으로 벼리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더 깊고 더 넓은 호기심으로 이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를 탐색하여 더 큰 꿈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믿는 마음이 모이고 모여야 뚜렷한

목표 설정 속에 확고부동한 자기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확신의 마음가짐이 혁신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배움의 과도기에 해당하므로 얼마든지 실수나 실패가 허용됩니다. 일시적인 성취보다 확실한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각성된 의미 부여를 통해 '더 큰 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언제나 수많은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기 마련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자신과 더불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공헌할 수 있을지를 숙고하길 바랍니다.

경희의 기적이 될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4년 이상 수행하는 대학 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 경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고향'이자 '따뜻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경희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언제든 어렵고 힘들 때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최고의 든든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저 또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오면 진짜 봄을 마주하게 됩니다. 캠퍼스의 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청춘의 봄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여러분은 동료, 선배들과 함께 하루하루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자신과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지하고 성심성의껏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희 안에서 경희를 넘어 세계로 발돋움하며 빛나는 내일의 성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필가 신영복은 시화 에세이 『처음처럼』에서 '처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2025년 '우리의 시작'입니다. '어린 새이자 새싹'이며 '아침이자 새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따뜻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경희의 시작이자 처음'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첫 마음과 첫 표정과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저와 더불어 교수, 학생, 직원 등 3만 명에 달하는 경희 구성원 전체가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처음'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경희의 기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희대학교 총장 김 진 상

'전공'과 '실용'의 전인차, 교양!

여러분은 경희인이 되면서 '후마인'이 되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여러분에게 능동적 적응력과 창의적 상상력의 토대를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이준태
후마니타스칼리지
국제캠퍼스 학장

2025학번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경희의 일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로지 오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고등학교 3년간 참 많은 것을 참고 접어야 했던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잘 알기에 더욱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먼 길을 가노라면 한 굽이 넘으면 또 한 굽이가 기다리듯 우리의 삶도 굽이굽이 이어지지요.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인 여러분에게도 이 굴레가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이제 막 대학 입시의 속박에서 벗어난 새내기들을 또 다른 현실의 굴레 속으로 몰아가는 것인가요?'라는 오해를 할 것 같아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두 가지의 결과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마치 작곡가가 자신만의 감흥에 이끌려 새로운 하모니를 찾아내듯 무한한 선택지를 두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많고 넓은 선택지가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두 발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를 두루 잘 살피고 선택해야 앞으로의 삶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교육'을 기치로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일찍이 2015년 <포브스(Forbes)>지가 아시아 10대 교양대학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국내외 교양교육의 탁월한 전범으로 자리잡고 신선한 교양교육의 모델을 제시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가이드북에는 그동안 후마가 지향해온 교육의 가치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경희에서의 4년 동안 경희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교양 교과목과 프로그램 등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학 교육은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공이 '새의 몸통'이라면 교양은 '새의 날개'라는 후마 교육을 받고 먼저 졸업한 어떤 선배 졸업생의 비유는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역할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교육과 교양교육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은 대학교육에서 무의미할 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질문입니다.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을 위협하지 않고, '취업교육'이나 '실용교육'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전공 능력을 강화하고 취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오늘날 지식은 빠르게 바뀌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지만 교양이라는 이름의 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한 인간의 삶과 사회 활동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아닌 '학습'으로 끝없는 자기 혁신

그렇기 때문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은 미래의 실천인, 직업인, 전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성과 감성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구적·기능적 이성만이 지배하는 닫힌 사회의 '영혼없는 전문가'가 아닌 더 나은 직업인·전문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후마 교육의 지향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새내기 여러분은 평생 동안 서너 개의 직업을 동시에 또는 차례로 가져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선택과 전환의 순간이 올 때마다 미래의 여러분에게 능동적 적응력과 창의적 상상력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인간으로서의 분명한 자의식을 확립시키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후마 교육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고 던질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그 인간 집합 속의 한 구성 요소인 '나' 라는 존재의 본질, 즉 타인과 구별되는 '나'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보고 주위의 시선에 의해 함몰되어버리는 '나'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몸에 잘 맞지 않아 불편한 기성복을 입고도 '멋져보인다', '잘 어울린다', '비싸 보인다' 와 같은 주위의 입발림에 현혹되어 불편함을 억지로 감수하면서 혼자서 힘들어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바로잡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류는 지금까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왔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 존재로서 나는 나의 인생 항로를 어떻게 운항해나갈 것인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런 질문에 대해 '교육'이 아닌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지키면서도 끝없는 자기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새내기 여러분도 이 과정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마음껏 공부하고 가열차게 토론하며 자랑스런 경희의 미래 지도자가 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02

후마니타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가

'미래는 교육과 재난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 세기 전 영국의 작가가 남긴 격언이다.
각종 재난이 일상화하는 '뉴노멀' 시대,
교육과 학습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삶과 세계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적 견고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목표다.

교양교육의 메카에서 전환교육의 선도자로 재도약하는 후마티나스칼리지

글로벌 교양교육의 미래비전 재정립, 필수교과 학생 수 25명
국내 최초 '세계시민교육' 개설, '주제연구' 신설
인공지능의 시대, 기후변화, 불평등 등 지구적 난제에 적극 대응

2011년 출범 이래 대학 교양교육을 획기적으로 쇄신해온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미래비전을 새로 정립하고 재도약에 나섰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글로벌 교양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 목표, 교과 구조, 수강생 수, 강의 방식 등을 새로 설계, 운영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20년 이후 '교양교육의 메카에서 전환교육의 선도자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왔다.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몰고 오는 불확실성이 겹쳐져 복합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학습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수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기존의 일방향적이고 권위적인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수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대학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인식을 넘어 대안적 사유의 능력을 키워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실천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인재상도 구체화했다. 기존의 인재상인 '탁월한 인간,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의 성원'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개인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전환 디자이너'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창의력, 상상력, 협동력을 결합하는 '실천인' △우주적 인식을 기반으로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세계시민'. 이것이 미래를 열어나갈 새로운 인간, 후마니타스다.

후마니타스(humanitas)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해명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후마니타스에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들어 있다. 경희대는 교양교육을 혁신하면서 후마니타스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정의했다.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재발명하는 인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의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이 후마니타스다.

후마니타스: 자신을 발명하고 문명을 쇄신하는 인간

후마니타스는 인간 그 자신을 발명하고 문명을 쇄신함으로써 미래 문명을 발명해나간다. 교양교육이 '교육의 최고 수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지적 장식품이 아니다. 나를 '더 나은 나'로 변모시키고 형성해나가려는 성찰과 창조의 능력, 인간과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통합적·비판적·윤리적 사고 능력,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나가려는 실천적 역량이 곧 교양이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은 '대학교육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높이'이다.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합적 교육,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 교육, △구체적 현장과 연계되는 실천 교육이다.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융복합적 사유는 다양성, 상호의존성, 복잡성 등을 아울러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 배려와 존중, 상상과 창조의 가치를 육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상과 현실을 통합하는 실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은 두 가지 큰 질문, 즉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도록 안내하는 교육이다. 우리는 평생 이 두 개의 본질적 질문을 붙잡고 있어야만 자기를 성찰하고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지식인·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은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후마니타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시민교육'을 실시해왔다. 이 교과 수강자들은 매 학기 500개가 넘는 모둠을 만들어 강의실과 사회, 배움과 실천, 지식과 문제해결을 연결하는 현장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후마니타스 시민교육은 사회봉사, 참여학습, 현실 개선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천교육이다. 가장 중요한 교육적 소득은 이런 실천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시민교육은 2019년부터 <세계와 시민>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영혼 없는 탁월성'은 무의미하다. 학부생의 지적·정서적·영적 성숙을 돕는 것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라면,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이끌어나가는 '내적 균형과 견고성'의 토대를 길러주는 데 있다. 삶과 사회가 개인에게 안겨주는 온갖 영욕의 순간에도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고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내적 견고성이다.

'교양교육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

2024년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기본 틀을 재조정했다.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융합 교과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빅뱅에서 문명까지>)', 사유와 표현능력을 키우는 '글쓰기(<성찰과 표현>, <주제연구>)', 소통 역량으로서의 '영어(<대학영어>)' 등 6과목을 공통 필수교과로 지정했다. 여기에 '생명·우주·인간', '분석·추론·논리', '상징·문화·소통', '사회·공동체·평화', '지능·정보·미래' 등 5개 주제 영역별 배분이수교과, <독립연구>·예술·체육, 고전읽기 분야를 아우르는 자유이수교과가 개설되어 균형과 조화를 도모한다.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은 인간, 세계, 문명, 우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는 물론 개인과 전방위적으로 연결된 지구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2019년 신설된 <세계와 시민> 교과에서 그 목표가 뚜렷이 드러난다. <세계와 시민>은 대학 및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넘어 기후변화, 생태·환경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신종 질병 등 글로벌 난제를 포괄하는 교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국내외에서 경희대가 처음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재도약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개선한 것이 강의 규모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인간의 가치 탐색> 등 필수교과의 강의당 학생 수를 기존 40명 내외에서 25명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형 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온·오프라인상에서 대형 강의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역진행 학습' 등 새로운 교육·학습법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대학의 공공성을 심화, 확대하는 것이다. 대학은 학술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 국가, 지구사회와 긴밀하게 호흡하는 사회기관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는 '사회혁신학기제'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펼쳐나갈 것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학상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글로벌 교양교육'을 구현하고자 한다. 교양교육의 메카에서 문명전환을 선도하는 미래교육의 모범을 제시해나갈 것이다.

필수교과 '황금의 삼각형' 인간, 세계, 문명의 종합적 이해

기존 '시민교육'을 <세계와 시민>으로 확대 개편
<인간의 가치 탐색>, <빅뱅에서 문명까지>와 유기적 결합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주축인 필수교과가 '황금의 삼각형'을 구축했다. 기존의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I: 인간의 가치 탐색>과 2019년 신설된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II: 세계와 시민>, 그리고 2017년 개설된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III: 빅뱅에서 문명까지>가 서로 유기적 연관을 맺으면서 인간과 문명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인간의 가치 탐색>은 동서양 문명을 가로지르며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인간은 지금까지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고 또 구성해왔는가? 인간은 어떻게 인간 자신을 발명해왔는가? 인간은 자기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부여해왔는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 사유하고 탐문하는 교과, 발표와 토론 중심 수업

<세계와 시민>(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시민교육>을 통합한 것으로 근대성의 성취에 주목하면서 세계시민이 갖춰야 할 요건을 미래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세계와 시민>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붙잡는다. 근대문명은 어떻게 그 이전 문명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딜레마를 돌파할 수 있었는가? 시민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해왔으며 어떤 변화와 성숙을 지향하는가? 일국 시민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빅뱅에서 문명까지>는 다음 질문을 공유한다. 과학의 기원은 무엇이며 과학은 지금까지 무엇을 발명해왔는가? 우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시간과 공간이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명과 생명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류의 미래와 과학의 미래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세 필수교과로 구성된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은 강의당 학생 수가 25명 내외로 소형화함에 따라 읽기와 발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텍스트를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간다. 가치와 의미에 대한 동서양의 사유, 문명의 방향을 바꾼 사상과 이론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와 다차원적으로 연결된 지구적 난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과'다.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고 발명해온 동물이다. 인간은 '진리'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철학자를 발명했고 '사실'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과학자를 발명했으며 '의미'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시인을 발명했다. '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목숨도 내던지는 인간을 발명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오랜 기간에 펼쳐온 '가치 추구'의 중요한 장면들과 만나는 동안 학생들은 삶의 가치, 의미, 목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민주주의, 인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교 분리, 과학기술 등 근대의 성취와 한계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는 '지금·여기의 나'를 재발견하는 것은 물론 나의 미래, 사회의 미래, 문명의 미래를 기획하는 폭넓은 사유 지평으로 확대된다.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교과의 최종 목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을 통과한 학생들이 '나와 세계'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있다.

전세계 대학 최초 전교생 대상 개설 글로벌 난제를 '나와 우리의 문제'로

'일국 시민'에서 '세계시민'으로 지평 확대
학생들 스스로 과제 설정, 현장에서 모둠 활동

2011년 출범과 함께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실시해온 '시민교육'이 2019년 '세계시민교육' 교과로 거듭났다.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중핵교과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시민교육>을 통합, 확대한 것으로, 전 세계 대학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다.

기존 '시민교육'이 일국 시민성, 즉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역량을 강조했다면 세계시민교육 <세계와 시민>은 말 그대로 세계시민을 지향한다. 세계시민은 근·현대 문명의 성취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각성된 주체이자,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문명을 건설해나가는 실천적 주체다.

매 학기 500여 개 모둠이 '세상 속으로'

경희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시행한 시민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와 관련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한다.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모색이 대학 강의실은 물론 캠퍼스 밖 세상 속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기획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이 자임해야 할 책임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대학이 길러내야 할 '더 나은 인간'은 다름 아닌 '책임 있는 시민'이다. 책임 있는 시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합리적·비판적 민주시민,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선의·공감·배려·봉사·연대의 덕목을 가진 따뜻한 공동체 성원, 한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지구사회를 생각하는 '세계시민'이 그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고 실습도 아니다. '실천'이다. 시민교육은 이론과 현장 경험을 고루 갖춘 교수진이 진행한다. 교재 『세계와 시민』을 통해 시민의 역사, 시민의 현대적 의미 등 이론을 공부한 다음, 강의실 밖으로 나가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 주제와 활동 방식은 모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나리오가 없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므로 학생들이 온몸으로 경험하는 '산 공부'의 폭과 깊이는 각별하다.

"교재는 '교과서'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영감의 지렛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3~5명이 팀을 이뤄 대학과 관련된 작은 주제를 선택하거나, 지역사회의 여건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가 하면, 사회적·지구적 이슈를 탐색하기도 했다. 서울과 국제 캠퍼스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은 매 학기 2,500명에 이른다. 이들이 500개 안팎의 팀(주제)을 구성해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 그간 그린 캠퍼스 만들기, 독거노인 돌보기, 청년실업, 외국인과의 소통, 생태·환경 문제, 사회적 소수자 배려 등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는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고들었다.

학생들은 교재를 통해 개인과 전체를 보다 크고 넓은 시야(視野)로 통찰한 다음,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설정한다.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미래사회의 시민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상상해야 한다. 이제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인간과 지구(우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의 구체적 삶과 대면하기’에서 학술에세이 쓰기 역량 강화로

기초 글쓰기 『성찰과 표현』 통해 자기발견
<주제연구> 신설, 다학문적 사유 능력 강조

대학 신입생에게 글쓰기는 대부분 ‘생애 최초의 글쓰기’다.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글쓰기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글쓰기와 처음 마주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글쓰기가 두렵고 불편하다. 후마니타스 글쓰기교과는 글쓰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자신감과 흥미를 불어넣어주는 데서 출발한다.

글쓰기교과도 2020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에 발맞춰 교과명을 바꾸고 교재를 개편했다. 기존의 『나를 위한 글쓰기』(글쓰기 1)가 『성찰과 표현』으로, 『대학글쓰기: 세계와 나』(글쓰기 2)는 『주제연구』로 바뀌었다. 개편된 <성찰과 표현>은 신입생을 위한 기초 글쓰기이고, <주제연구>는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글쓰기다.

자존감의 회복, 자신감의 확보

신입생을 위한 기초 글쓰기 <성찰과 표현>은 ‘내가 나를 쓰는 글쓰기’에 중점을 둔다. 자신의 삶을 다양한 주제로 성찰하면서 자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글쓰기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계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는 기초 글쓰기는 대학 생활과 사회 진출에 대한 자부심으로 확장된다.

기초 글쓰기는 ‘다시 가고 싶은 그곳’ ‘잊을 수 없는 음식’과 같은 주제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한 다음 ‘내가 원하는 삶과 사회’와 같은 보다 큰 주제를 소화하며 시계(視界)를 넓혀간다. 이 과정에서 발상과 관찰, 비교와 대조, 서술과 비유 등 글쓰기에 필요한 기본 전략과 기술을 습득한다. 기초 글쓰기는 ‘5단락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체적 목표로 삼는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 사유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 5단락 글쓰기다.

기초 글쓰기를 수강한 박민지(국문과 11학번) 학생은 “글쓰기 강의를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한참을 울다가 글을 마저 써내려간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나를 쓰는 글쓰기’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다. 자신의 상처와 직면하는 글을 쓰면서 진정한 성년으로 거듭난다.

‘위기’를 성찰하고 ‘전환’을 모색하다

<주제연구>는 학술에세이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성찰과 표현>에서 익힌 기본기를 바탕으로 학술적 글쓰기의 세계로 진입하는데, 교과명이 말해주듯 ‘주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기와 전환’이란 대주제 아래 인간, 세계, 지구 세 영역에서 소주제를 선택하되 최소 3개 학문 분야의 관점을 동원하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조화시키는 것에 비중을 둔다.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또 다른 특징은 강좌당 학생 수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강생 수가 <성찰과 표현> 30명, <주제연구> 20명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외국 유수대학의 글쓰기 강좌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강생 수가 적을수록 교수의 첨삭 지도와 발표와 토론, 모둠 수업이 가능하다.

온라인 강의실도 개설해 오프라인 강의와 병행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학생들끼리 합평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글쓰기 역량을 키워간다. 글쓰기는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교과의 통합적 사고력, 세계시민교육의 현장 활동, 독립교과의 자율적 탐구, 예술·체육 교과의 감성 계발과 어우러져 학습 효과가 한층 배가되고 있다.

“원하는 강의, 내가 만든다” 자율성, 탐구력, 협동심 키우기

학생 스스로 과제 설정,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생 제안으로 신설

“전공교육이 새의 몸통이라면 전공지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 날개는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배운 가치들이고 다른 날개는 그 가치들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브라운대학의 경우인데요, ‘독립연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학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총장과의 대화’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독립연구(independent study)’ 교과 신설은 많이 늦어졌을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 24일, 국제캠퍼스에 이어 서울캠퍼스에서 총장과 학생들이 마주 앉아 ‘미래대학 리포트 심층토론’이 열렸다. 주제는 ‘문명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학과 박예지 학생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당시 조인원 총장은 “독립연구 도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2016년 봄 학기부터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 탐구력, 협동심을 북돋워주는 독립연구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교양과 전공을 불문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립연구를 본격 시행하는 것은 경희대가 처음이다.

연구, 창작, 봉사, 창업 등 모든 분야에 열려 있어

독립연구는 학생들이 개인이나 모둠별로 자율적으로 교과를 설계하고 이를 담당 교수의 지도 아래 한 학기 동안 수행하는 정규 교과다. 독립연구1과 독립연구2로 나뉘며, 독립연구2는 독립연구1을 이수한 후 수강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방학 중(개학 전) 개인 또는 모둠별로 연구과제를 정하고 지도교수를 섭외한다.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한 뒤, 개학 초기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지도교수에게 ‘신청서 및 계획서’를 최종 승인받아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에 제출하면 독립연구를 수강하게 된다.

미리 제출한 계획에 따라 학기 중에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독립연구를 수행하고, 학기 말에 지도교수에게 ‘활동 보고서’ 및 ‘활동 결과 실적물’(논문, CD 등)을 제출한다. 지도교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부여해 학생의 활동 보고서와 실적물을 행정실에 제출한다. 독립교과는 교과당 2학점이다. 독립연구 대상(영역)은 다양하다. 연구(학습), 실험, 실천, 창작, 참여, 창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내 모든 전공학과로 확대

다음은 독립연구 교과 설계와 지도교수의 예다. △한국비교철학사 연구(개인·모둠), 지도교수 전호근(후마니타스) △구술 생애사(노인 자서전) 활동(2~3명 모둠)·시창작 고급과정(1명)·미디어글쓰기, 지도교수 이문재(후마니타스) △창업 및 시민사회 활동 관련(NGO/NPO 만들기·협동조합·소셜벤처·농업 운동·사회활동가·글로벌 활동가 등)·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조사 연구 및 세계 참여(개인·모둠), 지도교수 우기동(GSC) △전공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친환경 도시재생·사회적 다큐멘터리 제작·거리공연 기획 등)(개인·모둠), 지도교수 우대식(후마니타스).

교양 과정의 독립연구는 2018년부터 대학 내 모든 전공학과로 확대돼,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넘어 ‘경희 교육’의 새로운 특성이자 학풍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잃어버린 감수성’ 되찾아 ‘온전한 청년’으로 재탄생하다

입시지옥에 갇혀 있던 감성과 체력 일깨워
‘지성과 몸의 조화’ 추구하는 후마니타스

산업문명 시대의 인간을 주도한 것이 ‘이성과 과학’이었다면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인간은 ‘지성과 감성이 몸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예술·체육 교과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온전한 감성의 회복을 추구한다. 숨 가쁜 성장기에 입시에 몰두하면서 신체의 성장과 감성을 억눌러온 청년들이 감성을 일깨우고 몸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연 및 전시 교과, 매년 ‘후마니타스 예술제’ 개최

예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창의성을 개발해 자기만의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체육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몸과 정신이 하나 되는 ‘인문체육’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술교과는 합창, 악기 연주, 무용, 스포츠댄스, 판소리 등 공연예술 외에 회화, 사진, 디자인, 영화 등 시각 장르에서도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있다. 공연예술 및 전시 과목 수강생들은 매년 가을 열리는 후마니타스 예술제 무대에서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체육교과 역시 학생들의 관심이 많다. 특히 주말과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배우는 요트·승마·스키 등의 교과가 인기가 높다. 요트는 강의실 이론 수업을 마치고 주말에 한강으로 나가 3일간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승마 수업도 주말 또는 종강 직후 2박 3일간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여름철에는 수상스키와 윈드서핑,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합숙을 하며 설상 스포츠를 연마한다.

대형 사건사고, 각종 전염병, 태풍과 지진, 기상이변 등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까닭에서인지 <응급처치 및 전문 관리론> 과목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응급 상황 3단계에 대처하는 요령을 배우고,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시행 방법을 익히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안전교육(수상안전법·산악안전법)을 수강한 학생에 한해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를 인정한다.

체육교과 중 최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진 과목은 <토탈 컨디셔닝>이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육체적·정신적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교과는 대학 입학 후 변화된 일상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기초체력을 높이고, 자신의 신체에 맞는 올바른 운동법을 배우며, 나아가 자신만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토탈 컨디셔닝은 졸업한 이후에도 각자 지속해야 하는 ‘평생 과목’ 중 하나다.

예술교과 <다시 시작하는 피아노 레슨>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타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와 새롭게 대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룹 레슨’ 형태로 진행되는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함께 긴장하고 귀를 기울이는 협업 형태의 새로운 레슨을 체험할 수 있다. 학기 말에는 수강생들이 모두 무대에 오르는 ‘종강 콘서트’를 연다.

서울시향 연주자가 직접 강의실을 찾아 공동으로 진행하는 음악교과, 국립현대무용단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또한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미적 체험을 통한 교양예술 프로그램은 지성, 감성, 영성이 조화를 이뤄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만나도록 하는 동시에 타인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생명, 우주, 인간’에서 ‘지능, 정보, 미래’까지

필수교과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배분이수교과
예술·체육 분야 아우르는 자유이수교과도 풍성

배분이수교과는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빅뱅에서 문명까지>)과 글쓰기(<성찰과 표현>, <주제연구>) 등 필수교과와 내용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한 축을 이룬다. 배분이수교과의 5개 주제 영역은 인간, 사회, 자연, 문화, 예술, 세계, 윤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표 참조), 총 16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된다. 각 과목은 3시간 3학점이며, 졸업하기 전까지 5개 영역 중 3개 영역(9학점)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배분이수교과: 9학점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배분이수교과는 단순히 많은 수의 교양과목을 산만하게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학제 연계의 원칙에 따라 접근한다. 필수교과에서 거론된 핵심 주제가 ‘생명과 우주, 분석과 추론, 상징과 문화, 사회와 공동체, 논리와 소통, 평화와 미래, 지능과 정보’ 등으로 심화, 확장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윤리적 실제’, ‘미래를 질문하는 예술’, ‘기술발전에 변화하는 경영’ 등의 교과가 추가됐다. 이외에도 여성학, 인류학, 도시학 등으로 학문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자유이수교과: 100개 내외 강좌 개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공 또는 취미생활과 관계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이수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100개 내외의 강좌가 개설된 이 교과는 외국어, 체육, 예술 분야의 특강, 창작 및 실기, 기타 선택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콘텐츠 제작, 디자인 등을 포함한 다수의 실용과목도 제공된다. 학생들의 자율적·창의적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독립연구 1, 2>도 자유이수교과에 포함되어 있다.

배분이수교과: 5개의 학제적 주제 영역

Distributional Requirement Courses: Cross-disciplinary Thematic Categories

1 영역 생명·우주·인간(Life, Universe , Mankind)
‘생명의 그물망’, ‘마음의 탄생: 뇌, 의식, 마음’, ‘우주: 별을 잊은 그대에게’ 등

2 영역 분석·추론·논리(Analysis, Reasoning, Logic)
‘큰 맥락에서 사고하기: 시스템다이나믹스’, ‘통계의 진실과 오류’, ‘무한의 힘’ 등

3 영역 상징·문화·소통(Symbol, Culture, Communication)
‘가면의 축제: 동서양 연희의 문명사’, ‘공감의 인류학’, ‘미디어아트와 문화’ 등

4 영역 사회·공동체·평화(Society, Community, Peace)
‘관계를 읽는 시간’, ‘두 얼굴의 인류사: 전쟁과 평화’, ‘놀이를 통한 세상읽기’ 등

5 영역 지능·정보·미래(Intelligence, Information, Future)
‘인류역사를 바꾼 첨단재료’, ‘빅테이터와 스포츠산업’, ‘SF영화의 상상력: 미래의 평화와 윤리’ 등

* 총 5개 영역 중 3개 영역 필수 선택, 각 과목 3시간 3학점

고전읽기

논어에서 다윈, 황순원까지 동서양 '지혜의 샘'과 만난다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또 다른 핵심교과
지성의 최고봉과 대화하며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모색

고전은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이며 상상력과 창조성의 쉼 없는 자극제다. 인간을 키우고 인류문명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온 동서양 주요 고전을 집중적으로 읽어나가며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그것을 구체적 삶과 연결시키는 것은 고등교육의 책무 가운데 하나이자 교양교육의 존재 이유다.

전 학년에 개방, 사유의 확장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은 '고전읽기'를 통해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인식과 실천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필수교과와 배분이수교과 수강생들은 청소년기에 접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전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 '고전읽기' 교과는 그 연장선에서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고전 연구를 시도한다. 고전읽기는 개인이나 모둠이 독립연구 교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고전읽기'는 문학, 철학,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고전 텍스트를 교재로 한다. 전 학년에 개방돼 있으며, 한 학기 동안 인류 지성사의 최고봉과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나'와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고전읽기'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서고금을 가로질러 인류문명의 진전에 큰 영향을 준 저작물 중심으로 교과가 구성된다. 그리스 비극, 대학·논어·맹자·중용, 성서, 셰익스피어, 자본론, 퇴계, 정약용, 박지원, 황순원, 김수영,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칼 세이건 등 40개 내외의 교과 과목이 개설돼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목당 3시간 3학점이다.

수강생들은 그리스 비극을 읽으며 서양문화의 기원을 살필 수 있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노자, 장자 등을 통해 동양사상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와 내부 모순을 지적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전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제철학의 고전이다.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황순원은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우리 대학 국문과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한 '경희문학'의 큰 스승이다.

고전읽기 개설 교과: 독립연구로 '깊이 읽기' 심화 가능

삼국사기	치누아 아체베(아프리카)	카뮈	찰스 다윈	맹자
삼국유사	마르케스(라틴아메리카)	카프카	토마스 쿤	대학, 중용
한비자, 묵자	프란츠 파농	프로이트	애덤 스미스	밀란 쿤데라
이규보	리처드 도킨스	오비디우스	톨스토이	무라카미 하루키
박지원	에드워드 사이드	불경	괴테	헤르만 헤세
막스 베버	염상섭	코란	보르헤스	초급 고전한문
사르트르	김수영	인도신화	율곡	초급 라틴어
아리스토텔레스	나쓰메 소세키	동양신화	퇴계	영어로 읽는 한국고전
장 자크 루소	단테	비트겐슈타인	논어	황순원

대학영어

'맞춤형 교육'으로 의사소통 능력 함양 발표와 토론으로 세계시민 역량 강화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교양교육에 걸맞게 <대학영어>를 2011년 출범 이래로 필수교과(3시간 2학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 영어'는 단순히 외국어 능력의 습득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비판적 사고력과 지도자적 감수성의 신장' 등 다재다능한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한다.

<대학 영어>는 배치고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을 통해 더 나은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의 향상을 전제로 학생들은 영어 발표와 토론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고 작품 전시와 발표 영상을 제작하는 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언어 활용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동서고금의 이슈를 넘나드는 '텍스트 깊이 읽기'를 통해 영어 작품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영어 글읽기의 즐거움을 체화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있다.

'Beginner'는 문법과 기본 회화에 중점을 두고 학습이 진행되며, 'Elementary'는 초급 단계의 문형과 회화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Intermediate'는 주제별 토론과 더불어 영어 글쓰기 발표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Advanced'는 글로벌 이슈 토론, 주제별 토의, 에세이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강 프로그램

'전환 설계'의 최전선, 경희의 '명품 특강'

매년 9월 PBF 학술대회, 세계 석학 초청 강연

신입생들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활동가, 기업가와 마주함으로써 후마니타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심화하고, 학생들이 이론과 현실, '나와 세계'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을 마련하고 있다. 후마니타스 특강은 한 학기 동안 2~3개 학문 분야의 주제에 집중하기도 하고, 시야를 학문 분야 밖으로 확대하기도 한다. 예컨대 '개인의 사회적 책임', '대학생들이 오해하는 기업의 인재상', '자기와의 연대', '세계시민교육의 역사와 전망', '청년들이 알아야 할 한국경제의 현실과 미래' 등을 주제로 설정한다.

2017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PBF)' 기간에는 벨벳혁명과 촛불시민을 비교 분석하며 세계시민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한 원탁회의가 열렸다. 2018년에는 빙하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와담스 전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초청, '얼음 없는 북극'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경희는 매년 세계평화의 날(9.21)에 즈음해 개최되는 PBF 국제학술회의에 세계적 석학과 싱크탱크를 초청, 지구적 난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경희의 명품 특강을 대표하는 석학이 슬라보예 지젝 교수다. 2012년 국제캠퍼스에 석좌교수(ES)로 초빙된 이후 매년 특강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에는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로마클럽 회원인 어빈 라슬로 박사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고 2017년에는 장하석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미래지식 전환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2010년 이후 이매뉴얼 월러스틴, 프레드 블록, 프레드 달마이어, 피터 카젠스타인 교수,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세계적 석학이 경희 캠퍼스를 찾았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습 작지만 큰 과정 '마이크로디그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직무 반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문예창작, 예술체험 등 실무 능력 함양

경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신규 학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22학년도 2학기에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신설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직무, 자격을 위해 최소 단위로 특화된 교육 과정이다.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학사제도다.

학생들은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며 관심 있는 기술 분야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전공 학과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어 폭넓은 선택권이 보장된다.

2022년 신설된 3개의 마이크로디그리는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AI/SW 기술 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후마니타스 AI/SW 마이크로디그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코딩 교육을 제공하는 '후마니타스 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제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후마니타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디그리' 등이다.

2024학년도에는 2개의 마이크로디그리가 신설됐다. 문예창작과 출판편집 등 실용적 글쓰기 교육을 제공하는 '리터러시·라이팅 마이크로디그리', 미술과 음악 등 예술 체험 활동과 능력을 강화하는 '예술체험심화 마이크로디그리'가 개설됐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로 발돋움하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작지만 큰 마이크로디그리'는 계속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분	소개	이수내역	진로와 전망
후마니타스 AI/SW 마이크로디그리	-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SW 관련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제공 - 학생들(특히, 비전공학생)의 AI/SW에 대한 이해를 높임	후마니타스칼리지의 SW 교양 강좌로 지정된 5강좌 중 3과목 이수	- AI/SW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활용해 전공 분야와의 융합 사례를 도출 - AI/SW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에 따라 인공지능 또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후마니타스 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AI 기초 교육 제공 - 인공지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AI 코딩 교육 제공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AI 기초영역', 'AI 코딩영역', 'AI 심화영역'으로 구분해 각 영역에서 1과목씩 3과목 이수	-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마이닝 기초기술, 인공지능(기계학습) 기법을 전공에 적용, 더 나은 결과 도출 - 사회 진출 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후마니타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디그리	-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SW 기초 교육 제공 - 소프트웨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SW 코딩 교육 제공 - SW 심화 교육을 통해 SW 기초 교육과 SW 코딩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을 'SW 기초영역', 'SW 코딩영역', 'SW 심화영역'으로 구분해 각 영역에서 1과목씩 3과목 이수	- 소프트웨어적 사고방식과 프로그래밍 기술을 전공에 적용, 더 나은 결과 도출 - 사회 진출 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네트워크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24학년도 추가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명	교과목명	이수기준
리터러시·라이팅 마이크로디그리 (12학점)	시 창작 교실(3)	교과목 중 4과목 이수 필요
	소설 창작 교실(3)	
	시나리오 창작 교실(3)	
	르포르타주: 가려진 세계의 보고서(3)	
	출판 편집 교실(3)	
예술체험심화 마이크로디그리 (12학점)	현대미술 라운드테이블(3)	교과목 중 4과목 이수 필요
	움직임과 소통(3)	
	오케스트라의 오늘(3)	
	우리 가락으로 만나는 세상(3)	
	후마니타스 예술특강(3)	

* 마이크로디그리는 추가될 수 있으며 이수체계도는 변경될 수 있음.
* 배분이수교과와 자유이수교과 간 영역 변경된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기존 이수영역으로 인정 가능

2025학년도 후마니타스 교육과정 기본 구조와 이수 학점

* 2025학번 기준(2023학번 이전은 반드시 경과조치 참조)

구분	영역	과목명	이수 학점	이수 학년	비고
필수교과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인간의 가치 탐색	3학점	1	
		세계와 시민	3학점	1	
		빅뱅에서 문명까지	3학점	전 학년	
	글쓰기	성찰과 표현	3학점	1	1학년 필수 <주제연구>의 선수과목
		주제연구	3학점	2	
	영어	대학영어	2학점	1	3시간 2학점
	학점 소계		17학점		
배분이수 교과	1. 생명·우주·인간	5개 영역 중 3개 영역 선택	9학점 이상	전 학년	각 과목 3시간 3학점
	2. 분석·추론·논리				
	3. 상징·문화·소통				
	4. 사회·공동체·평화				
	5. 지능·정보·미래				
	학점 소계		9학점 이상		
자유이수 교과	체육 예술·창작 자유이수 기타	-	3학점 이상	1	
				전 학년	
	학점 소계		3학점 이상		
교양 이수 학점			29학점 이상	최대 56학점까지 교양 학점 인정	

수강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성찰과 표현>, <대학영어>는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이다.
- 글쓰기교과 <주제연구>는 **2학년 때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 교양교육 과정은 필수교과 17학점, 배분이수교과 9학점 이상, 자유이수교과 3학점 이상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의 기본 이수 학점을 모두 합한 **29학점 이상을 졸업이수학점**으로 한다.
- 배분이수교과는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각각 한 과목씩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자유이수교과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자기 계발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과정이므로, 재학 기간 중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독립연구 1, 2>(각 2학점) 과목은 자유이수교과에 포함된다.

03

너와 나

세계시민교육 현장 활동은 강의실보다
더 큰 강의실인 우리 사회 곳곳을 찾아간다.
'독립연구'는 자율성과 창의성, 소통능력을 강화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모둠 활동을 수행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협동심을 키우고
시대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립연구는 학문 분야의 빈틈을 메울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사제 관계도 돈독하게 한다.

우리는 후마니타스

“SNS 필터버블 속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갈등 있다”
가상의 알고리즘 실험을 통한 문제점 고찰

‘김좌파와 김우파’ 가상인물 만들기도, 캠페인 영상 제작 및 업로드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 탐구

참여 학생

강주희 의상학과 24학번
김동욱 경영학과 24학번
김세영 국어국문학과 24학번
김수민 정치외교학과 24학번
이서현 한약학과 24학번
장서원 미술학부 20학번
Ha Thi Minh Uyen 경제학과 23학번
Kong Xinyi 사학과 24학번

지도 교수

이병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늘날 누구나 인공지능 비서를 둘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취사선별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온라인 공간에서 찾는 이들도 상당하다. 특히나 SNS를 이용하는 비율은 거의 모든 세대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필터버블 현상은 정보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정보 이용자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터버블 현상이란 정보 이용자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정보 차단 효과의 흐름 속에서 정보 이용자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정보 이용자 간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

가상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알아본 우리 시대의 갈등

김동욱, 강주희, KONG XINYI, 김세영, 김수민, 이서현, 장서원, HA THI MINH UYEN 총 8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이하 팀명 : 8스타그램)은 조사 연구와 설문조사 과정에서 필터버블이 일으키는 사회 갈등 중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2030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등 유형이 바로 ‘젠더 갈등’임을 확인했다. ‘8스타그램’의 연구는 SNS 속 필터버블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젠더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그 원인과 해결책의 제시를 통해 사회의 화합을 유도하는 길을 여는 실천을 궁극적인 목표로 했다.

필터버블 현상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8스타그램은 일주일간의 유튜브 알고리즘 조작 실험을 진행했다. ‘김좌파’와 ‘김우파’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알고리즘 조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각 인물의 정치적 의견과 일치하는 영상의 출현 빈도가 잦아지고, 반대 의견의 영상 출현 빈도는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단순히 정보 이용자의 의견과 합치되는 영상만 추천하는 것이 아닌, 그와 반대되는 의견의 영상을 거름으로써 필터버블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좌파와 우파를 골고루 시청한 ‘김좌우’ 인물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분석해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필터버블 현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또한 알아냈다. 이 과정에서 8스타그램은 SNS 주 이용층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필터버블 관련 인식 조사를 진행하며 필터버블 현상이 이용자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삶 전반에 걸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필터버블 현상과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보 제공자의 맞춤형 알고리즘임에도, 알고리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기보다는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거나 다소 긍정적이라는 모순점을 발견해냈다.

GCP 활동을 통한 필터버블 대안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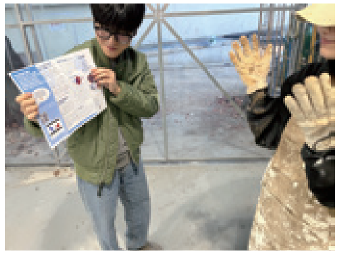
8스타그램 팀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네 명의 대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필터버블의 형성과 대안에 관한 사회 실험을 진행했다. 네 명의 참가자에게 의도적으로 필터버블을 주입시키고, 의견 양극화 정도를 측정해 온라인에서 필터버블의 형성 과정을 오프라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해냈다. 또한 참가자들끼리 팀을 나누어 토론하게 함으로써, 개방된 공간에서 나와는 다른 입장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터버블과 갈등을 완화하는 해결책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토론 후에 이어진 의견 강도 측정과 참가자 인터뷰를 통해 열린 공간에서의 토론이 성공적으로 필터버블 현상을 완화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팸플릿을 만들어 영상 홍보까지 진행하며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8스타그램의 프로젝트는 필터버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올바른 정보 수용 태도, 즉 정보 이용자가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필터버블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임으로 완벽히 규제하는 것이 어렵기에, 개인이 스스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래야 갈등이 아닌 건설적인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근본적으로 파훼해나갈 수 있을 것임을 실천해보는 사례였던 것이다.

이 사회에서 ‘시민’이 된다는 의미를 톺아보는 과정

GCP 활동을 통해 8스타그램은 단순히 SNS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디어 리터러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할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의식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2020)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삶의 모든 것이 완벽했던 저널리스트가 그 스스로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작정 일 년이라는 긴 시간을 안정된 일상을 떠나 여행하는 이야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먹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와 경쟁하고 질투하고 혐오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생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SNS가 만들어낸 거품에 휩싸여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속이기 쉬운 사람이 된다면.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김동욱(경영학과) 학생은 “이 사회에서 ‘시민’이 되는 의미를 필터버블이라는 주제 속에서 찾아보고자 노력”함으로써 8스타그램이 현상을 해석만 하는 리터러시가 아닌 실천의 리터러시로 이어졌다는 점을 말하는 듯하다.



8스타그램 팀은 필터버블 형성 및 대안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고, 필터버블 문제 해결을 위해 팸플릿을 만들어 홍보했다.

오래된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안 상상하기

문제 해결은 오직 직접행동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 시급

참여 학생
박상원 한의예과 24학번
이원준 무역학과 23학번
정소연 무역학과 23학번
최주영 아동가족학과 24학번
Ei Ya Mone Phoo 화학과 24학번

지도 교수
유현상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온라인 환경이 오프라인 환경과 매우 유사해진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상적인 범위까지 침윤하면서 덩달아 그림자도 커지고 있다. 최근 SNS를 통한 신종 스토킹 범죄에 이어 유사성행위까지 이어지며 그 심각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메타버스 내 성희롱·유사성행위 등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71%가 미취학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분포되어 있어 법의 테두리로 가둬지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심각성에 주목한 최주영, 정소연, 이원준, 박상원, Ei Ya Mone Phoo 학생으로 이뤄진 원팀(이하 원팀)은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를 탐구하고 그 대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성착취물 가운데 아동 성착취물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찍은 사진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에 최근 공익광고에서는 딥페이크에 이용되지 않도록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사진을 찍는다는 비판 섞인 우리의 씁쓸한 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우리의 미래 시민, 아동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

디지털 아동 성착취물 범죄는 특성상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늘 견지되어 왔다. 원팀은 전세계가 주목하여 아동 보호를 위해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동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에게 단순히 신체적인 피해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원팀은 아동 성착취물 범죄의 현재 실태와 정책, 제도를 찾아보며 방안을 세우기 위해 방향성을 먼저 강구했다. 그 과정에서 성인의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와 대비되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방안을 구체화했다. 최주영 학생은 N번방 범죄 이후 “인터넷,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범죄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디지털 범죄가 여전히 익명성이 강하게 보장되어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범죄의 추적이 쉽지 않고 법률적 제도의 모호성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그 첫걸음은 범죄의 개념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념은 무엇일까. 모름지기 개념의 구체화는 해결과 대안에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원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거나 착취하는 내용의 문서, 영상물, 게시물 등을 통칭하는 것이라 본다. 이때 아동은 13세 미만,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보았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원팀은 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불법 촬영물은 신체를 성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시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디지털 그루밍은 온라인 게임이나 SNS 등 아동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 범죄자들이 성착취 목적의 관계를 형성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셋째, 성매매 등 성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아동 성착취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열람하는 것 역시 당연히 범죄에 속하게 된다.

최근에는 다크웹이라는 불법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배포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27.4%, 13세~20세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40.5% 증가했다. 그 이유를 원팀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죄 노출 증가, 피해자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으로 인한 2차 가해로 보았다.

원팀은 아동 성착취물 범죄를 탐구하고
그 대안을 마련했다.

국제적 기준 마련, 수사 방식 체계화

원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대안을 상상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국이 절대적으로 늘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곤란이나 사회적 소외 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실태조사에 따라 방과후 학교 및 돌봄 복지 등 사회적 지지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당국의 위장수사 체계화라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는데, 디지털 범죄는 수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수사 기간을 늘리고 긴급한 사안에 한정하여 자유로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대안이자 상상은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야 하는 사회적 실천을 무엇보다도 요구한다. 최주영 학생은 “활동 초반엔 그저 가해자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방향성을 잡”는 것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관점과 특성으로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자 중심의 사건 해결이 목적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사후 해결이 목적이 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시민 의식을 깨닫는 것이었다. 원팀은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상상을 지속해갈 것이다.

애도의 실천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
유가족과 함께 걸으며 안전 관리 대책 고찰

생명 안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확인, “실질적 도움은 끝까지 잊지 않는 것”
추모대회 참여 후 지속적 연대, 함께 희생자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참여 학생
구예영 유전생명공학과 23학번
길주현 유전생명공학과 24학번
김나연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23학번
박지호 컴퓨터공학과 21학번
윤혜지 유전생명공학과 24학번
임승준 스페인어학과 22학번

지도 교수
이광훈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애도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기리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할 수도 있지만 실은 모든 의미 있는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해볼 단어는 ‘정상’이다.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시간, 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곧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 이는 비정상과 정상을 나누는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이어야 했던, 그리고 정상적이어야 할 우리의 최소 권리에 대한 의미로 볼 때, 쉬이 내려둘 수 있는 개념이 아닌 셈이다.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이자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바로 어떤 존재의 상실이다. 그런데 그 상실이 집단적으로 이뤄지고 그로 인해 공동체적 트라우마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동체를 비정상의 문면으로 이끌기 마련이다. 그때의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대처해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애도의 궁극적인 실천은 아닐까?

구예영, 길주현, 김나연, 박지호, 윤혜지, 임승준 학생(이하 팀명 : 최디조)은 애도의 근본적인 의미에 접근해 보다 실천할 수 있는 애도의 방식을 이번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경험하고 고찰했다. 작년에 2주기를 맞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태원 거리를 직접 답사하고 유가족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안전의 개선점과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최디조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간인 ‘별들의 집’에 방문했다.

추모를 통한 공공안전 문제 개선에 대한 인식 변화

이태원 참사 이후 다양한 시민단체가 연대를 통해 사고 규명 및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최디조 팀원들은 11월 12일 유가족과 함께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에서의 간담회에 참여해 경희대학교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 기획단 구성 과정을 조사하고 시민단체와 대학 간의 유기적인 관계성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최디조 팀은 참사 이후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일의 모습을 실제로 탐사하며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건 이후, 수정된 매뉴얼과 통제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지나 잊혀지고 무뎌지지는 않았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핼러윈 당일, 직접 이태원에 방문해서 현장을 지켜보고, 캠페인을 계획했다. 실제로 방문한 이태원의 골목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좁고 경사가 심했다. 8km라는 거리를 3시간 동안 걸으며 최디조 팀은 축제에 참가한 인원들 중 한 명이라도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되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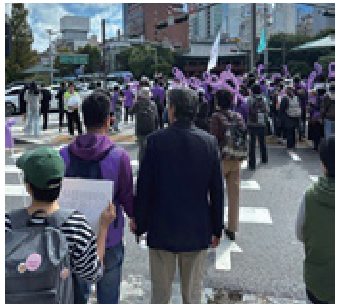
활동 기간 동안 팀원들은 ‘별들의 집’ 방문,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대회 참가, 이태원 참사 2주기 수원시민 추모 문화제 등에 참여하며 경희대학교 내의 활동을 구상하고 유가족들과의 연대, 프로젝트의 연계를 통해 공공안전 인식 개선에 힘썼다. 이를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국민의 안전권 보장 및 재난으로부터의 회복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원칙,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참사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침해와 2차 및 3차 가해를 포함한다는 폭넓은 관점에서 재난 참사가 어느 순간부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혹은 정치적 관계에 의해 소비되는 경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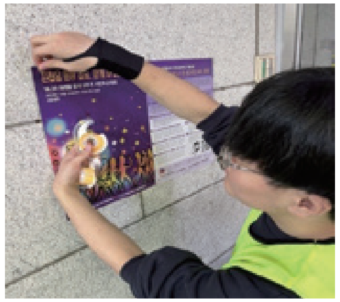
애도를 위한 ‘라포’를 강조하기도

이 프로젝트는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안전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최디조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을 공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고자 했다. 또한, 군중 밀집 관리와 공공안전 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했다. 더 나아가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우고자 했다. 팀원들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며,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법적·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디조는 “대학생의 이름으로서 ‘경희’의 이름으로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잊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 참여 학생 가운데 김나연 학생은 별들의 집 방문 날 “희생자 중 한 분이 생일을 맞이하셔서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현장성’의 핵심 가치는 ‘라포’에 있다는 깨달음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임승준 학생 또한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사로, 숫자로만 보았을 땐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없었지만, 직접 마주한 그들의 이름과 사진을 보며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더욱 그들의 일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턱없이 부족한 위로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애도하기 위해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더불어 계획에 없었던 걷기 행사에도 참여하며 최디조 팀원들은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애도의 순간 순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실천을 통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최디조는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대회에 참가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성원의 역할을 확인했다.

기후위기 극복할 생물다양성 패러다임
지역브랜딩 기반 생태관광 개발 프로젝트

광포만 습지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 및 생태관광 개발 사업 제안
광포만 캐릭터 디자인, 관련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기도

참여 학생

김승민 스포츠의학과 24학번
김예진 산업디자인학과 24학번
김현주 화학공학과 24학번
오지민 시각디자인학과 24학번
정구일 의류디자인학과 24학번

지도 교수

권순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기후위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자연 위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생태계라는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과 의무를 담지한다는 점에서 결코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생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극복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한 실천 중 하나이다.

김현주, 정구일, 김예진, 김승민, 오지민 학생(이하 팀명 : 버라이어팀)은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이라는 개념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 브랜드 개발을 통한 상생 지속을 제안한다. 프로젝트 목적은 경상남도 사천시 광포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브랜딩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지부진해진 광포만의 보존 계획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광포만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분열되어 있는 주민들의 통합과 협력을 증진시켜 광포만 보존의 필요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습지의 세계문화유산 및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추진 전략으로는 지역 브랜드 개발을 통한 광포만 습지의 인지도 제고,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참여 유도,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보존 활동 추진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광포만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개발 모델을 구축한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지역브랜딩

버라이어팀은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서 생존하는 모든 종의 다양성, 이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며, 자연계가 하나의 사슬처럼 촘촘히 엮여 있을수록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말한다.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생태계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물과 대기의 정화, 토양의 비료화, 해양 생물들이 제공하는 산소 등이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혜택은 인류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이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기후위기의 관점에서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다양한 작물과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것은 식량과 자원의 다양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다양한 작물, 가축, 어업 자원은 인류에게 식량과 영양을 공급하고, 약물, 원료, 에너지 등의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은 의료와 생명과학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다양한 생물들은 의료 연구에서 새로운 약물, 치료법, 진단법 등의 개발에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은 생태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관광업과 관련된 경제적 활동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도 한다.

'강력하고, 독특하며, 호의적인' 지역 이미지

버라이어팀은 이 관점에 주목하여 생물다양성이 지니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파악하고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지식, 예술, 신앙, 문화적인 행사, 음식, 의식 등이 형성되어온 사례를 분석했다.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다양한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형성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브랜드 역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즉, '지역 브랜딩' 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역 브랜딩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강력하고, 독특하며, 호의적인'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역 브랜딩은 특정 지역이 환경,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다른 도시와 구별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에 성공적인 지역의 브랜드 전략은 특정 지역의 장소성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문화·역사 등의 측면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이루는 것에 있다.

지치지 않는 도전, 광포만의 생물다양성은 현재진행형

버라이어팀은 여러 차례의 난관과 실패로 인해 프로젝트 준비 기간이 길어졌다고 밝히면서도 여러 기관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형성한 광포만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그림책 제작, 스탬프 투어, 갯벌체험 등 버라이어티한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지역 주민사회에 공유하면서 관계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브랜딩과 융합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광포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화하며, 나아가 관광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의 경제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버라이어팀은 도전의 가치를 배웠다고 말한다.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던 이유는 실패가 두려워 머뭇거렸기 때문이다. 지역 당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실천을 그치지 않았던 것은 막상 난관을 마주하고 해결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별것 아님을 깨달았고, 이 배움 이후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잡혀 결국 계획했던 성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버라이어팀에게 도전의 가치를 일깨워준, 귀중한 성장을 이끌어준 활동이었던 것이다.

버라이어 팀은 생물다양성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를 파악하고 광포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담은 그림책을 제작했다.

농부와 청년이 만나면 꿈이 커진다
팀 녹원, 농업유산 도농교류 상생 프로젝트

생강 코코아, 생강 꼬숩이 등 완주 특산품 활용한 식음료 상품 레시피 개발
농업유산 소개하고 도농교류 활동 내용 담은 웹진 발행

참여 학생

김노현 아동가족학과 23학번
김예지 조리&푸드디자인학과 23학번
서지혜 조리서비스경영학과 20학번
유수민 Hospitality경영학과 23학번
최하은 조리서비스경영학과 19학번

지도 교수

우대식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소비해야 할까? 개성이 강조되는 초현대사회에서 소비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한 개인의 만족을 넘어, 공생과 상생을 위한 공동체적 가치를 고려하는 소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가치소비'가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는 것은 비규격상품, 즉 못난이 농산물이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농가와의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 가치를 실현하는 소비 형태로 발전하면서 더욱 의미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녹원 팀의 연구가 시작됐다. 김노현(아동가족학과 23학번), 김예지(조리&푸드디자인학과 23학번), 서지혜(조리서비스경영학과 20학번), 유수민(Hospitality경영학과 23학번), 최하은 (조리서비스경영학과 19학번) 학생이 모여 결성된 녹원 팀은 전북 완주에서 '농업유산 도농교류 상생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 소농과의 연계 및 교류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넘어선 연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더불어 농업 생산자를 포함하는 농업 유산의 가치, 농작물의 생산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농민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냄으로써 오늘날 농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녹원 팀은 전북 완주를 찾아 전통적인 완주 생강 농법을 배우며 전통 농업의 가치와 농민들의 노력을 느꼈다.

완주 생강 전통농법 경험하며 공동체라는 가치 캐내기

녹원 팀은 완주를 찾았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중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에 주목한 것이다. 전통적인 완주의 생강 농법은 손과 시간이 많이 가기에 대량 재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관행농법으로 생산된 개량종에 비해 깊고 풍부한 맛과 높은 영양 밀도를 갖고 있다.

팀원들은 먼저 완주의 전통 농업을 보존하는 (사)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 및 공동경작단과 함께 완주생강 전통농법 시스템을 경험했다. 생강 재배 과정을 체험하며 전통농법의 가치와 보존위원회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생강을 심고,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며 두둑의 모양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 농업의 깊은 가치와 이를 유지하려는 농민들의 노력을 가까이에서 느꼈다. 생강을 심을 때에는 씨눈이 위 또는 옆으로 향하게 심어야 한다는 것, 만약 눈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 아래로 싹을 틔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 등 세심한 생산 과정을 체험한 것이다. 또한 캠프파이어 활동을 통해 도농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앞으로 협력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팀원들은 저마다 공동 경작하는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김노현 학생은 "한 밭을 모두가 책임을 지고 같이 일궈나가는 모습에 영감을 얻"었다며 "본인의 구역을 빨리 완성한 사람이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당연시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는 소회를 전했다. 우리 민족의 사회공동체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온 '품앗이'의 미덕을 몸소 경험한 순간이었다. 한마디로 온몸으로 '공동체'를 경험한 것. 이를 통해 녹원은 단순히 농가 체험을 한 것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우리 공동체만의 가치를 캐내고 왔다.

생강의 새로운 탄생, 지역을 되살리는 '가치 아주심기'

녹원 팀의 이번 프로젝트는 완주의 전통 생강 농업유산을 홍보하는 기본 취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도농 교류에 기여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녹원 팀은 완주 토종생강을 활용해 식음료 상품 4종 레시피를 개발했다. 생강 코코아, 생강 꼬숩이, 대추생강차, 생강 푸딩에 농업·농촌 이야기와 생산자의 노동 가치를 담았다. 만드는 과정에서 농부와의 만남을 기획하고 피드백을 얻은 덕분이다.

현지에서 생강 푸딩과 생강 코코아 시식회를 진행하며,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공동경작단원 느림은 푸딩이 엄청 맛있다며 "생강 같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생강은 어떤 음식에 넣어도 맛을 조화롭게 만들고, 음식의 맛을 승화시키면서 어우러지게 한다는 뜻"인데 "지금 이 음식을 먹으며 그 생각을 했다. 재료의 맛이 어우러지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팀원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완주의 농가와 경희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갈 도농 교류 상생 프로젝트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전통 차가 제품이 전통 농가와 함께 발맞춰 가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다.

이번 독립연구의 지도를 맡은 우대식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완주 방문을 함께 하면서 현지 농민들과의 교류가 학생들과 농민들 모두에게 큰 자극이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농민들의 열정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가능성과 협력의 방향이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프로젝트를 넘어 학생들의 푸릇푸릇한 아이디어와 농민들의 의지와 열정이 한데 맞물려 새로운 시너지와 패러다임을 생산해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을 되살리는 '가치 아주심기'가 아닐까.

녹원 팀이 만든 식음료 상품 4종.

동네민주주의와 로컬거버넌스, 마을공동체
소극적 공동체주의자에서 적극적 공화주의자로

토크빌의 습속과 제도, 아렌트의 정치 행위, 바흐친의 다성악적 대화 탐구
낭만을 넘어선 공동체 실천 고찰

참여 학생
박기병 정치외교학과 19학번

지도 교수
채진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정치적 단위(Political Unit)를 국가 단위에서 광역·기초 단위로, 동네와 마을 그리고 주민 개개인의 삶으로 좁혀가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고령화 및 구도심 속 청년세대 유입 감소로 지역 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낙후 지역에 대한 외면, 커뮤니티 감소는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 새로운 정치 사각지대가 등장하는 것이다. 박기병 학생은 '동네민주주의'와 '로컬거버넌스'의 적실성에 주목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직접 기능하며 독립연구를 수행했다.

1990년대 지방자치가 전격 실시된 이후, 한국 민주주의 속 시민참여는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거쳐왔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온전히 구현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 박기병 학생은 "자치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방만한 운영, 조숙한 민주주의 속 참여하는 주민의 부재, 위로부터 보급되는 참여제도,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기대어지는 구조, 정파적 갈등"과 같은 현실적인 지점을 짚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동네,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와 공동체가 더 나은 정치 문화의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찾았다.

이론적 규범성과 당위성을 넘어선 실천의 시작

박기병 학생은 『미국의 민주주의』(토크빌), 『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아돌프 가써), 『공동체의 낭만에 반(反)하여』(미란다 조셉), 『공동체의 감수성』(구현주)를 비롯한 저서 및 연구물을 자세히 검토했다.

그는 자치제도와 공동체 담론의 이론적 규범성과 당위성만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채진원 교수의 지도 아래, 아렌트의 공공화법과 바흐친의 다성악적 대화법 등 방법론에 기반한 공동체 실험을 병행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소재) 주민들과 함께 '달빛누리'란 이름의 마을공동체를 구성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동주택 공동체 조직·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3월부터 8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특히 주민 500명으로부터 의견을 모아 마을의 9개 의제, 15개 분야, 70개 제안을 정립하기도 했다. 앞선 주민 제안의 실천을 위해 입주자대표자회의, 주민자치회, 지역 청소년시설과 협력하고, 마을 활동가, 대학교수, 지역구 의원 등의 마을 자원을 확보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한 공동체 실험은 캠퍼스에서의 학문과 현장을 잇는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박기병 학생은 마을공동체 현장에 참여하며 주민의 참여와 실천의 가치를 고민했다.

박기병 학생은 각종 저술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자율성과 민주주의가 함께 작용하여 매우 활발한 시민 활동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 공동체를 정의하고 현장 실천을 통해 로컬거버넌스의 요건을 상상했다. 특히 연구 과정 중 학습한 "좋은 말하기 방법과 폭력을 방지하는 대화법 4가지"는 공동체 구성원의 실천과제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지역공동체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정치사회와 일반사회의 자성을 요구하는 대화법으로 다가온다.

공동체 담론을 통해 바라본 로컬거버넌스

여기에서 핵심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 여지를 갖춘, 대화 참여자 간의 열린 소통·공유의 자세에 있다. 나아가 채진원 교수는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생각과 실천을 만들기(Making Down)보다는 자라나게끔(Growing Up) 하는 고민이 크게 요구됨을 강조했다.

박기병 학생은 단순한 공동체주의자에서 공화주의자로의 탈피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제시했다. 풀뿌리 수준의 훌륭한 참여와 활동만으로는 로컬거버넌스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상층부의 권력(예산) 분산 작용을 주민이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위로부터 분산된 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건강한 풀뿌리 조직의 형성이 나란히, 같이 다뤄져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머물며 생각하지 않고 실천해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최근 돌봄의 영역을 비롯해 사회적 참사, 기후위기, 먹거리 문제와 정치적 혼란 등 한국이 떠안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고민 상당 부분에 지역과 주민 개개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박기병 학생은 국가와 권력,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매워지지 않는 틈을 공동체성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그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을 함께 고민하고 기능해 온 시민의 존재"를 언급하며 "가장 낮고 작은 층위에서부터 참여하고 실천하는 동료 시민에게 관심갖고 격려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와 생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생각을 내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동네'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부터 참여하고 실천하는 경험들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자임(自任)하는 대표성에 기반한 시민의 역할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연구의 소감을 남겼다.

박기병 학생이 수행한 이번 독립연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사회에서 정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하는 지점을 만든다. 그것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해 시민 각자가 반추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닐까.

달빛누리에서 주최한 주민공론장.
채진원 교수(가운데)가 참여해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합의를 주민들과 공유했다.

달빛누리는 2024년 6월,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공모사업과 마을네트워킹 활동을 2025년에도 실천하고 있다.

운동을 운동답게 하는 '운동복'은?
에슬레저용 크롭탑 맞춤 밀착 패턴 개발

가상의류제작 소프트웨어 활용, 창의성 극대화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스포츠웨어 인기 부상

참여 학생
김은유 의상학과 21학번

지도 교수
송화경 의상학과 교수

웰빙 열풍 이후 현대사회에서 '운동'은 인간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일종의 문화로까지 자리매김하였다. 일과를 마치고 헬스장으로, 필라테스나 요가원으로, 복싱장이나 풋살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열심히 달린 후 SNS에 공유하는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하기. 운동은 이제 '나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문화적 삶의 변화 속에 운동은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문적이고 기능성이 강조된 운동복은 선수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누구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입을 수 있는 대중적인 '에슬레저 웨어'가 유행하고 있다.

에슬레저 웨어는 기능성을 가진 스포츠웨어이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의류이다. 최근에는 스포츠와 일상적인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신체적 활동성과 일상생활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증가되면서 에슬레저 웨어의 인기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크롭탑은 요가복, 필라테스복, 트레이닝복뿐만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착용 가능하여 특히 20대 여성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크롭탑은 운동 시 편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밀착되어 착용되기 때문에 체형에 적합한 패턴설계가 필요한 아이템이다.

이에 획기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에슬레저 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로서 김은유(의상학과) 학생은 3개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디자인과 비슷한 혼용률의 소재로 제작된 슬리브리스 크롭탑을 선정하여 이들의 패턴치수, 소재 및 패턴축소율을 분석했다. 더불어 선행연구(Ryu & Song, 2021)에서 개발한 Rhino와 Grasshopper 프로그래밍 기반 여성 3D 인체스캔 상반신 평면 전개 패턴 자동 설계 알고리즘을 생성한 밀착패턴에 반영하여 각 소비자의 체형에 적합한 에슬레저용 맞춤형 크롭탑을 개발했다.

김은유 학생은 한국 의류산업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여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D 기술을 활용한 크롭탑 제작

김은유 학생은 먼저 가장 보편적인 크롭탑 사이즈 선정을 위해 꼼꼼한 연구를 진행했다. 3사 의류브랜드의 가슴둘레와 신장의 신체치수 차트 등을 조사하고 제8차 Size Korea의 20~29세 여성의 평균 치수에 맞는 사이즈를 찾았다. 이 중 N사에서는 M 사이즈가 보편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J사는 제품치수가 제시되고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신체치수를 입력하면 제품의 사이즈를 제안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8차 Size Korea의 20~30세 여성의 평균 몸무게와 키를 입력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M 사이즈를 선택했다. A사 사이트는 '내 체형에 맞는 리뷰' 서비스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이즈는 총 S, M, L, XL 4가지 사이즈로 나뉘며, 키 160-164cm, 몸무게 55-59kg는 평소 S 또는 M 사이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밝혀 M 사이즈의 크롭탑을 실험 사이즈로 선택했다.

스포츠와 일상의 경계가 흐려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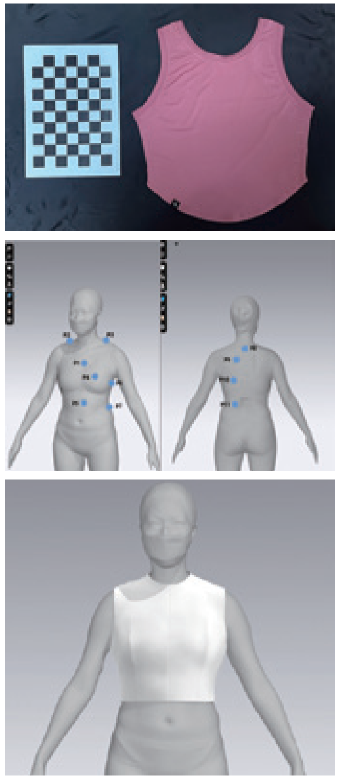
이후 Rhino와 Grasshopper 프로그래밍 기반의 여성 3D 인체스캔 상반신 평면 전개 방식을 활용해 응력 분포값을 측정해 알고리즘을 생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여성 평균 신체에 꼭 맞는 크롭탑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했다. 이를 위해 먼저 패턴치수 및 응력값을 고찰했다. 사전에 조사한 각 브랜드의 크롭탑을 패턴별로 분리한 후, 디지타이징(그래픽 태블릿 드로잉)한 후 CLO 3D로 가져오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후 제8차 Size Korea 데이터에서 20대 여성의 평균 사이즈에 해당하는 3D 인체스캔을 선정하고 CLO 3D에 맞는 포맷으로 불러와 3D 가상 아바타를 제작했다. 다음으로 3사 브랜드의 크롭탑을 20대 평균 여성의 스캔 이미지에 3D로 가상 장착시킨 후 부위별 응력값을 측정하고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생산된 가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김은유 학생은 밀착패턴을 생성하고 맞춤 크롭탑을 개발했다. 인간의 신체는 다양한 형태로 보편값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신체에 의류가 최대한 밀착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그 패턴을 개발하고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성과가 드러난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경희대학교 제 1회 융합과 혁신 학부 연구생 학술제 포스터 발표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2024년 한국 의류산업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여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는 등 그 의의를 증명했다.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에서 비롯된다. 인간 삶의 사회적·문화적 장면들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나'의 관심사와 접목될 때 창의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김은유 학생을 지도한 송화경 교수는 3사 의류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디자인과 비슷한 혼용률의 소재로 제작된 슬리브리스 크롭탑을 선정하여 이들의 패턴치수, 소재 및 패턴축소율을 분석하고, 여성 3D 인체스캔 상반신 평면전개 패턴 자동 설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한 밀착패턴 반영 등 과학적인 연구 성과를 칭찬했다.

특히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CLO 3D와 같은 가상의류제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초록을 작성하여 학술대회에 포스터 발표도 하고 우수 포스터 발표상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독립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앞으로 더 다양한 사이즈의 밀착패턴을 연구해 김은유 학생의 새로운 에슬레져 웨어를 기대해봄 직하다.



김은유 학생이 3D 인체 스캔을 활용해 밀착패턴을 생성하고 맞춤 크롭탑을 개발했다.

‘서울에서 동경까지’, 문화관광의 스토리두잉
현재의 관광매력물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전통시장과 테마파크, 한국과 일본을 오가다
유튜브 등 숏폼 콘텐츠 활용하기도

참여 학생
이종혁 지리학과 23학번

지도 교수
최서희 지리학과 교수

문화관광의 현재 트렌드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에서 ‘스토리두잉(Storydoing)’으로 전환되고 있다. 스토리두잉은 스토리텔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스토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관람객의 수동적인 향유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사유하는 능동적 향유 방식으로 문화관광 콘텐츠를 설계해 콘텐츠에 대한 재소비율을 높인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여행 콘텐츠는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생산된다. 일명 ‘여행 유튜버’는 자유 여행의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영상과 이미지로 접한 새로운 풍경은 그 자체로 인간의 여행 욕구를 자극한다.

유튜브, SNS, OTT, 화상플랫폼, 체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은 펜데믹 이후 여행이나 관광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요즘 새로운 시선으로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번 독립연구에 참여한 이종혁(지리학과) 학생은 미디어에 익숙하고 융합콘텐츠에 능한 MZ로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글로컬 콘텐츠를 제작했다. 한국과 일본은 닮은 듯 닮지 않은 ‘먼 나라 이웃 나라’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계획도시로 변모하게 된 ‘경성’의 풍경이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주변 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다. 예컨대 인천에 위치한 근대거리를 거닐고 있자면 일본식으로 된 건물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면서도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애환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종혁 학생은 조금 더 창의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다. 다음을 보자.

이종혁 학생이 촬영한
북촌 한옥마을과 청계천의 모습.

전통시장과 테마파크에 주목하다

이종혁 학생은 ‘관광매력물’이라는 개념을 차용했다. 관광매력물이란 관광객이 관광 욕구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올 만큼의 목적물을 칭한다. 전통시장은 과거부터 이어져오는 역사가 깃든 관광매력물이고, 식자재를 비롯한 다양한 물품들이 유통되는 장소로서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시장의 경우는 상당히 유명하거나 미디어 노출이 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기 어려워 많은 전통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이용객이 연령대가 높다는 점을 극복하고, 젊은 고객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행 및 관광 소비의 주체가 20-40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광매력물로는 테마파크가 있다.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국제적인 테마파크는 지속적으로 방문객의 유입이 가능하지만 도시의 소규모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은 그 수요가 비교적 적은 것이 현실이다. 관광목적지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며 사회적·문화적 파급·효과를 재생산하는 테마파크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종혁 학생은 <서울에서 동경까지>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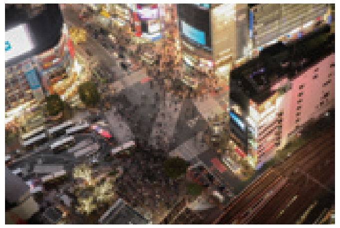
이 기획에 따라 비교한 ‘문화역서울284’와 ‘도쿄역 마루노우치구치’는 그 양식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데 도쿄역은 그 역사 자체만으로도 관광객을 불러오지만 서울역은 서울역만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찾지는 않는다. 문화역서울284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나 기획이 관광매력물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도쿄 시내에 위치한 센소지 사찰과 불국사를 비교해보며 불교의 영향을 받은 두 나라의 공통점과 관광지로서의 사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고찰했다. 일본의 요코하마가 한국의 인천과 상당히 닮은 꼴이라는 점도 소명한다. 두 차이나타운 모두 개항 시기에 맞춰 화교의 유입을 통해 형성됐다.

전통시장과 테마파크 방문객 주요 연령대 큰 차이

이종혁 학생은 전통시장과 테마파크의 주요 방문객 연령대가 정반대라는 관점에 주목한다. 먼저 양국 간 경관의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글로컬로서의 다양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향후 다양한 종류의 관광매력물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용해야 할 점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테마파크가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유튜브 숏폼 영상을 제작했다. 유튜브 숏폼은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관광매력물의 장점을 콘텐츠화한다는 점에서 화제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지향한다. 전통시장에서도 젊은 층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숏폼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 후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공유함으로써 20-40대 향유층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후 결과를 비교하면서 테마파크와 전통시장을 어필하는데 적합한 형태의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Tokai 대학의 학생들과도 교류하며 공동 답사를 진행했으며 경주의 불국사, 경주월드, 동궁과 월지, 첨성대 일대를 조사했다. 더불어 울산대교 전망대와 고래문화마을 등도 답사했다.

일본에서는 도쿄의 사찰 센소지와 스카이트리를 방문해 랜드마크의 관광매력물로서의 상징성을 고찰하였고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에서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떠올리며 각국의 관광지 비교를 이어나갔다. 한편 긴자와 니혼바시 등 금융가, 도쿄역과 같은 철도권의 모습이 한국의 풍경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룰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종혁 학생만의 유튜브 영상이 제작된다면 문화관광 스토리두잉의 새로운 성과가 기대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이종혁 학생이 촬영한 도쿄역과 시부야의 풍경.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광매력물을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다.

도시가 숨 쉬는 법,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의 미래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자연기반해법과 커먼즈의 실현

‘샛숲사’ 활동 참여 및 프로그램 기획, 샛강공원 관계자 인터뷰 진행
시민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관리 체계 필요

이지영
관광학과 20학번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점점 높아지는 빌딩, 넓어지는 도로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만큼 자연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은 도시에 숨을 불어넣는다. 사람들에게 여유와 생기를 주며,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한 공간이다. 이곳은 자연과 도시가 함께 살아갈 가능성을 실험하는 살아 있는 연구소다.

이지영(관광학과 20학번) 학생은 여의샛강생태공원에 주목했다. 팀원들과 여의샛강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이 도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커먼즈(Commons) 개념이 생태 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생태적 순환을 위한 공원 내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다른 생태공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5번 ‘육상 생태계 보전’과 관련이 있다.

되찾은 강, 다시 태어난 공원, 여의샛강의 두 번째 이야기

이지영 학생은 여의샛강생태공원과 관련된 자료를 찾고 현장을 탐방하기로 했다. 과거, 여의샛강은 산업화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됐다. 물은 탁해졌고, 생물종은 줄어들었다.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을 파괴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도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도시 개발이 아닌 자연 회복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NbS 전략이 도입되며 생태계가 서서히 회복됐다. NbS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의미한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고 홍수 완충구역을 설치해 도시 내 기후 변화 적응력을 높였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멸종위기종 보호 및 서식지 복원에도 힘썼다. 수달, 맹꽁이 등의 법정보호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인공습지와 생태연못을 조성했다. NbS를 활용한 비점오염원 정화와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는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시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가꾸고 지켜나가는 공동의 자산이 되고 있다.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 자연 보호 캠페인, 예술을 통한 환경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은 시민들에게 생태 보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발로 찾은 변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변화

이지영 학생은 공원에 직접 나가 생태환경을 관찰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현장 참여는 참여자 시점과 진행자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샛강 숲길을 걷는 사람들’(이하 ‘샛숲사’)에서 샛강공원 사진 촬영 강습을 들었다. KBS 자원봉사단체가 공원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습지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도 함께했다. 사람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샛강공원 곳곳을 걸어 다니며 계수나무, 은사시나무 등 샛강공원에 있는 나무의 종류를 배우고 자연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갔다. 마지막으로 ‘나무와 시민의 권리 선언’에 참여하며 시민공동체적 순간을 경험했다.

이지영 학생은 ‘샛숲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린이 대상 습지교육 현장에 참여하고, 사쉐 만들기를 기획·진행하며 여의샛강생태공원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자 시점에서 ‘샛숲사’ 토요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기를 쓰며 일주일을 정리하고 샛강공원에서 힐링을 얻는 시간을 만들었다. 향주머니 ‘사쉐’ 만들기도 큰 호응을 얻었다.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후각으로 오래 기억하는 것이다. 두 가지 참여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해 팀원들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로부터 “창의력이 뿜뿜, 완전 재밌었습니다”, “자연과 힐링하며 행복했고 걱정은 마이너스, 기쁨은 플러스, 나눔은 배가 되었다” 등 유의미한 피드백을 받았다. 시민들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이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샛숲사 회원 인터뷰와 여의샛강센터 조은미 대표 인터뷰를 통해 여의샛강생태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먼즈를 확인했다.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4년째 진행 중인 ‘샛강 놀자’ 공모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10~15개의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겁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콩쥐팥쥐 자연 놀이팡’ 공간도 마련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환경지킴이 일자리 주선, 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연간 3~4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이다. 현대를 비롯한 50개 이상의 기업에서 매년 3천 명가량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대학생들과 1365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샛강 놀자’ 산하 동아리들이 주도하는 환경 보호 및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공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태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공원 운영 담당자들은 커먼즈 개념을 강조했다. 공원 운영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지영 학생은 다른 국가의 NbS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운영 방식과 차별점을 정리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위하여

현재 여의샛강생태공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참여율은 높지만, 청년층과 어린이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지영 학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강화와 청소년 대상 생태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공원의 모든 활동이 서울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공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성공 사례를 서울시 내 다른 생태공원으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시와 자연을 조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장이자, 가능성의 공간이다.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자연은 단순히 남겨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작은 관심에서 출발해 진심을 담은 실천으로 이어져”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반부패 의식 확산 프로젝트

노션 웹사이트 제작, 반부패 포스터 대회 개최, 영화 시청 챌린지 활동
부패를 넘어 공정한 사회로, 문화의 힘으로 만드는 변화

강석희
무역학과 22학번

부패는 더 이상 특정한 계층이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부패를 목격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스포츠 승부 조작,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 기업의 부정 회계, 그리고 대중문화 산업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몇몇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강석희(무역학과 22학번) 학생이 속한 ‘팀 컬쳐러리(Culturally)’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단순한 법적 규제나 감시 시스템만으로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팀원들은 ‘문화’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문화 콘텐츠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팀원들은 ‘문화로 반부패를 말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과 제도구축과 관련이 있다.

강석희 학생과 팀원들은 노션 웹사이트를 활용해 문화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관련한 읽기 자료를 제작해 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영화 시청 챌린지, <기생충> 함께 보고, 토론회도 열어

팀원들은 먼저 노션 웹사이트를 활용해 읽기자료를 제작했다. 다양한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이브/어도어 사건’, ‘KBO 승부 조작’, ‘영화 <기생충>’, ‘PRODUCE 101 투표 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자료를 읽은 이들이 자신의 이해 수준을 점검하고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퀴즈도 만들었다.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반부패 포스터 대회’를 개최한 것. 시각적 메시지는 텍스트보다 더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포스터 대회 주제는 ‘반부패 및 공정 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 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윤리적 가치와 공정한 사회의 중요성 강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반부패 활동과 메시지 제시’였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다. 총 24개의 작품이 모였고, 그중 5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화분에 뇌물을 주는 내용을 토대로 부패에 대한 인식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나, 오늘의 부패를 없애는 활동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주제를 담은 작품들이 뽑혔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참여자들 외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화라는 매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화 시청 챌린지’를 기획했다. 개인적으로 또는 팀원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인증 사진과 감상평을 SNS에 업로드하면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수 감상평을 뽑아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영화의 주요 메시지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토론회도 열었다.

함께 볼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선택했다. 계층 간 불평등과 부패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적 문제를 예술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이 챌린지에 참여하며 영화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가자 52명 중 87%가 ‘부패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60% 이상이 ‘문화 콘텐츠가 반부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부패 문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

문화 콘텐츠는 정보 전달 이상의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딱딱한 보고서나 정책 문서보다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팀원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반부패 메시지를 보다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메가히트곡인 로제의 <APT.>를 ‘순살 아파트’와 조합해 개사한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작했다. 순살 아파트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일컫는 단어다. 건설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부 기업의 탐욕과 감시 체계의 허점은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 채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 사람들이 부패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반부패 프로젝트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돼 진심을 담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 진심은 팀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통해 반부패 문화 확산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과정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팀원들은 “앞으로도 이 가치를 잊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반부패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부패는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나는 부패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볼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반부패 포스터 대회 출품작. 총 24개의 작품이 모였고, 5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실습인가?
직업계고 실습생의 산업재해 및 불평등 보상 문제 제기

마이스터고 졸업생 인터뷰, 정책 제안서 작성
실습생 권리 보장하는 새로운 현장실습 체계 만들어야

곽소현
국어국문학과 22학번

한 청년이 공장의 소음 속에서 작업을 이어간다. 그가 손에 쥔 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그저 견뎌야 했다. 노동과 배움이 섞인 이 공간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이하 직업계고) 실습생들은 일하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버티며 살아남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직업계고 실습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이론을 현장에서 적용하며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실습생들에게 현장실습은 단순한 교육과정이 아니다.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기도 한다. 실습생이라는 신분으로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곽소현(국어국문학과 22학번) 학생은 직업계고 실습생들의 산업재해 피해와 보상 불평등 문제를 밝히고자 했다. 2024년 11월 22일 마이스터고 졸업생(김모 씨)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습 과정에서의 차별, 안전 문제, 사고 이후 보상 절차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다. 인터뷰와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실습생의 안전 교육 강화, 실습 환경 개선,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및 법적 보호 강화 방안을 담았다. 실습생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0번 불평등 완화와 관련이 있다.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 최근 5년간 실습생 권익침해 사례 총 125건

곽소현 학생은 먼저 직업계고 실습생들의 현실을 조사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매장에서 직업계고 실습생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강도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붙은 '실습생'이란 단어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면죄부가 되거나, 정당한 임금과 보상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실습생들의 권익침해 사례는 총 125건으로, 실습시간 초과(47건), 부당한 대우(27건), 성희롱(24건), 야간·휴일 실습(14건), 유해·위험 업무 배정(12건)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총 53건으로, 2018년 3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2021년 이후 산재 미처리 비율이 높아져 실습생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습생들은 '배움'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배움과 노동의 경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2017년 제주도에서 한 실습생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2021년 여수에서는 실습생이 요트 바닥을 청소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시스템이 만든 비극이다.

문제는 사고 이후에도 지속된다. 실습생들은 산업재해 보상에서도 차별받는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습생은 이러한 보호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산재 처리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학생이지만,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곽소현 학생은 마이스터고 졸업생인 김 모씨를 인터뷰하며 실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김 모씨는 실습 중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지만,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었다. 회사는 병원비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회유했고, 실습생은 관리자와 마찰을 빚는 것이 두려워 산재를 포기했다. 그는 "관리자는 '산재가 많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고 했"다며, "나 하나쯤 참고 넘어가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사고는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현장실습은 실습생들에게 사회를 배우는 첫 경험이자, 노동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공정과 부당함으로 얼룩진다면, 그 배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 현장실습 제도는 필요하지만, 실습생을 착취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곽소현 학생의 생각이다.

곽소현 학생은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실습생이 현장에 나가기 전 충분한 안전 교육과 노동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실습생을 단순한 '견습생'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들이 수행하는 일이 노동과 다름없다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실습 이후에도 실습생들의 경험이 기록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 실습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이후의 실습생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장실습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이 누군가에게는 무너지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낼 뿐이다.

어떤 이들에게 실습은 첫 사회 경험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가 된다. 우리는 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습이 공정한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실습이 단순한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사회가 응답할 때다.

곽소현 학생과 팀원들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직업계고 실습생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 피해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배움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 점검 및 평가

GPE 연례보고서 및 홈페이지, 프로젝트 검토
장애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미미

김서현
아동가족학과 24학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지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를 바꾼다. 이 강력한 도구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성별, 경제적 상황, 국가 간 격차는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다.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2002년 설립된 GPE는 '모든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문제는 단순한 기부나 정책 발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번, 즉 '양질의 교육'을 이루기 위해, GPE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서현 아동가족학과 24학번 학생은 GPE의 연례보고서와 홈페이지,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GPE가 얼마나 필요한 기구인지, GPE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교육 불평등에 맞서는 GPE의 전략, 특히 여성과 난민 아동에 집중

GPE는 단순한 교육 지원 기구가 아니다. 이 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는 점이다. 90개 이상의 파트너 국가와 수많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협력하며,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김서현 학생은 GPE가 교육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가 스스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 GPE는 이를 위해 'Multiplier'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발도상국 정부가 교육 예산을 마련하면, GPE가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네팔, 가나,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등 여러 국가가 이를 통해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육 불평등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 중 하나는 여성과 난민 아동이다. GPE는 'Girls' Education Accelerator(GEA)'를 운영하며 여성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니제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아의 학교 등록률이 70% 이상 증가했으며,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조혼 방지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난민과 이주민 아동의 교육 문제도 GPE가 집중하는 영역이다. 분쟁과 재난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고 있다. GPE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하여 난민 캠프 내 학교를 지원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격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서현 학생은 국제기구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을 분석하며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정책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의 교육 시스템과 정책 방향성 조율해야

김서현 학생은 GPE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실제로 변화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6,700개 이상의 교실이 신설됐고,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GPE의 지원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이 같은 노력을 지지하며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세계 교육 정상회의(Global Education Summit)에서 40억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조사를 마치고 김서현 학생은 GPE에 대한 평가를 이어나갔다. 평가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GPE의 활동은 유의미했는가? 김서현 학생은 성별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교 재등록률을 증가시키며, 저소득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SDGs 4.2에서 강조한 영유아 발달 교육과 보육 사업이 부족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미미하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둘째, 절차적 문제가 활동 수행에 방해가 되었는가? 김서현 학생은 국제기구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인 절차적 비효율성이 GPE에도 존재하지만, GPE는 이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셋째, GPE가 앞으로 국제사회에 필요한가? UN과 그 산하기구들이 사기업 및 자금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GPE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교육 기회의 평등한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교육,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

교육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은 개인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도구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회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GPE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서현 학생은 국제기구의 역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야 할 때다.

2024학년도 2학기 <성찰과 표현> 수강생이 '내가 원하는 삶과 사회'를 주제로 쓴 글이다.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원한다

권나현
치의예과 23학번

"너는 꿈이 뭐야?" 이 질문을 모두 들어봤을 것이라 확신한다. 나 역시 저 질문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라왔다. 요새도 종종 듣는다. 다만, 질문이 조금 바뀌었다. "너는 졸업하고 뭐 할 거야?" 꿈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 묻는다. 질문이 바뀐 것이 약간은 속상하다. 꿈이라는 단어가 주던 희망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삶에 찌든 어른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다닐 거야."라는 말이 꿈을 묻는 말에는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졸업 후 계획을 묻는 말에는 답이 될 수 없으니까. 꿈은 이제 희망이 아닌 사회가 만든 틀이 되어버렸다.

어린시절의 나는 꿈이 참 많았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다. 드라마 속 변호사가 멋져 보여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역사가 좋아서 한국사 교사가 되고 싶었다. 초등학생 때는 이런 단순한 이유가 꿈이 되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턴 어른들의 말에 휩쓸려 갔다. 한국사 교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문과는 취업 안 된대"였다. 당시 좋아했던 친구가 공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나도 공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었다. 한국사 교사라는 꿈도 포기했고, 공대는 취업도 잘 될 테니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공대를 가기엔 수학과 물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는 언니가 일반고에서 카이스트를 갔지만 적응하지 못해 결국 자퇴하고 의대로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꿈을 꾸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가고 싶은 학과가 없어진 나는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왔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치과의사는 돈도 괜찮게 벌 테니까.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였으니까. 요즘도 종종 졸업하고 뭐 할 거냐는 질문을 듣는다. 그때마다 내 대답은 항상 같다."별일 없으면 치과의사 하겠지." 사실 이 대답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 '별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 기적처럼 대학 재학 중에 꿈을 찾아서 남은 인생을 그 꿈을 위해 바치고 싶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무릎을 털어주는 사회

왜 우리는 꿈이 없는 것일까. 아마도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꿈이 많던 시절엔 꿈꾸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학업 걱정, 미래 걱정, 그리고 생계 걱정. 걱정만으로도 가득 찬 하루에 꿈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여유 없는 삶에서 힘들게 시간을 내어 꿈을 꿔도 현실은 냉랭하기만 하다. 그렇게 우리는 제한된 세상에서 한정된 꿈을 꾼다. 꿈을 꿀 자유마저 박탈당한다.

'요즘 젊은 애들은 꿈이 없어. 의지도 없고 그냥 놀기만 하고.' 우리 사회는 꿈꾸지 않는 청년을 나무라면서도 정작 꿈꿀 여유는 주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잠시 쉬어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안정된 직업만 꿈이라고 인정해 준다. 의과대학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보고 말세라고 욕하면서도 정작 이공계 연구 지원금은 깎고 요새 공대 나와도 취업 안 된다는 말만 한다.

마음껏 도전하고 충분히 실패하고 몇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무릎을 털어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어떤 꿈을 꾸어도 좋은 꿈이라고 웃으면서 응원해주는 여유로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 두려움 없이 꿈을 그릴 수 있는 세상. 누군가의 꿈이 다른 이의 미래가 되는 세상. 나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원한다. 성인이 되어서 "너는 졸업하고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에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다닐 거야."라고 답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미래.

2024학년도 2학기 <성찰과 표현> 수강생이 '나의 장소'를 주제로 쓴 글이다.

나의 방공호 6호

장현수
환경조경디자인학과 24학번

잦은 이사로 동네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던 어렸을 적, 나는 무료함을 달래고자 방공호를 짓기 시작했다. 그것이 골프 우산 2개, 장우산 3개, 그리고 보자기 몇 장으로 이루어진 연약한 더미였을 뿐일지라도 말이다. 단순히 레고를 쌓아 만든 1호부터, 거실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컸던 7호까지.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11살에 지은 방공호 6호이다. 당시 나는 인형들을 '먹이고 씻기는 놀이'에 심취해 있었다. 같은 방공호 6호 아래 인형 하나하나를 식구이자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놀이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 어느 여름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온갖 선반과 냉장고를 뒤져 방공호 6호 인형들에게 줄 음식을 찾았다. 강아지 인형에게는 코코볼 시리얼을, 토끼 인형에게는 당근을. 그러다 커다란 난제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몬스터 인형의 먹이를 찾는 일이었다. 몬스터는 대체 무엇을 먹을까.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아 공허하게 냉장고 불빛만 쳐다보는데, 래핑카우 벨큐브 치즈 세트가 눈에 띄었다. 이 치즈들을 몽땅 섞으면 몬스터에게 어울릴 법한 독특한 음식이 될 거라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치즈 덩어리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토사물 같은 끔찍한 비주얼에다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까지. 당황한 나는 치즈 덩어리들을 재빨리 인형들의 입에 묻혀 없애버렸다.

퐁당퐁당, 인형 씻기기 대작전!

치즈 덩어리의 일은 잊어버리고 인형들을 '씻기는 놀이'에 열중하기로 했다. 특별히 아끼는 몇몇 인형만 골라냈다. 치즈를 묻힌 인형들은 '치즈를 소화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했다. 거북이와 수달 인형은 물을 받은 바가지에 담가 두었고, 북극곰과 펭귄 인형은 물에 적신 후 선풍기 바람을 쐬게 했다. 헤엄을 못 치는 육지 동물들은 나와 함께 씻었다. 문제는 씻긴 뒤였다. 나는 세탁기 돌리는 방법을 몰랐고, 축축하게 젖은 솜인형들을 탈수하지 않았다. 그저 수건만 둘둘 감아 방공호 6호에 들여놓았다. 이 모든 일의 여파가 다음 날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전혀 모른 채 나는 평온히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여름의 무더위는 방공호 6호를 천연 인큐베이터로 바꿔 놓았다. 인형에 묻힌 치즈는 진득한 냄새를 풍기며 발효되었고, 축축하게 젖은 인형에는 쿰쿰한 곰팡이가 피어났다.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코를 찌르는 꼬랑내와 곰팡내가 뒤엉킨 냄새는 문수사의 반달가슴곰 우리에서 풍기던 악취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빨래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퇴근을 기다려야만 했다. 예상대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지금도 몇몇 인형의 입에는 주황색의 치즈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이제 더 냄새나지는 않지만, 그 자국을 볼 때면 당시의 소동이 떠올라 낄낄댄다. 그때는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난다는 사실 자체가 서러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일을 벌인 내가 너무 순수하고 기가 막혀서 웃는다. 우스꽝스러운 사건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의 소란은 나에게 필요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무리 지어 노는 동네 친구들을 부럽게 쳐다보기만 했던 11살의 내가, 그날을 기점으로 방공호 6호에서 펼쳐질 매일의 이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살인 지금도 외로울 때면 방공호 6호의 기묘한 악취를 떠올린다. 그것을 생각하면 혼자 있어도 즐겁고 괜찮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결국 방공호 6호는 그 연약한 구조와는 상관없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의 가장 튼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노동이 아닌, 상호작용으로서의 돌봄

이주은
한의예과 24학번

바로 어제,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 '내니'에 관한 글을 읽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맡아 돌보는 돌봄 노동자다. 흥미로웠던 지점은 필리핀 내니 '아이린'이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들은 자유로운가? '돌봄'과 '노동'의 경계 어딘가에 서 있는 이들에 대해 고민해보며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바쁜 친부모를 대신해 아이의 보모 노릇을 하고 있는 아이린을 둘러싼 환경은 '따뜻하다.' 아이들은 그녀를 이모로, 아이들의 친엄마는 그녀를 언니로 부르며 친근하게 대한다. 이들은 자주 행복한 식사자리를 가지며, 흔한 임금체불이나 폭력과 같은 일은 찾아볼 수 없다. 필리핀에 있는 아이린의 친자식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모나 할머니 등 여성 친족의 돌봄을 받아 성장한다. 언뜻 본다면 그녀는 외국에 자유로이 진출하여 직업을 얻고, 친절한 대접을 받으며 일하는 '자유로운 여성'이다. 종종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만, 이는 필리핀 사회의 '돌봄 순환'으로 인해 해소되는 듯 보인다.

모두가 돌봄의 주체이자 객체

그러나 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그녀가 부여받는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양육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역할 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필리핀 사회에서 여성 친척들이 '돌봄'을 대행하게 되는 것 역시 고정관념의 재생산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견고한 문화적 틀로 인해 비록 그녀에게 가시적인 폭력과 억압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그녀는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우리는 이주 돌봄 노동자에게 더욱 심각한 자유의 억압, 즉 물리적 폭력이 행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임금체불 및 불공정 계약은 흔한 일이며, 이주 돌봄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나 성적 학대, 숙소 통금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아이린의 경우 이처럼 명확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니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됐든 수많은 이주 돌봄 노동자가 그들을 옭아매는 억압과 제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돌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를 유발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내린 결론은 '돌봄'은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요, 일종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돌봄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돈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이는 상호 간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누구나 돌봄을 행하는, 혹은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상호 성장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돌봄을 생활물자를 얻기 위해 몸으로 일한다는 뜻의 '노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돌봄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남을 위해 애를 써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따라서 돈을 주고 '돌봄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돌봄 노동자들을 금전적 보상에 대한 대가를 수행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돌봄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며, 모두가 돌봄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객체가 되는 순환 작용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돌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변하게 될 것이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봄을 일방적인 서비스로 여기며, 누군가에게는 돌봄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봄에 대한 모두의 논의와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꿈 같은 건 꿈같은 소리

김푸름
한국어학과 21학번

나는 밤새 뒤척였다. 옛 생각이 자꾸 나서 잠에 들 수 없었다. 고시원 주인장 아주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스물여섯의 기억으로 가득 차는 것이었다. 누워있는 커다란 안방도 마치 기지개를 켜면 손발이 벽에 닿는 좁은 방 한 칸의 고시원처럼 느껴졌다. 고시원 주인장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올렸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건 저녁에 다녀온 장례식장에서 알게 되었다. 내가 고시원으로 들어간 스물여섯 겨울부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스물여덟까지 꼬박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올렸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머니의 웃는 모습에 슬픔이 서려 있었던 것도 같다. 아주머니는 내 옆방 203호 청년을 무척이나 예뻐했다.

그런 203호 청년은 목숨 내어 성공한다고 했지만, 엄동설한 12월의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의자 위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은 아주머니였다. 나는 소란스러운 바깥소리에 잠에서 깨었고, 뒤로 자빠져 넘어져 계신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신도 손을 뗐는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청년은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책상 위에 두었다. '꿈 같은 건 꿈같은 소리'. 마지막 문장을 기억한다. 그날은 책상에 앉아 술만 들이켰다. 그날 이후로 주인장 아주머니는 기도를 더 오래 드렸다.

아들같이 예뻐하던 청년이 썼던 방은 내가 나갈 때까지 오래도록 비어 있었다. 그 사건 이후 고시원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나 그 자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곧장 차지했다. 그렇게 원래 일상대로 돌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잠이 오지 않아 여는 창마다 부정적인 얘기뿐인 핸드폰을 붙들고 밤을 새웠다. 다크서클이 뺨까지 내려올 무렵, 아주머니께서 저녁을 먹으러 가자 하셨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 같은 걱정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우리는 고시원 건너편 백반집으로 갔다. 얼마 만에 다른 사람과 겸상하는 건지, 어색했으나 이내 먹음직스러운 백반이 나와서 잊고 먹기에 바빴다. 밥만 너무 먹었나 하고 아주머니를 보았다. 흡족한 얼굴로 나를 보시던 아주머니는 "매일 저녁 함께 먹지 않으련?" 하고 말을 뗐다. 잠시 망설이던 나에게 "부담스러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밥만 먹자." 하셨다. 고향에 계신 엄마가 생각났다. 그런 마음이려나.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을 같이했다. 간단한 안부만 묻고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나는 새삼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20년 후, 어떤 모습일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저녁을 함께 먹던 날, 아주머니께서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니?" 하고 말을 건네셨다. 전에는 하시지 않던 질문이라 당황했다. "변호사가 되어서 법정에 서고,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대답했다. "어머니는요?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세요?" 이어서 질문했다. "그런 널 봤으면 좋겠네~" 하며 웃으시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는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리며 공부에 매진했고, 스물여덟 겨울에 고시원을 떠나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만큼이나 기뻐하셨다.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맺힌다. 신기하게도 막연하게 대답했던 20년 후의 나의 모습은 현실이 되었다.

옆방 청년에게도 꿈이 아닌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물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으로 향한다. 문을 열자 환한 달빛이 쏟아진다. 두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

‘80일 간의 지역 일주’ 후마 사회혁신학기 본격 출발

교양교육의 새로운 도전이자 사회 공헌 새 모델 제시
특산품, 역사, 문화, 자연 활용한
‘제주 리빙랩 프로젝트’ 경험으로 설계

사회혁신학교는 2020년부터 4년 간 제주에서 진행된 리빙랩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개설됐다. 사진은 제주 대정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

‘지역이 학교다!’ 올봄부터 후마니타스 사회혁신학기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 후마니타스 사회혁신학기는 n개의 지역에서 n명의 학생이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학습하며,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로컬 합숙형 PBL(Project Based Learning)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한 학기, 총 80여 일간 지역 현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교양학점 9학점과 전공학점 6학점, 총 15학점을 이수한다.

후마 사회혁신학기는 '제주 리빙랩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방학 기간 중 총 6회(회당 20여 일, 학생 약 20명)에 걸쳐 26개 전공(조리, 디자인, 건축, 미디어, 조형, 경영, 관광 등) 총 106명의 학생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으로 파견되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지역의 특산품과 역사, 문화, 자연 등을 활용한 메뉴와 상품, 디자인 굿즈, 홍보 영상, 조형물, 로고송 등을 제작해 지역 공동체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4차산업시대, 교육과 학습의 새로운 도전

제주 리빙랩 프로젝트는 대학 교육 혁신(<조선일보>, 「시대 전환기, 대학혁신으로 대학의 변화 선도한다」, 2022.01.26.)과 지방소멸 대응(<제주환경일보>, 「지방소멸대응, 도시재생 통한 지역-대학 협력으로」, 2024.01.22.)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제주 리빙랩 프로젝트는 아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 혁신과 대학의 사회적 역할의 관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제주 리빙랩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지만 그 본격적인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주와의 인연이 계속되리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확인한 또 다른 의미와 성과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번 활동이 대학과 사회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대학이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프로젝트가 교육 혁신의 내용과 방향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실험이었다는 점입니다. 강의실 안 사유와 지식, 기술은 강의실 밖과 만나 더 유용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더 큰 열정과 사회적 동기를 가지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대학(大學)을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 모슬포 리빙랩 프로젝트 자료집 -지도교수 소감 중에서)**

2025년 봄, 후마 사회혁신학기는 4년간의 제주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노하우와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정규 교과 프로그램으로 확장됐다. 올해 초 서류 전형과 비대면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15명의 다양한 전공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제주도 남원읍과 대정읍,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순차적으로 머물며 주민, 상인, 농어민과 협력해 지역 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후마니타스 로컬 캠프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 4년의 제주 리빙랩 프로젝트가 그랬듯 후마니타스 사회혁신학기는 지방소멸의 시대에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대학과 지역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이며, 4차 산업시대 창의 혁신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방학 기간을 보다 알차게! ‘집중이수제’로 한 주제 심층 탐구

사회 공동체·평화, 상징·문화·소통 영역에서 강좌 개설
8일간 하루 6시간, 현장 탐방형 및 집중 탐구형으로 구분해 진행

‘K-POP으로 사운드 맵 그리기’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명동, 홍대앞 등 대중음악의 배경이 된 장소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지도에 담았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의 지평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혁신학기가 강의실을 지역으로 확대한다면, 지난 겨울방학 때 진행된 ‘집중이수제’는 계절학기의 타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집중이수제는 방학 기간에 8일 동안 하루 6시간 총 48시간(3학점)에 걸쳐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강좌다.

지난 1월 6일(월)부터 1월 15일(수)까지 진행된 집중이수 강좌는 배분이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현장 탐방과 집중 탐구 두 유형에서 총 4개 강좌가 개설됐다. 현장탐방형 첫 번째 강좌는 ‘지역 현장 실천 프로젝트’(강내영 교수 담당). 글로컬리제이션 시대에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고 창의적 실천가로 성장하는 것이 교과 개설 목표다.

K-pop 사운드 맵에서 도넛경제학까지

현장탐방형 두 번째 강좌는 상징·문화·소통 영역으로 ‘K-POP으로 사운드 맵 그리기’(김성일 교수 담당)였다. 대중음악에도 다양한 배경이 있다. 특정 거리, 광장, 공연장, 마을 등 창작의 모티프 역할을 한 역사적 공간을 답사하며 이를 시각화하는 사운드 맵(sound map)을 작성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K-POP에 녹아들어 있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심층 탐색하는 것이다. 대중음악은 여타 대중문화가 그렇듯이 언제나 시대와 호흡하기 때문이다.

강의실에서 한 주제를 집중 탐구하는 강좌도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집중 탐구 유형 첫 번째 강좌는 ‘도넛경제학: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병주 교수 담당). 기후 재앙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받는 기존 경제학, 즉 지구 자원을 남획하고 인간성을 훼손하는 주류 경제학을 넘어 인간, 지역, 자연이 순환하고 재생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집중 탐구형 두 번째 강좌는 ‘들뢰즈의 <시네마> 읽기’(오현숙 교수 담당). 영화를 통해 철학을 살아가는 법, 혹은 철학으로 영화를 살아가는 방법을 주제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이미지와 기호,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정, 정감, 행동 등을 새롭게 이해하는 지적 경험을 함께한다.

집중이수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K-POP으로 사운드 맵 그리기’ 강좌를 이수한 학생들(기악과 김지윤, 국제학과 고지윤 외 3명)은 명동, 을지로, 종로, 이태원, 합정동, 홍대앞, 강남, 성수 등 한국 대중음악의 배경이 된 장소를 탐방하면서 각 지역의 근대사와 공연장, 극장, 유명 카페, 전문상가 등 현재 상황을 곰꼼히 살펴본 다음 이를 사운드 맵에 담았다. 예컨대 강남 지역의 사운드 맵을 그리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산업화 시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개괄하고 압구정 카페거리, KstarRoad, 코엑스몰, 연예기획사 등을 직접 탐방한 것이다.

‘K-POP으로 사운드 맵 그리기’ 수업에 참여한 국제학과 고지윤 학생은 “생각했던 것보다 지리(지역)를 배경으로 한 음악이 많았다”라며 “이 수업이 아니었다면 가보지 못했을 장소를 찾은 것과 노래를 통해 역사를 알게 됐다는 것”이 큰 수확이라고 수강 소감을 밝혔다. 신소재공학과 이연주 학생은 한국 대중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 K-POP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알게 되었고 특히 “배경지식을 알게 되어 대중가수들의 무대가 달리 보였다”라고 밝혔다.

후마 교양교육의 새로운 교육 및 학습 실험인 집중이수제는 앞으로 유형과 영역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강의실 안의 예술교육
강의실 밖 축제로!

예술교과 학생과 지도 교수 공동 기획·연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개최, 공감 능력·관계성 재발견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는 매년 특별한 '송년 파티'가 열린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교과 수강생들이 준비한 '후마니타스 예술축전'이 그것이다. 예술축전은 음악, 미술, 무용 등 강의실 안의 예술교육을 밖으로 확장해 학습과 축제를 연결한다. 예술 관련 강좌 수강생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전공의 경계를 넘어 공동체의 예술적 협업을 독려하고, 감수성을 다독이는 유의미한 장이 펼쳐진다.

공동체의 예술적 경험으로 공감 능력 재발견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개최되지 못했던 후마 예술축전이 2024년, 5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10월 8일(화)부터 11월 29일(목)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예술축전은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 크라운관 공연, 시음악 공연, 미디어 아트, 네오관 댄스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예술교과 영역 강의의 학생과 교수가 주축이 돼 공연과 작품을 전시했다. 예체능 계열 전공자가 아닌 학생에게도 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네오르네상스관 앞마당에서 열린 <청춘의 하모니: 선율은 바람을 타고>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MDOP와 음대 학생회가 협업한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등이 울려 퍼졌다. MDOP의 작곡과 학생이 직접 편곡한 '지브리 메들리 OST'도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시음악 '황무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청운관에서 열린 공연은 T.S.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The Wasted Land)'를 바탕으로 공연을 구성했다. 김준영(서울대학교 음악박사) 교수와 허창열(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교수, 외부 연주자가 출연했다. 이번 공연은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하고자 기존 '황무지' 곡목을 약간 변경하고 내레이션에도 변화를 줬다. 현대 젊은이의 모습, 쿠팡 화재사건 등 현대 사건·사고를 연상할 수 있게 했다.

청운관 외벽에는 <미디어아트: 예술이 흐르는 저녁> 전시가, 청운관 로비에는 <청운관, 소통과 공감의 미술로 거듭나다> 행사가 열렸다. 후마 대학생위원회 사진 소모임 TCO(The Click Off)는 "젊은 날의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전시했다. '현대회화실기' 수강생은 "미아(迷我)에서 미아(美我)까지"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였다. '수묵드로잉실기' 수강생의 수묵화 작품도 큰 호응을 얻었다. 본관과 분수대, 중앙도서관, 캠퍼스 내 자연물 등을 수묵화 시선으로 묘사해 익숙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감상을 표현한 작품은 학교 전경을 마치 파노라마로 보는 듯한 느낌을 전달했다. 예술축전을 관람한 강하영(국어국문학과 21학번) 학생은 "캠퍼스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특별하게 다가왔다"라며 "예술 전공이 아닌 학생들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선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렸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조은아 교수는 "예술교과는 감성의 성장, 감성의 발견을 중시한다. 후마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축전의 핵심은 전공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의 예술적 경험"이라며 "함께 소리 내어 음을 맞추고, 몸을 움직여 합을 이룰 때 예술활동을 통한 감수성을 찾을 수 있다"고 후마 예술교과와 예술축전의 특성에 대해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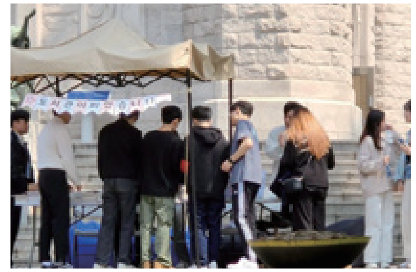
인문·실용을 기반으로 품격 있는 예술교육 구현

예술축전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인문과 실용을 기반으로 품격 있는 예술교육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둘째, 교수와 학생 간 교감·소통의 장으로서 교육 효과 및 교수법을 새로운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밀하고 깊이 있는 사제간의 정도 느낄 수 있다. 셋째, 교수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어 공연을 기획·연출하고, 지역주민을 초대해 모두가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새롭게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한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전시와 공연은 기획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인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공감과 협동을 이뤄내야만 가능하다. 학생들은 작품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타인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과 관계성을 재발견하게 된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예술 및 체육교과에 남다른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과 학생 잇는 소통 창구
후마 교육 방향 함께 모색

수업 환경부터 강의 방식까지 미비점 개선
후마 교육과정 개편 참여, 교양교육 미래 구상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방향을 모색한다. 그 중심에 대학생위원회가 있다. 대학생위원회는 학점 평가, 교재 내용, 기자재 등 수업 환경부터 강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에 직접 건의하거나 교수들과 협의해 미비점을 개선해나간다. 교양수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의 이상에 따라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을 시도한다.

경희대학교는 2010년, 대학생위원회를 발족해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재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직접 선출하며 학생자치기구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주도형 배분·자유이수 창작 공모전 개최

대학생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배움학점제' 활성화다. 배움학점제는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학생들로부터 원하는 교양강좌를 신청받아 강사를 섭외하고 대학에 요청, 요건이 충족되면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국제캠퍼스 대학생위원회 '하이쿠Hi-KHU'는 '2024 배분이수 공모전'을 개최했다. 교과과정 구성에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학문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공모전 참가자는 강의 개설의 필요성, 수업 개요,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교양교육의 가치 실현 및 학문적 성취 실현, 교과목 운영 실현 가능성, 교과목의 체계성과 창의 융합성 등 세 가지였다. 교수진 심사와 학생 투표를 거쳐 '관계의 기술', '디지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AI 시대의 정보흐름과 활용전략', '사랑의 빅데이터'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5년 만에 열린 '후마 예술축전' 구성원의 사랑 받아

2024년 서울캠퍼스 제16대 대학생위원회 '채움'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축전'을 부활시켰다. 2024년 10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서울캠퍼스 곳곳에서 열린 예술축전은 예술관련 강좌 수강생들이 클래식, 연극, 국악, 탈춤 등을 선보이며 경희 구성원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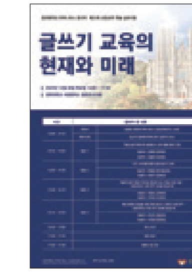
이밖에도 '느린우체통', '봄맞이 후마채우기 벚꽃제', 한강플로깅 봉사, '가을제, 낙엽과 함께 넘기는 페이지', 교양교육 안내 콘텐츠 '1분내교양' 등을 통해 교양교육 내에서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여름방학 때는 회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연꽃제'를 진행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25년에는 서울캠퍼스 제17대 대학생위원회 'KHLICK(클릭)'과 국제캠퍼스 '하이쿠'가 후마스러운 교육문화를 이끌어나간다. 대학생위원회는 항상 열려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대의원 신청을 통해 대학생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SNS(인스타그램 서울캠퍼스 @khu_hucalwe, 국제캠퍼스 @hi__khu)에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대학생위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 '봄맞이 후마채우기 벚꽃제'를 즐기고 있다.

'후마'의 추진 동력, 교양교육연구소·후마전환센터
지구적 문제에 직면하는 세계시민교육에 주력

학술지 발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교수자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위한 연구 및 담론 생산, 실천의 토대 구축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을 쇄신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한다. 그 추진 동력 중 하나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연구소(이하 후마 연구소)다. 후마 연구소는 교양교육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 여러 고등교육 기관들과 공유한다. 학술지 발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교수자 워크숍, 사회적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전범을 수립하고 있다.

후마 연구소는 학술지 『후마니타스 포럼』을 연2회 발간한다. 후마 교양교육의 철학, 교육 내용, 교육 방법론 등 새로운 이론과 실제 적용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다. 『후마니타스 포럼』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비롯한 최근 국내외 교양교육의 연구 성과를 심화, 발전시킬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외 교양교육 연구 성과 심화, 발전

후마 연구소는 매년 두 차례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외 지성들이 모여 대학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육현장에서 나온 지혜를 나눈다.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 연구논문은 『후마니타스 포럼』에 싣는다. 2024년에는 '엔데믹 이후 유학생 유치의 추이와 급별 유학생 교육의 개선 방향 모색', '다시, 교양에 대해 묻는다. 자유전공시대에 교양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밖에도 후마 자체적으로 교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 교재 내용과 편제를 개정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등 교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공고하는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후마니타스 전환센터 등과 함께 후마 교양교육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후마 연구소는 인재들이 폭넓은 식견과 열린 정신으로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탁월한 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신적 독립과 지적, 정서적 성숙을 돕는다.

후마니타스 전환센터,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후마니타스 전환센터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배움과 실천을 함께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2008년부터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실천인문학센터가 전신으로, 2018년도에는 목련상(실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목련상은 경희 최고 영예의 상으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학술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지구공동사회 건설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수여된다.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면서 2025년에 재출범하는 후마니타스 전환센터는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위한 연구 및 담론 생산과 실천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실천교육팀, 사회혁신팀, 글로벌협력팀을 운영한다. 우리 사회의 위험지도와 전환지도를 그리면서 전환 담론을 생산하는 전환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프로그램과 시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전환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환센터는 앞으로도 교양교육의 재도약을 추진해나가며 국내를 넘어 지구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세계시민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세계시민 의식 일깨우는 축제
인류사회 위기 넘어서는 평화의 마음

전쟁 관련 영화 상영회 및 토크 콘서트 개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염원 담아 '미원평화상' 제정

'세계평화의 날' 발상지 경희학원은 평화의 새 물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성찰적 전환 의식과 실천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24년 경희학원은 제43회 유엔 제정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9월 20일(금)부터 26일(목)까지를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했다.

2024년 경희학원이 제정한 미원평화상(Miwon Peace Prize)의 첫 수상자(기관)도 탄생했다. 경희학원은 "지구사회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문화세계의 창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미원평화상을 제정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디 엘더스(The Elders)'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양한 문화 및 학술 행사가 캠퍼스 곳곳에서 열렸다. 후마니타스칼리지도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여러 행사를 개최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의 필요성과 인류 문명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관심을 호소했다.

"인류의 미래, 지구 행성의 미래,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

9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로, 경희대학교가 제안해 1981년 제정됐다. 광릉캠퍼스 평화의 탑에는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경희의 평화사상을 함축하는 이 말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개선)보다 평화가 더 소중한 가치임을 뜻한다. 이 같은 평화사상을 근간으로 동서 냉전이 극에 달한 1981년, 경희대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는 UN 세계평화의 날과 해의 제정을 적극 주도했다.

경희대학교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매년 학문과 평화의 지구촌 축제 'Peace BAR Festival(PBF)'를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인류의 미래, 지구 행성의 미래,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The Future of Humanity, The Future of Planet Earth: In Search of Our Common Hope)"를 주제로 지구적 난제와 과학에 관한 성찰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의식과 사유의 지평을 논의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5년부터 PBF의 일환으로 세계평화 주간을 선포하고 있다.

전쟁 돌아보며 한반도 평화 고민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9월 23일(월)부터 26(금)까지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Peace BAR 시네마&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기억 없는 우리의 전쟁"을 주제로 <반신반의>(감독 박찬욱·박찬경), <산산조각 난 해>(오민욱), <그라이아이>·<빈 복도>(감독 정여름), <군대>(감독 박경근) 등 전쟁을 다룬 다양한 영화를 상영했다. 지구 문명의 전환에 대한 고민과 지구 생태계를 포괄하는 지구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중동과 동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문제인 한반도의 평화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Peace BAR 시네마&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배정현(PostModern음악학과 19학번) 학생은 "평소 전쟁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전쟁이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심각성을 깨달았다"라며 "나아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9월 24일(화), 25(수)에는 청운관 및 네오르네상스 앞마당에 "지구시민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지구시민부스'를 설치했다. 세계평화를 소망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세계시민 활동 체험, 전파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것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을 열었다.

지속가능한 문명 창출하는
젊음의 상상력 발전소

취·창업, 문화예술, 새로운 삶의 방식 등 입체적 지원
교양교육에 미래디자인 역량 결합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는 경희를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다. 미래혁신원은 경희의 교육철학을 미래지향적, 전 지구적 맥락에서 재정의하고, 학생 개인의 성취는 물론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지구적 실천인'을 길러내기 위해 설립됐다.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는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찾고, 능력을 발전시켜 지구사회를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 취업을 포함한 사회진출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취·창업스쿨과 같은 비교과 강의부터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여러 프로그램 중 1대1 진로·취업 상담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때 실질적 도움을 준다.

자기성찰과 미래예측 역량을 기반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기획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인권, 빈곤, 에너지, 기후변화 등 지구적 이슈에 대한 대안적 접근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 중이다.

1:1 멘토링, 학생들에게 큰 인기

취업, 창업, 학계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진출, NGO/NPO, 새로운 삶의 방식 등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최대한 확대하고, 해당 영역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미래인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미래인재센터 SNS(인스타그램 @khu_job(서울캠), @khu_careerseditor(국제캠))에서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

미래혁신원은 직무 탐색 프로그램, 동문 취업 상담 및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상담 등을 포함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설계, 취업교육컨설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오픈랩에서 진행되는 워크숍 및 코딩 교육, 진로탐색캠프, 공모전도 인기가 높다.

서울캠퍼스 미래인재센터의 'Job Festival'은 동문 현직자의 재직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및 직무별 핵심적인 취업 준비법을 1:1 멘토링으로 알아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분간 산업군, 기업체, 직무 관련한 이해를 높이고 트렌드를 공유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현직자와 함께하는 HR-인사 업무 이야기 △해외영업 어렵지 않아요 △화장품 업계 영업/마케팅 직무 분석 △외국계 기업의 A to Z 등 다양한 주제로 동문 특강도 진행됐다.

국제캠, 제1회 모의면접 경진대회 개최

국제캠퍼스 미래인재센터는 2024년 제1회 모의면접 경진대회를 열었다. 취업 및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참여해 직무 지원동기, 자기소개서, 강점 등을 선보이며 면접관으로부터 조언을 얻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과 총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됐다.

이외에도 체계적으로 취·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오픈랩을 운영한다. 서울과 국제캠퍼스에 개설된 오픈랩은 스튜디오, 정보 지원,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사회 진출 캠프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미래혁신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에 미래디자인 역량을 결합해 미래학, 문명론, 인지과학, 생태학, 도시학, 전환설계 등 보다 큰 시야로 세계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공교육을 사회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경희’에서 지구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이어간다

멘토링 등 지역사회와 연대, 교육공동체 구축
지구 환경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활동

경희의 글로벌봉사팀은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을 전개하는 범대학 차원의 공적 실천기구다. 자발성 및 지속성, 상호성, 지구시민성, 연구·교육·실천의 창조적 결합, 전공 연계 및 학제 간 융·복합이라는 원칙 아래 대학다운 사회공헌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글로벌봉사팀은 나눔과 기여, 헌신을 통해 글로벌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는 새로운 경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구성원과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시민사회와 함께 확대시켜나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구성원의 꿈과 열정이 성숙하는 창조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또한 지자체, 기업 봉사단, 언론, 정부기관과의 사회공헌 네트워크와 국제 NGO, 해외 대학과의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구적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후마니타스들은 글로벌봉사팀에 참여해 지구적 차원에서 인간과 생명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글로벌봉사팀은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하고, 교육봉사 및 지역사회봉사, 해외봉사를 진행한다. 교내행사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GVT 학생기획단 ‘쿠러비’,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글로벌봉사팀은 GVT(Global Volunteer Team) 학생기획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직접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활동하며 사회공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며 지구공동체를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발견한다.

GVT 학생기획단 11기 ‘쿠러비’는 환경 생태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학교 근처 환경 생태계를 보전하며 그 가치를 주변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미래에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다.

도심 하천은 시민의 쉴 곳이자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하지만 각종 생활 쓰레기와 배출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비점오염원(오염토, 농지의 잔류농약 등 주로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오염원)의 유입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면서 본래의 색을 잃어가고 있다. 쿠러비는 이와 같은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경희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EM흙공 만들기를 통해 하천 오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문제 해결을 넘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힘을 쏟았다.

EM흙공의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이란 뜻이다.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이 들어 있어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특히 하수 유입으로 오염된 도심하천의 악취 제거에 효과적이다. 쿠러비는 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미생물의 성질을 이용한 EM흙공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 봉사자에게 미생물 종류·성질에 대해 설명하고 그중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과 그 성질을 이용한 EM흙공에 대해 설명했다. 쿠러비 3명, 학생 봉사자 3명이 팀을 나누어 각 1kg의 흙공을 제작, 총 40개의 흙공을 완성했다. 흙공 한개당 3.3㎡의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 이후 중랑천으로 이동해 흙공 던지기 활동 진행했다. 흙공을 던지며 하천 정화를 돕는 데 집중했다. 흙공을 던질 때마다 물 위로 퍼지는 둥글고 잔잔한 물결이 인상적이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천 정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했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중랑구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EM 미생물의 역할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제작한 환경자료집을 나눠주며 EM 미생물이 하천 정화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설명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인 방법도 공유했다. 더불어 제로웨이스트 생분해 수세미와 샤워볼을 나눠주며 친환경 제품 사용의 중요성도 알렸다.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많은 주민이 관심을 보이며 활동에 공감해주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 진행

2024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에도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세계시민 부스를 열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난민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세계시민, 지구시민으로서의 다짐을 적어보며 세계시민의 의미를 깨닫고, 공존을 위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다. 부스에 방문한 이들은 아동 노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공평,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싶다는 의견과, 지구촌 빈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빈곤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남겼다.

또한 ‘전쟁에서 살아남기’ 게임을 통해 난민이 겪는 현실을 체험하며 인식을 개선하기도 했다. 게임 초반에는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난민이 직면한 전쟁, 기후변화,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했다. 게임 진행 중 선택에 따라 난민의 삶이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해 공감대를 높였다. 게임 종료 후에는 해피콩 기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품 제공과 기부 안내를 통해 참여율을 극대화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고, 전쟁의 위험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생존키트를 증정하기도 했다. 생존키트를 설명하며 전쟁 공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특히 전쟁, 기아, 환경오염과 같은 국제적 문제를 인식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했다.

국내에서도 교육 봉사와 지역사회 봉사에 집중했다. 글로벌봉사팀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의 역량을 사회공헌과 연결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멘토링은 멘티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고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멘토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가 된다.

멘토링 활동 참여, 나눔의 가치 실현

2024년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를 개최했다.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위해 교육 소외계층에게 무료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9기는 18명, 30기는 17명의 학생이 멘토로 활약하며 약 100명의 청소년을 만났다. 멘토로 참여한 학생들은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또한 나눔을 통해 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멘토들은 멘티들이 글로벌 이슈를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환경보호, IT정보기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멘티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인 멘티들이 스스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21세기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설계했다. 공통된 수업 목표를 설정해 멘토와 멘티 간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멘토의 만족도는 100%. 멘티의 만족도는 95% 이상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거두었다.

대학의 책무 중 하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민과 공감, 평화와 공영의 마음을 기르고 나눔과 헌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글로벌봉사팀은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을 지향하며 고등교육기관의 공적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04

후마니타스가 말하는

학생들은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사회에 나가 뒤돌아본 교양교육은
자신에게 무엇이었는가?
출범 14년,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본격적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 탐색', '빅뱅에서 문명으로',
세계시민교육, 글쓰기, 독립연구, 그리고
다양한 배분 및 자유이수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고 있다.

후마니타스

인공지능 시대, 글쓰기가 왜 필요한가?

예철해
글쓰기교과

2024년 12월에 중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DeepSeek가 공개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의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새로 나타난 DeepSeek가 기존의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에 ChatGPT가 처음 출시된 이후 약 3년 동안 인공지능의 추론 능력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ChatGPT나 DeepSeek 이외에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글을 생성하는 시대에 우리가 글쓰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글쓰기를 통해서 인간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공 지능의 추론 능력은 인간의 추론 능력을 모델로 삼아서 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추론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직관적 판단이나 윤리적 결정은 여전히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먼저, 인간의 직관적 판단은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직관하는 능력은 인간의 경험과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필요한 윤리적인 판단 능력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든 인간의 고유한 추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과 윤리적 판단 능력은 앞으로 인간이 직접 쓴 글과 인공 지능이 쓴 글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글쓰기를 통해서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문해력이란 단순하게 글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해서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해력을 기르려면 우선 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을 잘 요약해야 합니다. 요약은 중요한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찾아내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해력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문해력이 없으면 대학의 수업을 제대로 좇아갈 수가 없어서 학습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 글쓰기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교하고 판단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글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은 할 수 있지만, 생각 없이 글을 쓸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행위인 것입니다. 즉 글쓰기는 알고 있는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한 결과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1학년 필수 글쓰기 교과목명이 <성찰과 표현>인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도구입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구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글쓰기는 여러분의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글쓰기 능력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후마니타스 글쓰기 <성찰과 표현> 수업을 통해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며, 두려움 없이 도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성찰"한 후에 글로 "표현"하십시오.

신입생 여러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글쓰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도구입니다.

드넓은 세상에서 꿈을 만들자

윤종희
시민교과

"너는 꿈이 뭐니?", "장래 희망과 진로는 정했어?", "목표를 정하고 쭉 달려가는 거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꿈을 생각하면, 꿈을 이루었다 상상하면, 절로 얼굴에 웃음이 퍼지며 기분이 들뜨기 마련이다. '저 대학에 입학한다면', '짝사랑하던 그/녀와 연인이 된다면'... 꿈과 희망은 삶의 에너지다. 그것이 실현되면 생길 것 같은 가상의 감정은 우리를 힘차게 살아가게 만든다. 그런데... 불쑥 던져진 저 물음들 앞에서는 표정이 굳어진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지? 어느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는, 오직 나만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답답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어릴 적에는 꿈이 불현듯 다가왔다. 이성에 애정을 느끼고, 무언가를 갖고 싶고... 이런 꿈은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별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났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 삶의 목표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애써 만들어야 한다. 방향만 정해도 안 된다.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갈고 닦아야 한다. 그것도 삶의 매순간마다. 능력이 없는 목표는 참으로 공허하다. 그렇다면 삶의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나갈까? 자신의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는 쉽지 않다. 그로부터 벗어나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자. <세계와 시민>과 함께.

우리는 싫든 좋든, 타인과 함께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는 모든 일은 타인을 지향한다. 그것은 생명체로서 인간의 숙명이다.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우리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삶의 의미니 가치니,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좋겠어.' 그래. 그것도 좋다. 그런데 돈도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해야 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러나 남들이 원치 않는 음식을, 노래를, 게임을 만들었는데, 돈을 벌 수 있을까? 사적 공간에서 느끼는 만족을 공적 영역에서 찾으면 안 된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창의적인 능력을 절실히 원한다. 오늘의 현실을 알아가면서 세계가 요구하는 일을 찾고, 그 속에서 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하는 타인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멀리 해외에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반 고흐의 그림에 감동하는 우리처럼, 먼 훗날 태어날 후손일지도 모른다.

사회가 무엇을 요구할까? 부모님과 기성세대는 알고 있을까? 아쉽게도 21세기의 세계는 방향을 잃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새로운 길은 보이지 않는다. 생존의 한계에 놓인 수억 명의 사람들, 극단적인 불평등, 끝없는 전쟁의 공포, 문명의 토대를 위협하는 생태·환경적 위험, 그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민주주의... 이성은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고, 기술은 신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인류는 여전히 낡은, 그렇지만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다. 우주의 이치를 알려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탈레스처럼, 우리도 후세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위험하지만 기회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창의적인 능력을 절실히 원한다. 오늘의 현실을 알아가면서 세계가 요구하는 일을 찾고, 그 속에서 꿈을 만들어야 한다.

흔히들 말한다. 대학은 비판적 지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백번이고 지당한 말씀.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좁게는 우리 사회가, 넓게는 인류가 지금 마주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전공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것, 더없이 중요하지. 그러나 목표를 상실한 능력은 맹인의 검술과 다를 바 없다. 그 능력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세계와 시민>을 비롯한 교양의 영역이다. 삶의 목표가 있을 때, 나를 발전시키고 능력을 키워가는 그 길은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즐겁다. <세계와 시민>과 함께, 우리의 역량을 펼쳐나갈 세계를 탐구하자.

탁월성이란 무엇인가

서동은
인문교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사회를 구성하며 일평생에 걸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연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지혜(sofia)도 중요하고, 기술과 예술(techne)에 탁월한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타인들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또 다른 지혜(phronesis)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 전통에 따라 인간을 이해한 로마의 키케로는 라틴어로 인간다움을 Humanitas로 표현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간다움의 미덕(美德)은 그리스어로 Arete이다. 이 말은 한국어로 '탁월성' 혹은 '훌륭함'을 뜻한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에게 탁월하다거나 훌륭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탁월성을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그것은 바로 1) 실천적 탁월성, 2) 지적 탁월성, 3) 도덕적 탁월성이다. 요리사,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가 가진 탁월성은 실천적 탁월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탁월성은 어떤 것을 잘 만들고 성취하는 탁월성이다. 기술과 예술도 이러한 탁월성의 영역에 해당한다. 지적 탁월성은 생각을 잘 하는 탁월성이다. 이것은 정치를 수행하거나 연구나 실험을 할 때 적절하게 잘 배열하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탁월성이다.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탁월성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보여준 사례를 들자면, 정의, 용기, 절제, 우정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탁월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다양한 도덕적 탁월성의 목록을 제시했는데, 『인간의 가치탐색』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도덕적 탁월성과 같은 내용이다. 『인간의 가치 탐색』에서 다루는 주제는 정의, 사랑(우정), 절제(소유와 행복의 역설), 용기(자유), 이웃과의 관계 등이다.

『인간의 가치 탐색』에서 다루는 주제는 정의, 사랑(우정), 절제(소유와 행복의 역설), 용기(자유), 이웃과의 관계 등이다.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러한 가치를 논의한 것은 아무리 지적 탁월성과 실천적 탁월성이 뛰어난 사람이 많아도, 사람들이 도덕적 탁월성을 겸비하지 않고, 또 시민들 다수가 도덕적 탁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잘 산다(well-being)'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앞의 두 개의 탁월성과 더불어 도덕적 탁월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가치 탐색』은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나 현대에나 실천적 탁월성과 지적 탁월성을 지닌 사람들은 많다. 현재의 우리가 이전보다 더 풍부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위의 두 개의 탁월성과 더불어 도덕적 탁월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가치들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지적 탁월성과 실천적 탁월성이 뛰어난 사람들만 살아가는 사회 곧 '외로운 늑대들' 또는 '영혼이 없는 기계'만 작동하는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과연 어떤 것이 절제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에 '주관적'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이러한 가치를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잘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지 상식(common sense)에 기초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탁월성의 실천이자, 『인간의 가치 탐색』 곧 humanitas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 것으로 이해하는 감성

조은아
예술교과

후마의 예술교과는 음악, 미술, 영화, 사진, 미디어아트, 패션, 디자인, 연극, 예술치료 등- 예술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예술현장에서 경험과 연륜을 두루 갖춘 교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이끌어갑니다. 이론학습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실천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 타인과 끊임없이 나누는 교감과 촉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지요.

최근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불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마저 움츠러들 순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 아프고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기를 기피하면서 즐거운 오락이나 편안한 위로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때론 예술도 이에 적극 동조해왔습니다.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제와 같은 일상을 반복했고, 심각한 위기를 감지하더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술은 미래를 위한 경고이며,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되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의 외침은 위기의 시기에 더 큰 울림으로 공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무한한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라." 어린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이야기입니다. 후마의 예술교육도 이에 공감합니다. 끊임없이 망망대해의 바다를 상상하며, 그리움의 감정을 북돋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려 합니다. 후마의 예술교과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상을 끊임없이 요청할 것입니다.

예술의 뿌리는 자연입니다. 예술가들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간과 자연, 예술과 자연의 공존을 늘 꿈꿔왔습니다. 자연을 닮은 예술은 인간끼리만 더 나은 삶에 매몰되지 않았고, 대신 순환과 순응의 미덕으로 생태계 모두와 관계 맺는 삶을 추구해왔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며 인간과 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적극적 행동을 촉발시켜온 것이지요. 후마의 예술교과는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술을 전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탐색하고, 고정된 틀과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되돌아보려 합니다. 예술을 통해 생태적 사고의 전환을 이끌고 자연을 돌보는 삶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후마 예술교과의 절실한 지향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후마의 예술교육은 상대방의 고통을 내 것으로 이해하는 감성에서 출발합니다. 돌봄의 예술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굳건한 연결을 북돋우며 다양한 생명의 공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비록 예술이 혹은 예술교육이 이 시대의 위기를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해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의미한 실천을 이끌어내리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예술적 영감은 때로 과학자의 분석이나 정치인의 선동, 언론의 보도보다 큰 울림을 일으켜 한 사람의 행동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타인의 고통에 무심치 않으며 무한한 바다에 대한 그리움으로 후마의 예술현장을 함께 일구어갈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마의 예술교육은 상대방의 고통을 내 것으로 이해하는 감성에서 출발합니다. 돌봄의 예술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굳건한 연결을 북돋우며 다양한 생명의 공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독립연구’는 핑계고,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인연을 만난 시간들

조영우
경제학과 16학번
동아일보 편집국 스포츠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벌렁거리는 심장을 움켜잡아 보려고 날숨을 잠시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이름과 제각각인 학번으로 가득 찬 수신자 목록을 한 번 훑은 후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당시 제가 수강 중이던 ‘정치의인문학적탐색’이란 김윤철 교수님의 수업을 함께 듣고 있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메일이었죠. ‘방학 중에 교수님과 함께 정치학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연락을 줬던 전수민, 전여진, 조윤재, 조형욱 이 사람들 모두 제 대학 생활의 가장 큰 자산인 독립연구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됐네요. ‘술 잘 사주시는 멋진’, 그리고 제 인생 유일하게 은사님으로 칭하는(물론 술을 잘 사주셔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김윤철 교수님 역시 그렇고요. 이 독립연구 멤버들과 대학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행운이었고 또 제 자부심의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독립연구 경험을 좀 소개드릴까 해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이상한 놈들”

김윤철 교수님의 ‘정치의인문학적탐색(이하 정인탐)’ 수업을 들은 건 2021년 2학기였어요. 당시 교수님께서 한 신문사의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출연 중이셔서 수강 전부터 교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뵈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교수님 수업을 신청하고 수강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매 수업마다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어가는 수업이어서 만족감이 높았어요. 한 학기 약 6개 정도의 수업 들으면 그중 괜히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수업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잖아요? 21년도 2학기는 정인탐 수업이 제게 그랬어요.

학기가 막바지에 들어서니 아쉬운 마음이 슬쩍 올라오더라고요. ‘더 공부해보고 싶은데?’하는 생각과 동시에 ‘교수님과의 인연을 이어갈 방법은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수님이 수업 중에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싶은 친구는 내게 연락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나가듯이 하셨어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꾸벅 졸고 있다가 그 한마디에 잠이 확 깨더라고요(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듣고 있던 약 70여명의 학우들에게 전체 메일을 돌렸어요. 학기가 끝나고 방학 동안 같이 정치학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제게 답장을 달라는 메일이었죠. 그리고 우리 세미나에 교수님도 섭외해볼 계획이라고 알렸고요. 한 9명 정도 관심을 갖고 연락을 줬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6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흔쾌히 좋다고 해주셨고요.

모임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국 탓에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첫 모임에는 대면 참여가 2명에 그쳤었어요. 첫날 모임이 끝나니까 “어떡하면 좋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도 매주 꿋꿋이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니 한, 둘씩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참여 인원들도 금세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매 회차마다 열띤 토론이 오가는 자리가 계속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이상한 놈들이야”라며 저희를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요.

방학이 끝나가면서 이 세미나도 곧 끝난다는 생각에 다시 아쉬움이 커지더라고요. 그때 교수님이 알려주셨던 게 바로 독립연구였습니다. 자율적으로 연구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지도교수님과 함께한 학기 동안 그 과제를 수행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였죠. 방학 중에 세미나를 했던 멤버 거의 그대로가 이 독립연구 멤버로 참여했어요. 그게 2022년도 1학기였네요. 저희는 한 학기 동안 ‘한국의 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같이 책, 논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각자 연구하고 싶은 세부 주제를 정했고, 각자 작성한 소논문을 취합하여 만든 레포트를 결과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레포트가 그해 독립연구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저희끼리 참 뿌듯했던 기억이 있네요.

독립연구, 한번쯤 꿈꿨던 ‘대학 생활의 낭만’

언젠가 저희 독립연구 사진첩을 들춰보니, 불콰한 낯빛으로 파안일소하고 있는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대개 카메라가 흔들려서 흐릿해진 사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저희 멤버 중 한 명은 “우리 왜 이렇게 술 냄새 나는 사진밖에 없냐”며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말하자면 저희 세미나는 맨정신으로 끝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교수님 연구실이나 세미나실에서의 열띤 토론은 늘 어김없이 뒤풀이 자리로 이어지곤 했죠. 사실 우리의 세미나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능력주의에 잠식된 한국 사회에 대한 한탄에서부터 기행을 일삼던 전 애인의 이야기까지를 종횡무진하다 보면 늘 시간이 부족했죠. 마치 할머니가 손주 줄 밥그릇에 고봉밥을 꾹꾹 눌러 담듯, 다가오는 막차 시간 전까지 각자가 못다한 얘기로 술자리를 그득 채우곤 했어요. 그 덕분에 독립연구는 늘 빈틈없이 즐거운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의제와 고민을 늘어놓으면서 ‘진짜 공부’를 하던 그 ‘술자리 세미나’가 저희 독립연구의 백미였죠.

조영우 동문은 김윤철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와 함께 정치학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세미나 모임을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독립연구는 좋은 인연을 만든 그럴듯한 핑계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색깔과 재능으로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친구들, 언제든지 의지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성향은 또 제각각이라 모이면 서로 왕왕 부대끼면서도,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해요. 최근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들른 면세점 주류 코너에서도 저는 이 모임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언젠가 한번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서로의 탁월함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란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 있었는데, 이제 어렴풋이 알 것만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원고를 쓰기 전에 멤버들에게 물어보니 독립연구가 한번쯤 꿈꿔봤던 ‘대학 생활의 낭만’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그런 낭만을 남겨준 김윤철 교수님, 독립연구 멤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독립연구 사례를 모교 후배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가이드북 편집팀에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만나기에 대학만큼 좋은 공간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보게 될 후배 분들도 경희대학교에서, 그리고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쓰기는 나의 친구

이세령
사회학과20학번
인터넷신문협회 인턴,
사회적 기업 업드림코리아 프리랜서 에디터

이세령 동문은 '기후위기와 직접행동' 강의를 들으며 탄소기본중립법 개정에 관해 연구했고,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지 방향을 정했다.

치유하는 글쓰기

경희대학교는 나를 다양한 길로 안내했다. 특히 후마니타스 필수교양 '성찰과 표현' 강의는 내면의 아픔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교수님께서 '다시 가고 싶은 그곳'을 주제로 한 글을 써오라고 하셨을 때, 평소와 달리 글이 써지지 않았다. 책상 구석에 있는 지구본 모형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가' 고민했다. 그러다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의문에 휩싸였다.

누군가 내게 고향을 물으면 '전라남도 장흥'이라고 답해왔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태어났는데도 말이다. 사실 그곳은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한 아이의 영혼을 치유해준 곳이다. 장흥에 가게 된 이유,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곳을 떠나던 날들을 글에 담았다. 글을 쓰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과거의 나, 다섯 살짜리 아이가 안타깝게 느껴져 글을 쓰며 하릴없이 울었다. 희한하게도 글을 쓰고 나니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한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교수님은 내 과제를 보시곤 "세령 양은 글을 참 잘 쓴다. 앞으로도 글을 꾸준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글쓰기의 치유적 힘을 느낀 순간이었다. '글은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를 치유해주는 구나' 깨달았다. 그리곤 치유의 힘을 가진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인생의 전환점

후마니타스 '시창작수업(이문재 교수)' 강의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자아 성찰 시를 제출하는 것이 기말고사 과제였다. 자아 성찰이라니. 말만 들어도 어려웠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코앞에 둔 시점에 자아 성찰은 나를 더 초라하게 했다. '합격'이라는 글자를 얻기 위해 현장실습, 인턴, 대외활동, 자격증 등등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내 모습이 작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울적한 내 기분을 알아차렸는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위로했다. "나를 비추는 환한 불빛은 왜 이리 나를 지워낼까?" 노래 '반딧불'의 가사였다. 반딧불이는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1년에서 2년이 걸리지만 성충 기간은 15일 남짓이라고 한다. 빛나기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빛을 낼 수 있는 건 고작 2주라는 것이다.

동질감을 느꼈다. 시 <반딧불이>를 써 내려갔다. "해가 저문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언제쯤 빛을 낼 수 있을까 생각에 잠긴다." "지난 시간들을 찬찬히 되돌아보니 빛나기 위해 노력했던 그 과정 속에서 빛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때로는 작고 은은하게 때로는 찬란하게 나만의 빛을 밝히고 있었다." 시를 쓰며 알았다. 빛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것을.

반딧불이는 지상의 별이다. 반딧불이는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에게 반딧불이는 별이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란 이리도 어렵다. 빛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순간들이 더 빛나는 순간임을 그대들이 알기를 바란다.

후마니타스 '기후위기와 직접행동(이강준 교수)' 강의는 내게 취업의 길을 열어준 고마운 강의다. '탄소기본중립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자리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정보공개 기준을 확립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교수님은 내 청원서를 읽으시곤 물으셨다.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세령 동문은 현재 인터넷신문협회 인턴으로 일하며 후마에서의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 글을 쓰는가

"지식과 정보는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는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정보공개 기준 확립을 촉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 순간, 왜 오랜 시간 기자를 꿈꿨는지,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지 분명히 알게 됐다. 이전까지 기자라는 직업을 단순히 사건·사고를 전달하는 역할로만 생각했던 나인데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언론이 지닌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봉사하는 기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인턴기자 자기소개서에 적어서 제출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제가요?" 믿기지 않아서 문자함을 몇 번이고 들어가고 나오길 반복했다. 진짜 합격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생각해보니 취업용 스펙을 위해서 억지로 했던 것들은 단 하나도 없었다. 재밌고 보람찼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했을 뿐이었다.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의무감에 떠밀리지 말고, 즐기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타고 멀리멀리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낯선 바다에서 기꺼이 방황하시길

김선우
산업디자인학과 13학번
McGill Universtiy 경영대 박사과정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즈음, 교양 과목으로 수강했던 스쿠버다이빙 수업이 불현듯 떠오르는 때가 있다. 수영을 못해도 괜찮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강 신청을 했지만, 같이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나 포함 두 명뿐이었다. 체육대학 수업이었던 탓일까? 처음 며칠은 몸풀기로 수영장을 뺑뺑이 해야 했는데, 발이 닿기는커녕 바닥이 어딘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5m 풀장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 같았다. 순서를 지연하지 말고, 입수하라는 체육대학 교수님의 구령보다 일렁이는 물을 바라보던 내 심장 소리가 더 커지던 순간, 에라 모르겠다 하며 물 안으로 들어가 허우적거렸던 시간이 여전히 생생하다.

마지막이길 바랐지만 아쉽게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 그 수영장 물을 바라보던 때와 비슷한 순간이 종종 찾아온다. 피하고 싶은 낯선 일을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유쾌하지는 않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발버둥 치는 일 자체에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나에게는 계속 낯설고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 일들은 틀림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며, 시간이 훌쩍 지나 조금 더 '나다운' 사람이 되리라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의 교육은 엄청난 삶의 의미를 찾아주거나 꿈을 성취하게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4년 남짓한 대학 생활에 어떠한 정답도 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시간을 충실하게 보낸다면,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명확한 단어로 정의될 수 없음을, 정의될 수 없다는 불안정함을 견딜 수 있는 각자의 돛대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나'로부터 벗어나 다시 '나'로 돌아오는 여행

고등학생 때 나는 발명가가 되고 싶었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원리를 익히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했던 재미없는 시간 동안, 꿈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꿈은 구체화되었고, 대학교 졸업 후 공학적 원리를 이용한 실험적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대학 시절 동안 공학과 디자인을 공부하며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원하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20대 후반,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것만으로 세상에 가까이 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디자이너의 꿈을 접고,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현실적으로 생각을 구조화할 수 있는 경영학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다. 경영학 이론과 논문을 접하며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시선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경험했다. 갑작스럽게 바꾼 전공이었지만 감사히도 나는 경영학 연구가 잘 맞았다. 거시환경과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프레임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 즐거웠다. 그렇게 박사과정을 시작했지만, 연구 방법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회의감에 사로잡혔다. 이전까지 나는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정량적 데이터로만 설명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탓이다. 졸업논문만 앞둔 상태에서 박사과정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김선우 동문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을 통해 타자를 만나고, 더 진정한 '나'로 거듭났다.

당연하게 보내던 하루와 나를 설명하던 모든 수식어를 떨쳐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인 것과 나인 척 살아가던 것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남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액셀러레이터에서 일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창업 생태계를 연구했던 것은, 개별 주체들이 삶 속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며 만드는 크고 작은 변화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자란 사람이든, 모두가 자신의 업을 만들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나는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패권을 가진 나라들에 의해 잠재력을 과소평가받는 이야기를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업해서 운영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실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어, 저소득국가에서 길고 짧게 살며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는 중이다.

더 넓은 세계에서 사랑으로 만나길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어릴 적 꿈도, 고민 끝에 선택한 대학 전공도, 몇 년간 쌓아온 커리어도 '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나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음은 물론, 일관된 스토리 없는 복잡한 삶이다. 긴 시간을 돌아 가장 불안정하고 모호한 지금, 나는 그 어느 순간보다 가장 나답다.

바다를 항해하던 오디세우스가 식인 거인 폴리페모스(Polyphemus)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티스(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가 되었던 것처럼, 항상 나를 바라보는 판옵티콘, 루틴한 삶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나를 정의하려는 수갑을 벗어 던지고 낯선 바다로 나아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살면서 마주할 혼란과 불안함,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을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난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교육을 통해 편안한 집을 벗어나 불편한 타자(非我)를 만나고, 더 진정한 '나'에 가까워질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

낯선 바다에서 기꺼이 방황하길. 익숙하고 친숙한 유혹을 벗어나 모험하고, 열린 바다를 끝없이 조우하길. 다양한 소리에 두터워지고, 낯선 이의 시선에 끝없이 새로운 세상을 여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먼 훗날, 더 넓은 세계에서 사랑으로 만나길.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입학을 축하합니다.

후마니타스,
마음껏 꿈꾸고 고뇌할 수 있는 공간

김지혜(활동명: Jihae Kimm)
영어영문학과 16학번
대중음악 작곡가

김지혜 동문은 버클리 음악 대학에 진학하며 'CJ 해외 음악대학원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퇴를 하고 줄곧 홈스쿨링을 하다가 5년 만에 입학한 대학교는 제게 우물 밖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계기이자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음악에 대한 꿈은 잠시 뒷전에 두고 그저 책이 좋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영문학도가 되었지만, 인생 처음으로 공부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매 수업 때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명확한 꿈이 있거나 체계적으로 인턴십과 취업 준비를 하는 데 반해 저는 방황하고 맴도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들께 찾아가서 여러 고민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들은 항상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책을 추천해 주시거나 오히려 스스로 생각해볼 질문들을 역으로 던져 주셨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한 가지 정답은 없다,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속에 있다는 교수님들의 추상적인 답변은 그때의 저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재밌었고, 경희대 중앙도서관에 들어가면 오래된 인류의 지식과 경험들이 쌓인 책들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여러 경험과 방황은 마치 점 같아서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경험이 선이 된 후에 비로소 그 경험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문학과의 전공 수업들, 후마니타스의 교양 수업들, 미학이 궁금해서 이은정 교수님과 일대일로 진행했던 독립 연구 수업, 학점과 상관없이 그저 듣고 싶어서 청강했던 타 전공 수업들, 3학년 때 뉴욕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보냈던 한 학기,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꾸렸던 독서모임, 우연히 수업에서 옆자리에 앉아 친해진 친구와의 우정, 경희대 학보에서 인터뷰를 읽고 무턱대고 찾아간 선배님과의 만남 등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무엇도 의미 없는 경험들은 없었습니다.

김지혜 동문이 작사, 작곡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OST 'Friends'.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2024 제45회 청룡영화상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문학적 고민이 만들어준 예술적 색과 개성

지금은 비록 영문학 전공과는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때 수업에서 꾸린 독서모임 친구들과는 현재도 일 년에 서너 번씩은 책을 읽고 만나는 7년 지기 책 친구들이 되었고, 경희 학보에 실린 은정아 선배의 아낌없는 조언 덕분에 음대 입시에 도전하여 전액 장학금과 총장 장학금을 받고 버클리 음대에 유학 올 수 있게 되었고, 문학을 공부한 덕분에 사람들에게 문학적인 음악을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며, 그때에 익혔던 문학적 감성을 토대로 작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태평양 건너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동네에서 다시 대중음악 프로듀싱 공부를 하며 한국에서도 Jihae Kimm이라는 예명으로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타지에서 이방인들에 둘러싸여 더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인생은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게 신기하다고 느껴집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명문음대라고 손꼽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바는 학교에 양질의 음악 수업은 많지만 그 어떤 수업도 예술가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의 예술적 색과 개성은 경희대에서 인문학적 고민을 하고 세상을 사유하는 법을 정립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경희대에서의 고뇌와 탐구의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저의 음악도 없었을 것이라고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제 모교라고 부를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경희대가 여러분이 진정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마음껏 꿈꾸고 고뇌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자 배움의 터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은퇴하신 후마니타스의 임옥희 교수님이 이메일로 보내주셨던 쉼보르스카의 시를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 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시민교육에서 만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성준영
러시아어학과 11학번
한양이엔지(주) 경영지원실 외주구매팀

2011년 2월, 스무살 평생 부산에서 살았던 저는 아직 덜 녹은 윗지방의 빙판길을 조심스레 걸으며, 낯설음에 가득한 대학교의 기숙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랫동네보다는 조금 더 차가운 공기이지만, 그 낯설음에서 오는 뭔가 모를 두근거림을 가진 채로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생활환경, 말투, 사고방식 때문에 스스로 혼자 생각이 많아지며,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입시학원에서 등 떠밀리듯이 선택한 저의 전공 '러시아어학'에는 흥미가 없었으며, 대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1학년 1학기를 지나 2학기,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시민교육'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후마에서 시민교육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저는 2학기가 지나면 군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해외여행(?)이나 가보자는 알량한 생각으로 교수님께 해외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5명이 한 팀이 되어 팀을 꾸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너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낯설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공간에 대해 생각하며, 이 문제의식을 대한민국 주거문제로 확장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타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의식주 중 '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책상과 침대의 거리가 약 1m도 안되며, 화장실로 가는 통로만 있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학교 수업시간 외 모든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주거 공간 형태는 고시원, 원룸촌 등 한국 주거문화의 기본적인 형태이나, 이러한 공간형태는 오로지 생존, 설계 및 시공비용, 건물주의 월세를 고려한 효율의 공간형태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만 낯설게 보고, 시선을 이웃나라 일본으로만 돌려봐도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일본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효율성에만 목적이 있는 기숙사, 주거용 건물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토대학교의 기숙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형태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생존이 아닌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공간, 텃밭을 가꾸는 공간, 마음껏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말그대로 공동체 생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아파트처럼 개별화된 공간, 생존과 효율성, 한 학기, 1년만 지나면 없어지는 우리 공간과는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지내는 생활만큼은 본인들이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직접 보고, 느끼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우리 생활과 현재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고, 시민교육 활동을 교토로 다녀온 이후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활동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학 수업의 의미를 찾았고, 진정한 의미의 자기 주도적 인생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 의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준영 동문은 시민교육 활동을 교토로 다녀온 후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활동집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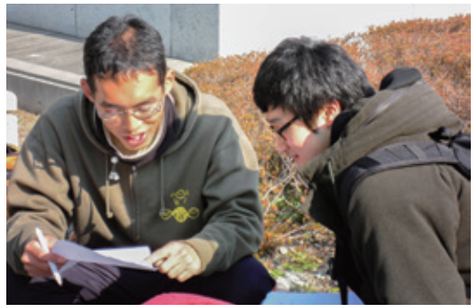
독립연구 수강으로 그린 미래와 현재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도 지도교수님과 인연이 되어, 독서모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마에서의 인연 덕분에, 3학년 때는 독립연구를 수강했습니다. 독립연구의 주제는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도시계획이었으며, 제가 직접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여 독립연구를 수강하면서 제 미래를 그렸습니다. 후마 교육은 아무것도 모르던 고교시절, 등 떠밀려 선택했던 러시아어학을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쇠'로 생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저의 필요에 의해 화학공학을 복수전공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Gas 공장, 정유공장 등의 산업 생산설비를 설계, 시공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구매·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교육, 독립연구를 수강하며 경험한 지적인 훈련, 문제점 찾기, 낯설게 보는 방법이 제 업무에 묻어나옵니다. 남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덤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시민교육과 독립연구를 할 때 고민했던 '인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제 직업적 경력과 후마의 인문적 사고방식을 살려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필요한 설비를 설계하는 사무실 개업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시대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읽고, 보고, 체득한 것들은 나 자신을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칼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대한 장군이 될 수도,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칼을 휘두르는 가치판단이 중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도 전공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판단의 베이스를 만들어주시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여러 교수님과 함께 치열하고 재미난, 일생의 단 한 번뿐인 대학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성준영 동문은 "AI가 인간을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시대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읽고, 보고, 체득한 것들은 나 자신을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교양교육의 현재와 미래, “교육자의 피드백이 학술적 글쓰기의 성패를 좌우한다”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가 연 2회 발간하는 학술지 <후마니타스 포럼>은 대학 교양교육 전반, 자기주도적·실천적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 교양교육의 심화·확장 등을 주제로 교양교육의 역할을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저자성 중심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교수 - 학습 사례 고찰

최현숙 경희대학교

본 논문은 저자성 중심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교수-학습 사례를 통해 저자성 중심의 학술적 글쓰기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쓰기에서 저자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화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저자의 정체성과 독창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평소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생각해 보고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선행연구와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저자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현장 강의에서 효율적인 것은 학술담화공동체이다.

다양한 전공 학습자들과 개성적인 학습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은 저자성 중심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수정·보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으로 만들어 내는지가 결국 저자성 중심의 학술적 글쓰기가 될 수 있다.

학술공동체와 교수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수용하고 수정 보완했을 때 저자성 중심의 학술적 글쓰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저자성 중심의 학술적 글쓰기는 대학 교양 교육의 궁극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대학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교수 피드백과 '글쓰기 클리닉'을 중심으로

추선진 광운대학교

이 글은 2023학년도 1학기에 경희대학교에서 진행된 <주제연구> 강의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 과정 및 교수 피드백과 글쓰기 클리닉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학술적 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연구> 강의에서 학술적 글쓰기 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피드백이다. 학생은 단계별로 학술에세이를 작성해 나가면서 학술적 글쓰기 방법을 체득하게 되는데, 이때 교수 피드백은 학생의 글쓰기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하면서 학업 및 대학 생활, 삶에 대한 자세 등 학생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멘토링의 역할도 수행한다. 교수 피드백을 통한 학생과의 소통이 빈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강의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 교수 피드백의 양과 질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글쓰기 클리닉의 운영이 필요하다. 경희대학교에서는 글쓰기 교과를 총괄하는 글쓰기 센터에서 글쓰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수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자기서사화를 통한 성찰 글쓰기 교육: ‘말’에 대한 자기서사 담화를 중심으로

박혜영 한국항공대학교

이 글은 대학 교양교육에서 대학생들의 자아 탐색과 성찰의 일환으로, 자기서사화 글쓰기 방법과 그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자기서사화(selfnarrativization)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시간의 흐름과 인과 관계에 따라 서술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자기서사의 주체는 경험주체, 서사주체, 서술주체(서술자)로 구성된다. 자기서사화에서 경험주체와 서사주체는 동일하다. 서사의 시간성에 의해 시점이 구분될 뿐이다. 이에 서술자가 1인칭이라면 서사주체와 서술주체가 하나가 된 내부시점의 자기고백적 진술이 강화되고, 3인칭이라면 서사주체가 경험주체의 사건을 제3자의 타자화된 외부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이와 같은 자기서사화 방법을 실제 대학생들의 ‘말’에 대한 성찰 글쓰기에 적용하고, 그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그때 그 말에 대한 사건을 초점화하기 위해 서사주체의 관점에서 1인칭 또는 3인칭의 서술자를 설정하고, 서술 시제를 조절하며, 서사 구성 순서를 고려하는 등 자기서사 담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때 자기서사화는 필연적으로 자아성찰을 수반하며, 글쓰기는 자기서사적 삶의 결과물이자 또다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한 CHATGPT의 문학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윤곤강의 『동물시집』의 교육용 교안 설계 과정을 중심으로

김태형 경희대학교 컬처 스토리콘텐츠 연구소

제프리 힌턴의 딥러닝 방법론 제언 이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면서 생성형 AI는 주어진 프롬프트(명령문)에 대해 이전보다 더 인간과 유사한(human-like) 반응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접근이 일부 전문 집단이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 가능해지면서 가속화된 면모가 있다. 2021년 시 쓰는 AI SIA 등이 등장하며 일어난 AI의 창작적 활용은 2023년 ChatGPT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대중화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이와 같은 생성형 AI의 발전 속에서 ChatGP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공학을 비롯한 교육학·사회학·미학 등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문학 또한 ChatGPT의 가능성 및 창작 윤리 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 모델인 GPT-3의 사전 교육 모델이 공개된 것과 달리 ChatGPT의 모델인 GPT-4의 사전 교육 모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ChatGPT의 활용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사전 교육이 불가능한 생성형 AI는 사용자를 통한 정보 입력이 아주 제한적이며, 입력된 정보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없어 실용적인 도구로 기능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고가 주목한 것은 ChatGPT가 문맥을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답변을 출력하기 위해 활용하는 인컨텍스트 러닝 기능과 프롬프트 공유 기능이었다. ChatGPT는 입력한 프롬프트를 최대 4,096 토큰(입력 정보량의 단위)까지 기억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타인과 공유하여 질문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적인 수준의 교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GPT-1에서부터 GPT-4까지의 기술 발전 추이를 볼 때 생성형 AI가 기억할 수 있는 정보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처리 속도 역시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접근은 지금 사용 가능한 기능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생성형 AI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포괄해야만 할 것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생성형 AI의 인컨텍스트 러닝 기능에 기반한 문학 교안을 설계하되, 교안의 실질적 한계와 향후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교안이 실제 수업에 활용된 결과를 정리하고 전통적인 교안을 대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난점인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또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GPT-4의 환경상 프롬프트의 입력 제한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교안 설계의 한계가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정보량 제한·할루시네이션·생성형 AI 자체의 문학적 이해 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러그인 사용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제언한다.

김원영의 글쓰기 전략과 예술 실천의 정치성

차성연 강원대학교

이 글은 김원영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과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을 중심으로 그의 글쓰기 전략이 사고실험적 질문과 '수행성' 관점의 답하기로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사고실험적 질문을 통해 독자의 사유를 촉발하고 수행적 답하기로써 사유의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독자들이 서로의 다름을 독해하고 서로의 삶에 공저자로 개입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지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은 '잘못된 삶' 소송과 같은 사고실험적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자기서사 편집권으로서의 인권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충분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독자의 논리적 사고를 끌어낸다. 논리성을 통해 "개인의 고유성을 무시하는 법체계를 다소나마 개선할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원영의 수행성 관점은 장애인 정체성, 장애 수용의 문제에서 드러난다. 장애인 정체성은 생물학적이고 객관적인 산물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을 수용함으로써 수행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장애 수용은 운명적 순응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실천으로서의 선택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방향의 지향이 만들어지는 효과에 주목하는 개념으로서 '실천'의 의미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술 실천은 특정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활용되는 예술이 아니라 자기서사의 지향성을 향한 실천이 곧 예술이 됨을 의미한다. 전시된 결과물이나 탈고된 원고가 예술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현되는 자기서사의 지향,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의미가 예술 실천일 것이다. 김원영의 예술은 하나의 장르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지향을펼치기 위한 형식이라면 어느 것이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펴낸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은 가장 구체적인 현장인 몸을 통해, 몸의 움직임인 춤을 통해 예술 실천의 정치성을 논하고 있다. 김원영이 꿈꾸는 전복은 새로운 관계 맺기이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의 전환은 가히 전복이라 할 만하다. 많은 사상가들이 '사랑'에서 전복의 가능성을 보는 이유 또한 사랑이라는 행위가 기존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일 터, 관계맺음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김원영이 말하는 예술 실천의 정치성일 것이다.

디지털 시대 인문학에 대한 철학적 성찰: 현대인문학의 발생 배경 및 그 정신의 관점에서

정대성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간의 삶의 양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현대인문학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주의가 팽배해질 때 개체성, 고유함(/독특함) 그리고 자유 등을 강조하며 등장했다. 그런데 제4차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궁극적 승리와 인문학의 위기를 알려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인문학이 경계하는 것은 과학기술 자체이기보다 삶의 모든 영역을 과학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과학주의이다. 현대과학기술은 인간성 신장에 방해되는 요소로 인해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문정신을 탁월하게 공유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이 글은 현대인문학이 대두하게 된 배경과 그 정신을 탐구하고, 이어서 초연결사회의 범주, 즉 편재성(Ubipresence), 상호객체성(Interobjectivity), 초주체성(Trans-subjectivity)의 범주와 그것이 인문학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언급한 이후, 보편적 인문학으로서의 한국학에 대한 단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국적 난민과 인권의 난제: 권리를 가질 권리는 어떻게 가능한가

고원 경희대학교

한나 아렌트는 무국적 난민과 인권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와 연계해 논의한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아렌트는 자신의 대표 저작인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 그녀는 유대인 출신으로 나치 독일을 탈출해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얻기까지 18년 간 무국적 난민으로 살았으며, 스스로를 "파리아"(pariah,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아렌트는 유대인 문제라는 특수한 주제를 무국적 난민과 인권의 문제라는 인류의 보편적 주제로 확장시키고, 그 분석의 과정에서 자연권에 기초해 선언된 인권이 실제 현실 속에 자리 잡으면서 맞부딪친 난제를 제시한다. 아렌트의 논의는 지금까지도 여러 다양한 정치적 혹은 철학적 논쟁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논의가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05

경이로운 경희

지난해에도 경희의 도전과 성취는 멈추지 않았다.
경희는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6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화는 국내 1위다.
특히 연구 영역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다.
4단계 BK21 사업 등 연구지원 사업도
꾸준히 수주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대학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고
핵심가치를 강화해온 결과다.
경희의 학술 역량은 교육으로,
사회공헌으로 이어진다.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

‘학문과 평화’ 두 축으로 ‘대학다운 미래대학’ 열어간다

국내외 대학평가 종합대 6위,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사립대 2위
디 엘더스(The Elders), 제1회 미원평화상 수상

디 엘더스(The Elders)에 미원평화상 첫 영예

제1회 미원평화상 시상식이 2024년 11월 29일(금)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경희학원은 지구사회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문화세계의 창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공적을 기리면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 지구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원평화상(Miwon Peace Prize)을 제정했다.

첫 수상의 영예는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을 목표로 세계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디 엘더스(The Elders)’에 돌아갔다. 디 엘더스는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2007년 설립했다. 전직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유엔 사무총장,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 엘더스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며, 서로의 보편적 인간성과 지구,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식하는 세상’, ‘모든 인권이 보편적으로 존중받고, 빈곤이 사라지며, 사람들이 두려움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글로벌 문제 해결과 인권 증진, 평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상식은 △미원평화상 경과보고 △수상자(기관) 소개 △기념사 △시상 △수락사 △기념 대담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는 웹캐스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이리나 보코바(Irina Georgieva Bokova)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제10대 유네스코 사무총장, 경희대학교 미원석좌교수), 미원평화상 후원재단의 노상석 이사장과 임원, 미원평화상 본상 조각상인 ‘평화의 지구’를 제작한 박은선(미술대학 83학번 동문) 작가 등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디 엘더스의 반기문 공동 부의장(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현장에 참석했고,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전 의장(제7대 아일랜드 대통령)과 회원들은 웹캐스트로 시상식을 지켜봤다.

미원평화상 수상자(기관)는 국내외 학술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세계 석학과 실천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논의 후, 경희학원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선정했다.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는 디 엘더스의 분쟁 해결을 위한 변함없는 헌신, 세계적인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용기,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만장일치로 미원평화상 첫 수상자(기관)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본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본상은 세계적 조각가 박은선이 제작한 트로피이고, 부상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지원금’ 미화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700만 원)이다. 부상은 재미 동창회가 결성한 미원평화상 후원재단이 지원했다.

제1회 미원평화상 수상의 영예는 ‘디 엘더스(The Elders)’에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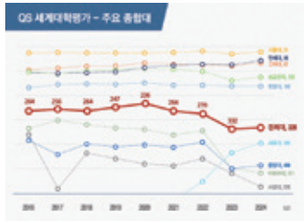
QS 세계, THE 세계,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내 종합대 6위

경희가 2024년 11월 말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 6위를 기록했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 6월 공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음으로 국내 종합대 6위에 이름을 올렸다. QS와 함께 대표적인 대학평가기관으로 꼽히는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지난 10월 공개한 세계대학평가에서도 경희는 같은 순위에 올랐다. 경희가 올해 발표된 각종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모두 국내 종합대 6위로 평가받은 것이다.

교육비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5억 원 증가했다.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했다.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을 제외한 학부와 대학원의 장학금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16억 원, 18억 원 늘었다. 교비와 기부금으로 지급된 학생 1인당 장학금(학부)은 15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 투자 확대에 힘입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학생 성과가 개선됐다. 취업률, 중도포기율, 창업지원액, 창업기업 수,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지표에서 점수가 올라 학생 성과에서 2계단 순위 상승을 이뤄냈다.

취업률이 개선된 영향으로 QS 세계대학평가 졸업생 성과 점수는 1.7점 상승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경희의 취업률은 2021년 66.3%, 2022년 68.9%, 2023년 70.7%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졸업생 성과와 함께 QS 세계대학평가의 교육 지표를 구성하는 학생당 교원 비율에서 국내 종합대 6위에 올랐다.

한편 ‘2024 THE 대학 영향력 평가(THE Impact Rankings 2024)’에서 세계 23위·세계 사립대 2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이 평가는 대학의 사



경희가 202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6위를 기록했다. QS 세계대학평가, THE 세계대학평가에서도 국내 종합대 6위에 올랐다.

회적·지구적 책무, 즉 '공공성'을 주요 평가 잣대로 삼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해 인류와 문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가늠할 지표가 된다.

무전공 시작으로 새로운 교육 혁신 모델 수립

경희는 미래 사회가 요청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융합교육과 첨단산업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학과 간 장벽 없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대학 혁신에 힘을 실으면서 추진을 본격화했다.

우선, 융합 다전공 중심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열린 대학', '열린 학습', '열린 전공'을 목표로 교육 혁신 로드맵을 수립했다. 양자정보융합전공, 우주인공지능융합전공 신설에 이어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무전공 학사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내년부터 무전공을 시행한다.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학생설계전공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사제도를 확대해 온 경희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경희는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해왔다. 올해는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신설을 추진해 내년에 학과를 개설한다. 교육부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그린바이오 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에 선정돼 그린바이오와 메타버스 분야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THE 세계대학평가 기준으로, 경희의 △논문 수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로 막대 논문 수, 선 그래프 상위 10% 논문 수)

중앙일보 이공계 대학평가 공학 분야 종합대 6위

경희의 연구력이 향상되면서 국제공동연구와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제공동연구 비율이 전년 대비 2%p 오른 32.8%로 나타났다. 산학협력은 국내 종합대 기준으로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와 함께 공동 2위로 평가받았다. 특허 피인용 횟수 지표의 점수가 크게 오르면서 순위가 상승했다.

경희는 문명사적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주과학, 바이오헬스, 양자과학, 첨단소재, AI, 인류문명 등 6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공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천리안 2A호와 다누리 탑재체 개발로 우주과학 분야에서 한국 최초의 도전에 힘을 실어온 경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50여 년 만에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주산업 연구중심대학인 영국 써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주과학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다.

경희는 유럽연합의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참여해 미래 식량 문제 해결에도 도전한다. 응용화학과 김광표 교수 연구팀은 호라이즌 유럽에서 지원하는 FarmEVs 프로젝트를 통해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세포 밖 소포체(Extracellular Vesicles; EVs) 추출과 특성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공계 분야의 성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경희는 중앙일보가 종합평가 결과와 함께 발표한 국내 이공계 대학평가의 공학 분야에서 종합대 6위를 기록했다. 경희 이공계의 성장은 또 다른 대학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발표된 상해 학문 분야 평가(GRAS)에서 통신공학, 식품공학, 교통기술 분야에서 국내 1위에 등극했다.

양자 과학 분야 선도 위해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개소

경희대가 양자 과학 분야의 선도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석학을 모았다. 2010년 그래핀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Konstantin Novoselov) 교수와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학자로 불리는 김필립 교수가 경희대의 ES(Eminent Scholar) 교수로 임용됐다. ES 교수 제도는 세계적 연구자와 실천가를 위한 직책으로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경희의 미래 지향적 학술 활동과 국제교류 증진 등을 돕는다. 이번에 임용된 두 교수는 신설한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를 플랫폼으로 삼아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노보셀로프 교수는 이 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는 노보셀로프, 김필립 ES가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물리학과 김상욱·최준호 교수와 수학과 이수준 교수, 화학과 양지은 교수, 응용물리학과 김선경 교수 등이 운영위원이다. 연구센터는 연구부와 운영부로 나눠 경희대 양자 기술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들은 양자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경희대 양자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차세대 양자 물질', '맞춤형 양자소자 개발', '최적화 검증' 등의 플랫폼을 구축한다.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개소식과 이를 기념하는 기념 강연이 개최됐다.

4단계 BK21 사업 재선정 평가 결과 4개의 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이 신규 선정됐다. 기존 4개 사업단에 더해 총 8개의 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이 2027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위에서부터 글로벌 첨단 반도체 혁신 교육연구단의 전자공학과 김대원 교수 연구팀과 양자 디지털 기술 혁신인재 교육연구단의 응용물리학과 김선경 교수 연구실.

4단계 BK21 사업, 혁신인재 양성사업 4개 사업단 신규 선정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학문 후속 세대인 대학원생 양성을 지원한다. 1999년 1단계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0년 4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4단계 BK21 사업은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 2개 분야로 구분된다. 2024년 교육부에서 4단계 BK21 사업의 중간평가와 재선정평가를 진행했고, 경희는 4개의 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이 신규 선정되는 성취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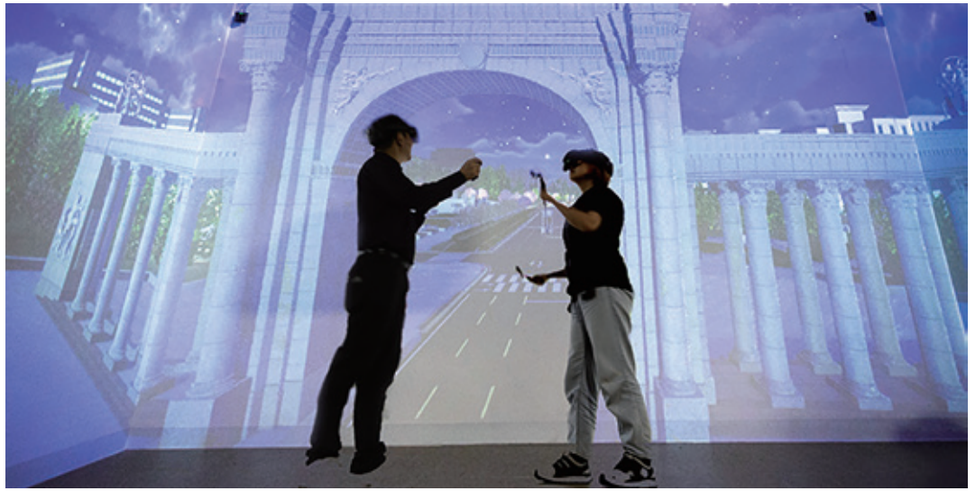
이번 성취는 대학원 혁신을 위한 경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경희는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장려했다. 특히 선진국형 'Stipend' 제도를 도입해 대학원생이 재정 걱정 없이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Stipend는 대학원생이 교육, 연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생활비, 교육비,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희는 전국 단위 대학 중 가장 많은 교육연구단을 신규로 선정받았다. 기존 △고령서비스·테크 문제해결형 혁신인재 양성사업단(단장 노인학과 김영선 교수) △지능형 다차원 프린팅 소재 및 시스템 융합기술 교육연구단(단장 화학공학과 박종욱 교수) △차세대 가상증강현실 하드웨어 선도기술 혁신교육연구단(단장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이승우 교수) △융합미래통신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단장 전자공학과 신현동 교수) 등 4개의 사업단에 신규로 선정된 △글로벌 첨단 반도체 혁신 교육연구단(단장 전자공학과 김대원 교수) △양자 디지털 기술 혁신인재 교육연구단(단장 응용물리학과 김선경 교수) △지능웨어 융합 교육연구단(단장 컴퓨터공학과 허의남 교수) △기후 리터러시 기반 사회과학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CLIMATES) 사업단(단장 지리학과 이은걸 교수) 등 총 8개의 혁신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이 2027년까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경희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사업 책임자 컴퓨터공학부 전석희 교수.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 선정, 2029년까지 총 55억 원 지원 받아

경희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에 선정됐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메타버스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갈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경희대는 '인간 중심의 초실감 메타버스 개발 및 융합적 메타버스 인재 양성'이 목표로 실천적 교육 과정을 기획했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 선정으로 2029년까지 총 55억 원을 지원받는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에는 12개 학과의 29명의 교수가 참여해 다학제적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공고했다.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과학적 도전을 응원하는 과제다. 이 과제의 소재 분야 '양자 통신용 단일 광자를 상온에서 생성하는 기술'이란 주제는 양자 통신의 한계점 극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양자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단일 광자 발생기는 극저온에서만 동작하는데, 이를 극복해 실용화를 앞당기려는 시도다. 물리학과 손석균 교수가 이 주제에 '상온 동작 확정적 단일 광자 발생기: 표면탄성파 기반 전자-광자 변환 기술 연구'를 기획해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연구팀은 총 4년간 약 20억 원을 받는다. 연구팀은 도전적이고 혁신적 방법론을 통해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고성능 단일 광자 발생기 개발에 주력한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공학, 인문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을 확보해 메타버스 개발과 응용 모두 가능한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혁신사업단,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명품 강의 '경희명의' 진행

교육혁신사업단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명품 강의 '경희명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강의는 '후마니타스 기반의 교양교육 혁신'을 목표로 삼았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조은아 교수가 강의를 담당했고, 7명의 학생이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 이들은 베토벤을 주제로 명품 강의 시리즈를 제작했다. 영상 강의들로 해당 강의는 경희대 교육혁신사업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11월 5일(화)에는 중앙도서관 1층 컨퍼런스룸에서 이 강의의 상영회가 개최됐다. 경희명의 팀은 지난 7월 24일(수)부터 8월 1일(목)까지는 오스트리아로 향해 강의를 촬영했고, 이날의 상영회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학생들의 활동은 다양한 부분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경희명의 활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혁신사례영상 경진대회의 1차 평가에도 통과해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2024년 사업단 성과포럼에서도 해당 성과를 재확산하기 위한 사례 발표가 예정돼 있다. 영상 제작과 함께 학생들의 성장도 눈부시다. 학생들은 오스트리아에서 귀국한 후 카카오, JTBC, MBC, 코트라 등의 기관에 인턴으로 선발됐다.

교육혁신사업단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만드는 명품 강의 '경희명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이 제작한 16회차의 강의는 교육혁신사업단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이로운 후마니타스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다

전공 역량 강화로 각종 대회 수상 잇달아
캡스톤디자인 아이디어 현실화, 강의실과 사회 연결

경희대가 추구해온 대학의 참모습은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상상력과 창의력, 실천력을 키워나가는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이다. 경희는 '교양교육의 메카에서 전환교육의 선도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생과 교수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에도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삶을 탐색하며 더 많은 미래를 만들어나갔다.

의류디자인학과 문세연 학생이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에서 대학생 분야 최고 상인 금상을 받았다.

의류디자인학과 문세연 학생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금상

의류디자인학과 문세연 학생(19학번)이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에서 대학생 분야 최고 상인 금상을 받았다. 문세연 학생은 시각디자인학과의 '광고디자인' 수업을 들은 것을 계기로 유기견 문제를 패스트 패션에 비유하여 공익광고를 제작했다. 광고디자인 수업을 들으며 간접적으로 경험한 실무 지식이 도움이 됐다. 다전공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문세연 학생은, 앞으로도 설득력 있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에 경희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이름을 알렸다.

경희 구성원
CES 2024를 누비다

전 세계 기술력의 각축장이 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에 경희 구성원이 참여해 이름을 알렸다.

LINC 3.0 사업단은 경희 청년 해외개척단(Global AFRO!)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을 파견했다. 경희 청년 해외개척단은 LINC 3.0 사업단의 대표적 실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학생을 1대 1로 매칭한다. 참여 기업은 해외 진출의 도움을 받고, 학생들은 해외 마케팅, 해외 무역과 관련해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다. 10명의 재학생이 CES 2024 서울통합관에 파견됐다. 해외개척단은 매칭된 기업과 시장현황을 조사해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다. CES 현지에서는 통역과 전시 운영에 직접 참여해 매칭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해외개척단의 적극적인 참여에 매칭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고, 8개 대학이 참여한 CES 서울통합관 서포터즈 성과발표회에서 1등이라는 결과도 얻었다.

교육혁신사업단은 'KHU Global Ambassadors for CE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선발 공고를 거쳐 10명의 재학생을 선발했고, 이들은 '글로벌브랜드 경희 홍보'와 '글로벌 미래전략 취재' 등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글로벌브랜드 경희 홍보 프로젝트는 CES 박람회 기간 현장 관람객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CES 현장에 경희대 홍보 부스를 디자인하고, 홍보 영상과 기념품을 제작했다. CES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영상물도 여럿 제작했다. 글로벌 미래전략 취재 프로젝트는 CES 박람회 참가 글로벌 기업을 취재했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취업 백서도 제작했다. 정확한 정보를 담기 위해 기조연설, 미디어데이 등에 참여해 현직자의 인사이트를 백서에 담았다.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들이 국내 3대 디자인 어워드인 핀업 컨셉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사진은 지난 1월 말 개최된 시상식 모습으로 왼쪽부터 권의환·신현섭 학생, 김유빈 교수, 박서현·김승은 학생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 팀
핀업 컨셉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 7명이 2023 핀업 컨셉 디자인 어워드(PIN UP Concept Design Awards)에서 파이널리스트(Finalist)를 수상했다. 이 공모전은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대한민국디자인대상, 굿디자인어워드와 함께 국내 3대 산업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이 공모전은 대학(원)생과 일반인이 개인 또는 2인 이내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부문은 △제품 산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산업 △공간 및 환경 산업 △공예 산업 △기타 등으로 나뉜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제품 산업 부문에서 3개 팀이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됐고, 한국콜마(HK Kolmar) 기업 부문에서 1개 팀이 선정됐다.

산업 부문에서 수상한 3학년 성아현, 4학년 김승은 학생은 요양병원의 치매 환자를 위한 스마트 테이블인 '치치코(CHI-CHI-CO)'를 디자인했다. 3학년 동기인 신현섭·한예지 학생은 현대인의 신체 피로 데이터를 분석해 일상생활에서 해소할 수 있는 'Sun Kim'을 디자인했다. 3학년 임형민, 4학년 권의환 학생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떠오르는 '펫로스 증후군'에 주목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했다. 한국콜마 기업 부문에 선정된 3학년 박서현 학생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코스메틱인 'Scope'를 디자인했다.

2024 파리올림픽에 박태준(태권도학과 23학번) 학생, 전훈영(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 동문이 선수로 참가해 금메달이라는 값진 성취를 거뒀다.

경희 구성원
파리올림픽 금빛으로 수놓아

2024 파리올림픽에 박태준(태권도학과 23학번) 학생, 전훈영(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 동문이 선수로 참가해 금메달이라는 값진 성취를 거뒀다. 특히 두 선수 모두 첫 번째 올림픽 출전임에도 쾌거의 결과를 기록해 더 의미 깊다.

박태준 학생은 8월 7일(수) 남자 태권도 58kg급에 출전해 이 종목에서 역대 첫

우승을 기록했다.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남자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16년 만이다. 박태준 학생은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롱런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다.

전훈영 동문은 7월 29일(월)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빛 화살을 쏘았다. 한국 대표팀이 총점 29점으로 27점을 기록한 중국 대표팀을 제치고 올림픽 10연패라는 금자탑을 이뤘다. 경기가 종료된 후 전훈영 동문은 “양궁 대표팀을 향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부담을 이겨내고 목표를 이뤄냈다. 준비하는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해 후회 없이 후련한 마음”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산업경영공학과 학생이 2024 캠퍼스 특허유니버시아드 대회 특허전략수립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종합 4위)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부터 산업경영공학과 박민규, 이석훈 학생, 최현홍 교수, 이준용 학생

산업경영공학과 석사·학부생

2024 특허유니버시아드 대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산업경영공학과 이석훈(석사), 이준용(학부), 박민규(학부) 학생이 「2024 캠퍼스 특허유니버시아드 대회(Campus Patent Universiade, 이하CPU)」 특허전략수립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종합 4위)을 수상했다. 캠퍼스 특허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대학(원)생들이 기업과 연구소의 특허 관련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국내 최대 지식재산 산학협력형 대회로, 경희대는 총 6팀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석훈, 이준용, 박민규 팀(팀명: TNDI)은 도시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유망 기술을 탐색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허 전략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각디자인학과는 제주 서귀포시 마을 마이스 브랜드를 제안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와 협업해 기획, 네이밍, 슬로건 개발, 로고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등을 수행했다.

예술·디자인대학

캡스톤디자인 과목으로 산학협력 진행

캡스톤디자인 과목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교과목으로, LINC 3.0 사업단과 예술·디자인대학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활성화하고 있다. 2024학년도 2학기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서귀포 마을 마이스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했다. 돌담의 연결성을 활용한 ‘NOJI 105’ 브랜드를 제안하고, 이를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했다. 학생들은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쌓았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근거 기반 기획과 설득력을 강화하는 경험을 했다.

산업디자인학과는 ‘노들섬:RE 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까이노들’ 전시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노들섬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며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공공디자인, 스마트 솔루션 등을 기획했다. 10개월간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하며 연구 및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전시는 노들섬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딩, 공공디자인, 역사 기획전,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진 디자이너로서의 성장과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됐다.

원자력공학과 재학생

방사선 기술 활용 창의·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원자력공학과 20학번 김관희, 정성원 학생이 한국방사선진흥협회가 주최한 ‘제2회 방사선 기술 활용 창의·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 감지 필름’을 제안하며 기존 감지 필름과 다른 차별화를 이뤘다.

두 학생이 제품 설계에 가장 힘쓴 부분은 현실성과 사업성이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는 신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논문을 탐구하며 감지 필름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그 결과 제안된 방사능 오염 감지 필름은 기존 방사능 계측기 대비 저렴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군용 장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재난 대처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원자력공학과 20학번 김관희, 정성원 학생이 한국방사선진흥협회가 주최한 '제2회 방사선 기술 활용 창의·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재학생

환경조경대전 대상 수상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제2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경조경디자인학과 21학번 송재영, 강현지, 박시연 학생은 ‘Dam Removal Effect’를 주제로 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영주댐을 해체해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댐 철거 이후에 일어나는 환경 문제와 댐 잔해를 생태계 복원에 활용한다는 독창적 접근 방식으로 호평을 받았다.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제2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왼쪽부터 환경조경디자인학과 21학번 박시연, 강현지, 송재영 학생.

한의과대학 이수연 학생

ICMART에서 학부생 최초 포스터 상 수상

한의과대학 이수연 학생(본과 4학년)이 지난달 말 제주에서 열린 제37회 국제침술협의회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 ICMART)에서 학부생 최초로 포스터 상을 받았다. ICMART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설립한 비영리 국제학술단체다. 80여 개의 회원 단체와 35,000여 명의 의료인이 활동하는 통합의학 분야의 주요 학술단체다.

이번 대회에서는 300여 편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고, 최종 심사를 통해 총 14명이 포스터 상을 받았다. 이수연 학생은 유일한 학부생 수상자였고, ICMART에서 학부생이 포스터 상을 받은 것도 최초다. 이수연 학생은 대학혁신사업 중 하나인 ‘대학원 연계 전공 심화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의과대학 이병철 교수의 지도로 연구를 수행해왔다. 비만 환자에게 주로 사용하는 ‘대시호탕’이 고지혈증에 미치는 임상적 치료 효과와 작용 기전을 다룬 연구다.

제37회 국제침술협의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의과대학 이수연 학생(본과 4학년)이 학부생 최초로 포스터 상을 받았다.

경희에서 이룬 꿈과 희망 나눈다
학생, 교수, 동문, 기부 행렬

기부 프로젝트, 다양한 기부 잇달아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나눔으로 미래를 창조하다

'경희 가족'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도 학생, 교수, 동문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많은 기부자가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 조성에 힘써주었다. 응원에 힘입어 대학은 교육 및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강의실 네이밍으로 기부의 마음 기억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은 대학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경희 발전과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기부자에 주어지는 명예다. **간호과학대학 신혜숙 교수**가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에 위촉됐다. 신혜숙 교수는 1997년부터 기부를 이어왔고,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섰다. 신 교수는 한부모 자녀 생활비 장학금과 교수 역량 강화 기금을 통해 학생과 후배 교수들을 지원해왔다.

문주현 동문(회계학과 83학번, ㈜MDM 회장)의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식과 특강이 개최됐다. 문 동문은 지금까지 모교에 10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운영하는 문주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기부와 지난해 천원의 점심밥 기부 등 기부의 형태도 다양하다. 오비스홀 213호는 '문주현 강의실'이란 이름이 붙었다.

김경숙 기부자는 학생들의 꿈을 돕기 위해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가운데 꽃 든 사람이 김경숙 기부자다.

체육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과 나눔을 실천한 **김경숙 기부자**가 새롭게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위촉됐다. 김경숙 기부자는 2003년 객원교수로 부임하며 경희와의 인연을 시작했다. 김경숙 기부자는 볼링과 인생론을 강의하며 16년 동안 체육대학과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근무했다. 2024년에는 경희대학교 개교 75주년 및 체육대학 건립 75주년을 기념해 추가로 기부했다. 체육대학은 기부자의 실천을 기리기 위해 체육대학 205호를 김경숙 강의실로 명명했다.

컴퓨터공학부 **박광훈 교수**가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으로 위촉됐다. 박광훈 교수는 동영상 압축 기술을 국제표준 특허로 확보했고, 기술 사업화 수익의 일부를 컴퓨터공학부 발전기금과 산학협력기금으로 약정했다. 박 교수는 연구의 선순환 구조, 그 마지막 부분이 기부라고 설명했다. 전자정보·소프트웨어융합대학관에는 박광훈 교수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치과대학 89학번 **김상석·홍선희 부부**가 치과대학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김상석·홍선희 동문 부부는 아들이 둘이다. 첫째 아들은 4년 전 타 대학의 치과대학에 입학했고, 둘째 아들 김한이 군은 2025년 수시모집에서 경희대 치과대학 입학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치과대학에도 꾸준히 기부했고, 현재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동해에도 장학회를 설립해 매해 기부를 거듭했다. 이들의 실천 활동에는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려는 마음이 담겼다.

2024년 3월 임용된 신임 교원인 약학대학 **한약학과 문규호 교수**가 발전기금 1억 원을 약정하며 아레테클럽에 가입했다. 문규호 교수는 "부친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박사까지 마치시고 한의원을 운영하셨다. 이번 기부는 그동안 우리 가족이 경희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부친과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0억 원을 기부했던 김인선 여사는 최근 1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복 대외부총장, 김진상 총장, 김인선, 이미경, 김근정 여사.

“평생 모은 돈,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20억 원을 기부했던 故 이규종 명예교수의 부인 **김인선 여사**와 유족들이 최근 1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김인선 여사와 유족들은 경희대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故 이규종 교수의 뜻을 되새기고자 2022년 3월 20억 원을 기부했다. 이를 바탕으로 故 이규종 교수의 아호를 따 ‘운연(雲淵) 장학기금’을 조성했고, 2022학년도부터 약 3년 동안 총 817명의 학생에게 15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번 추가 기부를 통해 2027년까지 장학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운연 장학기금’은 계열과 관계없이 등록금의 반액을 졸업까지 지원한다. 생활비 지원 장학으로 다른 생활비 지원 장학금과 중복수혜도 가능하고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덕에 수혜 효과가 더 크다.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손 글씨로 써 기부자에게 보내며 정서적 유대감을 키워왔다.

‘**故이민영 동문**’ 강의실 네이밍 행사가 진행됐다. 故이민영(전자계산공학과 89학번) 장학은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이민영 동문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1년부터 유가족이 기부를 시작했고, 지금껏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32명에 달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민영 장학의 1호 수혜자인 정보처 문준수 차장이 자리에 함께해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다. 전자정보대학관 137호는 이민영 동문 강의실로 명명됐다.

권지혜 동문(화학과 86학번·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책연구센터장)이 어머니 故김경주 여사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다 1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권 동문은 “나는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학은 권지혜 동문을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권 동문과 어머니의 이름을 따 이과대학 B214호를 ‘권지혜·김경주 분석화학실험실’로 명명하기로 했다.

경희대에 연고가 없던 남순자 여사(78세)가 평생에 걸쳐 모은 1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 남 여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 달라"라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2024 파리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전훈영 동문(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이 체육부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망우동에 사는 **남순자 여사**(78세)가 평생을 모은 1억 원을 경희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순자 여사는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위촉됐다. 남 여사는 “평생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다. 학생들이 잘 자라줘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2024 파리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전훈영 동문**(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이 양궁부 후배 발전을 위해 체육대학을 찾았다. 전훈영 동문은 양궁부 후배의 발전을 기원하며 체육부 발전기금 천만 원을 기부했다. 양궁부는 ‘2020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강채영 동문(스포츠지도학과 15학번), 2024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전훈영 동문(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을 배출하며 한국 양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로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약학대학 90학번 동기회**가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동기회를 대표해 홍실, 채주병, 정창인 동문이 90학번 동기 31명이 힘을 보태 모은 3천만 원을 대학에 전달했다. 약학대학은 매해 졸업 30주년을 맞이하는 학번 동기회가 합심하여 발전기금을 모아 기부하는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약학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학위수여식을 마친 직후 1백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씨앤코컴퍼니가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허근수 대표는 “대학이 발전하고 우리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4년 초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 씨앤코컴퍼니의 카페 브랜드인 ‘블루포트’가 입점했다. 입점 이후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희 구성원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과학과 첨단 기술 및 응용 재료 분야의 필수적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인 **아반토코리아**(한국·일본 대표이사 동석원)가 5.8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의과대학, 약학대학,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에 전달된 물품은 실무실습, 실험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06

1949 ~ 2025

학문과 평화의 76년

2025년 개교 76주년을 맞이한 경희는
창학 초기부터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원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학술과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해왔다.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설을 주도했고
1981년에는 UN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하도록 했다. 이후 고등교육과
세계평화 운동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뿌리를 내렸다.
경희는 개교 70주년 이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으로 도약하기 위해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 전통

경희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는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경희의 창학정신 :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인 ‘등용문’에 들어서면 잘 가꾸어진 숲을 배경으로 하얗게 빛나는 교시탑이 눈에 들어온다. 교시(校是)는 학교를 세운 근본 정신, 다시 말해 창학정신이다. 20미터 높이의 교시탑에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경희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는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경희학원 설립자인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가 1951년에 출간한 두 번째 저서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조영식 박사는 “인간은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동물도 아니고 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도 아니지만, 문화와 가치의 창조자로서 독자성을 지닌 존재”라고 정의했다.

모든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인격체로서 본능과 이성을 통제하고, 적자생존의 ‘자연 규범’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문화 규범’을 지키며 인간적이며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지구공동사회(GCS: Global Common Society)를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문화세계 창조론’의 핵심 내용이다.

경희학풍과 전통 : 학문과 평화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경희대학교는 1949년 개교한 이래 학술과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며 ‘학문과 평화’의 학풍과 전통을 이어왔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근본 사명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탁월한 연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며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세계 창조’를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학술적 성과를 토대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희는 창학 초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잘살기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솔선하고 선도했다. 경희의 잘살기운동은 뒷날 정부가 추진한 새마을운동의 이념적·실천적 원리를 제공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지구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해 물질문명에 병든 인류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한 ‘밝은 사회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조영식 박사가 1975년에 펴낸 저서 <인류사회의 재건>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경희는 세계평화운동에도 앞장섰다. 1981년 11월 30일, 경희의 제안에 따라 유엔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매년 9월 21일)이 사상 최초로 제정된 일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경희대학교 교훈과 교육 방침 :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피란지 부산에서 신흥초급대학을 인수한 때는 1951년 5월 18일이다. 신흥초급대학은 1949년 배영대학관과 신흥전문학관을 합병해서 세운 2년제 초급대학이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경희는 1949년 5월 18일을 대학 설립일로 정했다. 경희대학교는 올해 개교 76주년을 맞는다.

1951년 8월 20일, 부산에서 새롭게 신입생을 맞이하며 경희는 교육 목표와 교훈, 교육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민주주의적 처리 능력을 가진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고,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교육 방침으로 정한다.”

경희정신과 경희의 상징물 :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정신과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경희 구성원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경희정신’이 필요하다. 경희정신은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으로 요약된다. 이 경희정신은 교화(校花)인 목련, 교수(校獸)인 웃는 사자로 상징된다.

‘웃는 사자’를 경희의 상징으로 택한 이유를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자가 오직 그 힘과 용맹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단지 무서운 존재가 될 뿐이다. 그 용맹한 사자가 웃는 사자일 때 그의 기상은 인자함과 덕이 조화된 외유내강의 참다운 만수의 왕이 될 것이다.”

‘목련’을 경희의 교화로 제정한 날은 1970년 개교기념일(5월 18일)이다. 목련은 매서운 추위가 아직 물러가지 않은 때 가장 먼저 희고 소담한 꽃을 피워 다가올 봄소식을 전한다. 역경을 이겨내는 진취적이고 선구자적인 이미지를 표상하는 꽃이다. 또한 ‘함께 피고 함께 지는’ 목련의 특성은 경희의 공동체 정신과 닮아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경이로운 경희'

1949년 2년제 초급대학에서 출발한 경희대학교는 1955년 종합대학교로 승격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

1949~1953 : 경희의 탄생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18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가 피란지 수도 부산에서 신흥초급대학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경이로운 경희'의 역사가 시작됐다. 경희의 모태가 된 신흥초급대학은 1949년 배영대학관과 신흥전문학관이 합병해서 세운 2년제 초급대학이었다. 당시 신흥초급대학은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얻지 못한 가인가 상태였다. 강의실조차 없는 '천막학교'에 불과했다.

조영식 박사는 부산역 앞 동광동에 본부 건물 1동, 5개의 강의실을 갖춘 교사 2동을 신축하고 1951년 8월 20일 신입생을 맞이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수와 학생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성공적으로 첫 학기를 마쳤다. 이듬해인 1952년 2월 3일 문교부로부터 정식 초급대학 인가를 취득했다.

대학 재정이 안정되고 교육 내용이 훌륭하다는 평판을 얻게 되자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몰려들었다. 3개 학과, 150명 정원으로 출발했으나 6개월 만에 학생 수가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952년 12월 9일 신흥초급대학은 2년제에서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했다. 학교를 인수한 지 1년 7개월 만의 빠른 성장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큰 위기가 닥쳤다. 1953년 1월 9일 예기치 못한 화재 사건으로 공들여 지은 동광동 교사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제 신흥대학과 조영식 씨는 망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나, 설립자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재기했다. 부산 동대신동 산기슭에 더 넓은 교지를 마련하고 착공 2개월 만에 새 교사를 건립했다.

동대신동 교사에는 대강의실과 일반강의실 7개실, 도서관 1동, 본부 건물 1동이 들어섰다. 400평 크기의 운동장과 아름답게 꾸며진 화단도 조성됐다. 당시 피란지 부산에서 독립된 도서관 건물과 운동장을 갖춘 대학은 경희가 유일했다.

서울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마스터플랜에 의해 건설된 캠퍼스다. 각 건물의 크기와 배치, 건축 양식, 녹지 공간 조성 등 모든 계획이 '100년 후 경희'를 내다보는 원대한 비전 아래 이뤄졌다.

1953년 3월 30일 동대신동 교사에서 첫 학위수여식이 거행됐다. 이날 경희의 1회 졸업생 45명이 배출됐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현재 경희의 '등용문'을 나선 동문은 30만 명에 이른다.

1954~1959 : 경희의 성장

3년에 걸친 6·25전쟁이 휴전되자 조영식 박사는 대학을 서울로 이전하기로 결심하고 고황산 기슭에 30만 평의 교지를 확보했다. 한 달간 서울에 머물며 날마다 산중턱에 올라 경희의 미래를 내다보며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구상했다.

서울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마스터플랜에 의해 건설된 캠퍼스다. 각 건물의 크기와 배치, 건축 양식, 녹지 공간 조성 등 모든 계획이 '100년 후 경희'를 내다보는 원대한 비전 아래 이뤄졌다. 서울캠퍼스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꼽힌다.

경희의 제1기 마스터플랜은 10여 년에 걸쳐 추진됐다(괄호 안은 완공 연도). 코린트 양식의 본관 석조전(1956), 높이 12미터 폭 14미터의 아치형 정문 '등용문'(1955),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중앙도서관(1968), 학술 경희의 산실 문리대학관(1958), 국제 규격의 400미터 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1962),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해 한국 스포츠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체육대학관(1957), 최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무대 노천극장(1959) 등이 주요 건축물이었다.

캠퍼스 건설이 한창이던 1955년 2월 28일, 경희는 종합대학교 승격이

라는 큰 경사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경희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 발전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경희는 외적인 성장과 함께 대학문화 창달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지금은 국내 모든 대학이 해마다 대학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효시는 1956년 10월 23일 열린 경희의 제1회 대학제(학원제)이다. 또한 학내 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1955년 5월 대학신문(현재의 대학주보)을 창간했으며, 1957년 10월 대학의 소리(VOU, Voice of University) 방송국을 개국했다. 교내 학술잡지 <고황>은 1957년 5월에 창간됐다.

1960~1969 : 경희의 발전

1960년 3월 1일 경희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경희'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영·정조 시대의 정궁(正宮) 경희궁에서 따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희(慶熙)'는 행복, 형상, 객체, 양(陽)을 뜻하는 경(慶)과 맑음, 올바름, 지성, 주체, 음(陰)을 뜻하는 희(熙)를 결합한 것으로 음양의 조화, 즉 일원론적 우주관을 함축한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에 걸맞은 선택이었다.

이듬해인 1961년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된 교육체계를 갖춘 '경희학원'이 설립됐다. 경희의 창학정신을 구현하려면 어릴 때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 현장에서 경희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관된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경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1965년의 동양의과대학 인수·합병은 경희대학교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 의학계열의 모든 단과대학을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 시기, 단과대학과 학과 증설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음악대학(1964), 사범대학(1965), 의과대학(1966), 약학대학(1966), 산업대학(1968), 공과대학(1969) 등이 신설됐다.

1968년 6월 18일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개막한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2차 대회는 경희가 이룩해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경희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국제행사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35개국의 대학 총장 105명을 비롯해, 박정희 대통령과 주한 외교사절, 국내외 언론사 기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IAUP는 조영식 박사가 주도해 창설한 세계 지성의 모임으로, 1965년 6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고등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IAUP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구성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했을 뿐 아니라 경희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듬해인 1969년 전 세계 20개국 253개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개교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국의 경희'에서 '세계의 경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1968년 6월 18일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개막한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2차 대회는 경희가 이룩해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경희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국제행사였다.

1970~1979 : 경희의 성숙

1971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 개원과 함께 경희대학교는 '의과학 경희'의 새 전통을 쌓아 올렸다. 경희의 의료기관 설립은 질병을 퇴치해 보다 나은 인류사회 건설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경희의료원은 당시 동양 최대인 1,000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당시 국내의 대학병원들은 350~500병상 수준이었다. 경희는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가 아닌 미래의 기준에 적합한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희의료원 개원은 국내 한의학의 과학화를 선도하며 한의학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동양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세대 한의학자'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한 '제3의학'을 창출했다.

1972년 9월 9일 경희 의료진은 동서양 의학 협진으로 침술 마취에 의한 맹장 수술에 성공했다. 침술 마취 수술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은 네 번째 사례였지만,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복수술에 성공한 것은 경희가 처음이었다. 제3의학에 대한 경희의 의지는 뒷날 세계 최대의 <동양의학대사전>(전12권) 발간으로 이어졌다. <동양의학대사전>은 편찬 작업에 착수한 지 7년 만인 1999년,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출간됐다.

1970년대 한국 대학사회의 최대 화두는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개혁이었다. 제1기 마스터플랜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경희는 타 대학에 비해 안정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경희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질적인 성숙과 도약을 이뤄냈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가르치는' 창의적 학술문화가 경희에 정착된 것도 이때부터다.

1979년 10월 20일, 경희는 개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1세기의 전망과 문제점'을 주제로 로마클럽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로마클럽은 1968년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간단체로, 1972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최초로 제시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발표한 바 있다. 나흘간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300여 명의 국내외 석학이 참석해 경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줬다.

1980~1989 : 경희의 도약

1979년 국제캠퍼스 설립은 경희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큰 전환점이었다. 1970년대 내내 경희는 단과대학 및 학과 증설이 거의 불가능했다. 경희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조영식 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맞물려 캠퍼스

신설이 가능해졌다.

조영식 박사의 원래 구상은 '경희'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각기 특성화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규에 의해 당분간 '분교' 형태를 유지해야 했다.

1980년대 이후 경희는 '하나의 경희'를 위한 편제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의학, 기초과학, 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국제캠퍼스는 공학, 응용과학, 국제학, 현대예술, 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하나의 경희'에 대한 30년간의 꿈과 노력은 2011년 8월 24일 결실을 맺었다. 이날 교육부는 양 캠퍼스의 통합을 승인했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는 학문 간 융복합 및 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연구·실천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1979년 국제캠퍼스 설립은 경희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큰 전환점이었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는 학문 간 융복합 및 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연구·실천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1990~1999 : 경희의 세계화

1993년 8월 27일, 조영식 박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자들의 집단 유급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개월간 전국을 뒤흔든 '한약 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살신성인이었다.

그해 3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일반 약국에서도 한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되자 전국의 한의과대 학생이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3,000여 명의 학생이 제적 또는 유급의 위기를 맞았다. 교육자의 양심에 따른 조영식 박사의 총장직 자진 사퇴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길을 열었다.

1999년 10월 10일, 경희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1999서울NGO 세계대회'를 개최했다. 그에 앞서 조영식 박사는 1997년 10월 유엔총회 초청 연설에서 "세계평화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때 지속적인 전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NGO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후 부트로스-갈리, 코피 아난 등 역대 유엔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유엔 승인 아래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999서울NGO세계대회는 107개국 1,360개의 NGO 활동가와 시민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NGO 대회였다. "뜻을 세우고, 힘을 모아, 행동하자!"라는 구호 아래 6일간 토론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지구적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전 세계 시민사회는 경희의 제안에 따라 '서울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NGO세계대회는 경희의 평화정신을 세계시민사회가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평화의 제전이었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경희는 '지구적 존엄 구현'과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21세기 비전과 목표로 설정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 전통을 21세기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미래지향의 가치와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었다.

지구적 존엄 구현하는 21세기 경희의 미래

경희대학교는 21세기로 접어들어 개교 60주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았다. 개교 60주년을 준비하며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했다.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존엄의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 오랜 성찰 끝에 경희는 고등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구적 차원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문화세계 창조'의 창학정신, '학문과 평화'의 경희 전통을 21세기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보편 가치와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었다.

2009년 5월 18일, 경희는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60년'을 향한 미래비전과 목표를 대내외에 밝혔다. 그간의 경이로운 성과를 토대로, 개교 80주년 이전까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한다는 것이 경희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다.

이를 위해 2011년 경희는 후마니타스칼리지(Humanitas College)를 설립해 교양교육 혁신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또한 대학과 의료기관, 행정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공헌 통괄기구 글로벌봉사팀(GVT, Global Volunteer Team)을 결성해 사회공헌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경희의 미래는 대학의 미래인 동시에 인류의 미래이다.

UN 세계평화의 날 경희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매년 9월 21일 전 세계에서 평화 염원하는 축제 거행
매년 9월 지구적 난제 해결 위한 국제학술회의
'Peace BAR Festival(PBF)' 개최

매년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평화의 축제가 거행된다. 그러나 이 뜻깊은 기념일이 경희의 제안과 노력에 의해 제정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81년 7월 3일,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6차 대회 마지막 날. 연단에 오른 조영식 박사가 담대한 제안을 했다. "유엔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자."

1981년 7월 3일,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 (IAUP) 제6차 대회에서 조영식 박사는"유엔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세계평화의 날' 최초로 제안

1980년대 들어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세계의 지성들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의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조영식 박사가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사상 최초로 제안한 것이다.

세계대학총장회는 이를 받아들여 '코스타리카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 조영식 박사는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 카라조 대통령의 도움으로 유엔에 안건을 제출했다.

당시 세계는 동·서 양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다. 그 탓에 안건 통과 여부가 매우 불확실했다. 조영식 박사는 뉴욕에 머물며 유엔 대표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 각국 대통령과 총리, 외무장관, 언론사 발행인, 노벨상 수상자, 로마 교황 등 전 세계 지도급 인사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 캠페인'도 펼쳤다. 그때 발송한 편지는 무려 2,000통이 넘었다.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1981년 11월 27일,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안이 유엔총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스마일 키타니 의장은 표결을 사흘 뒤로 미뤘다. 몇몇 국가가 안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1994년 경희대를 방문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만일 세계평화의 날과 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경희가 주도해온 세계평화운동에 찬사를 보냈다.

조영식 박사도 다수결 통과를 원치 않았다. "세계평화를 이루려고 해도 한 나라가 반대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법"이라면서 만장일치를 주장했다. 표결이 미뤄진 사흘 동안 조영식 박사는 반대 의사를 밝힌 대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호소했다.

'30년보다 더 길었던 3일'이 지나고, 마침내 11월 30일. 개회를 선언한 유엔총회 키타니 의장이 입을 열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 이 평화안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는가?"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키타니 의장은 사회봉을 세 번 두드리고 만장일치 통과를 선언했다.

총회가 끝난 뒤 키타니 의장이 조영식 박사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동안 세계 최고의 지도자와 석학들로부터 '세계평화의 날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무수히 받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1,000통이 넘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힘이 그토록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세계평화의 해 맞아 미국과 소련, 평화의 메시지 전달

유엔총회는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가 이날을 기념하도록 권했다(세계평화의 해는 1986년으로 정해졌고, 세계평화의 날은 2001년부터 9월 21일로 고정됐다). 경희대학교는 1982년부터 매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왔다. 현재는 'Peace BAR Festival'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에 의해 '세계평화의 해'로 지정된 1986년 1월 1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서로 상대국 국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던 때 벌어진 기념비적 '평화 이벤트'는 그해 11월 양국이 핵무기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그 후 양국 간의 군비경쟁이 완화됐으며, 동·서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무너져 내렸다.

1993년, 평화복지대학원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다.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평화복지대학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수상

세계평화를 위한 경희의 의지는 평화복지대학원(광릉캠퍼스) 설립으로 이어졌다. 1984년 9월 25일 열린 개원식 겸 입학식에는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국제사회 지도자와 평화 관련 기관들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다.

평화복지대학원의 설립 목적은 평화에 대한 학술적 깊이와 실천역량을 갖춘 국제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모든 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교수 1명당 학생 3~4명의 비율로 엘리트 교육을 강화했다. 매 학기 세계 석학을 초빙해 교육의 질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학술과 실천을 결합한 인턴십을 의무화하고 국내는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학생들을 파견해 경험을 쌓게 했다. 현재 졸업생 3명이 유엔의 정직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1993년, 평화복지대학원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다.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계평화대백과사전> 편찬

평화복지대학원 설립을 준비하던 중 조영식 박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평화학을 공부하기 위한 사전이 세계 어느 도서관에도 없었던 것이다. 곧바로 <세계평화대백과사전>(영문판) 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명예편집장으로 초빙하고, 40개국의 세계적 석학 350여 명 등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

<세계평화대백과사전>(전4권) 초판은 1987년에 간행됐다. 개정·증보판은 개교 50주년인 1999년에 완간됐다. 전8권, 총 3,800면에 달하는 방대한 사전 편찬 작업이었다.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2011년,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을 맞아 경희대학교는 유엔과 공동으로 특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UNAI의 제안으로 성사된 국제회의는 그해 9월 15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과 뉴욕 유엔본부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UNAI는 '고등교육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을 목표로 설립한 유엔공보처(UNDPI) 산하 기구다. 국제회의 주제는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Give Peace Another Chance)'였다. 경희대 조인원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희의 모습을 소개했다.

학생, 시민도 참여하는 지구촌 평화축제, Peace BAR Festival(PBF)

경희는 개교 60주년(2009년) 이후 매년 9월 21일 UN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개최해온 Peace BAR Festival(PBF)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했다. 세계적 싱크탱크, 국내외 석학, 시민사회와 연계해 기후 위기를 비롯한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자며 목표를 새로이 했다.

예컨대 2018년 9월에 개최된 PBF는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을 주제로,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WAAS),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UN, CoNGO)과 함께 그해 4월 판문점 선언이 불러온 한반도의 봄을 '문명 전환'의 맥락에서 접근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사회를 구현하는 철학과 가치를 모색했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에서 조인원 총장은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시민교육과 지구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기금 창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첫날에는 '사라지는 빙하: 기후변화와 세계평화(A Farewell to Ice: Climate Change and Global Peace)'를 주제로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강연에 이어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 미원석좌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와담스 교수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경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온 기후변화 분야 석학이다. 그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별강연 및 원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인류 평화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조명했다. 폴란드에서 온 아담 미치니크(Adam Michinik)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 편집장과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 강연을 했으며, 조인원 총장과 피터 와담스(Peter Wadhams)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아담 미치니크 편집장이 원탁회의를 가졌다.

'지구 행성의 미래,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

UN 세계평화의날 제정 40주년을 맞은 2021년에는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PBF 2021을 개최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바이러스 창궐, 생명 위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문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였다. PBF 2021에는 어빈 라즐로 부다페스트클럽 회장, 폴 R. 엘리히 스탠퍼드대 교수, 아비 로브 하버드대 천문학과 교수, 한스 요하임 쉘른후버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소장,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경희 구성원 모두와 함께 지구 문명이 나아갈 길을 고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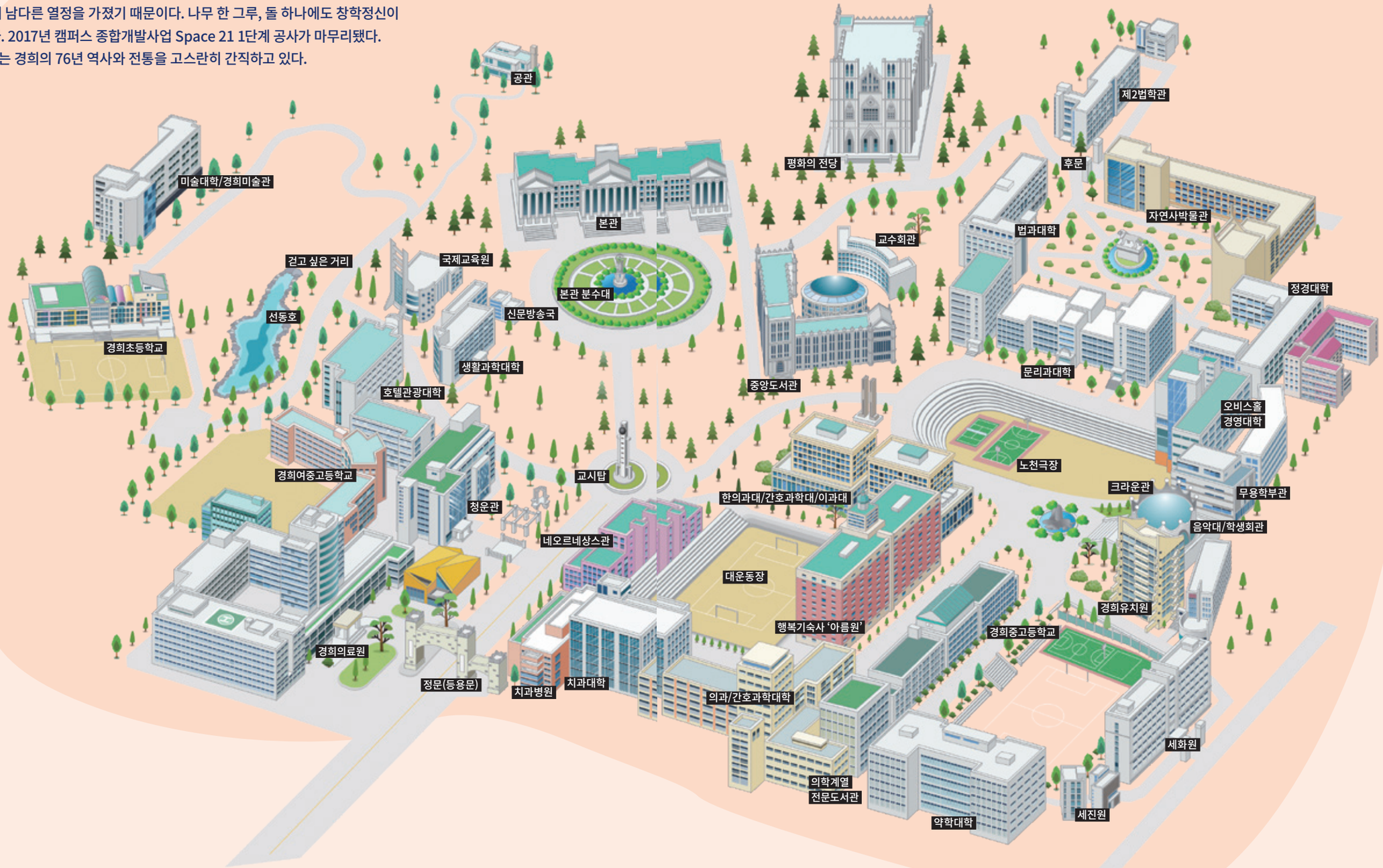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5년 이후 매년 9월 PBF가 열리는 한 주를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자 131명이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국내 대학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교육계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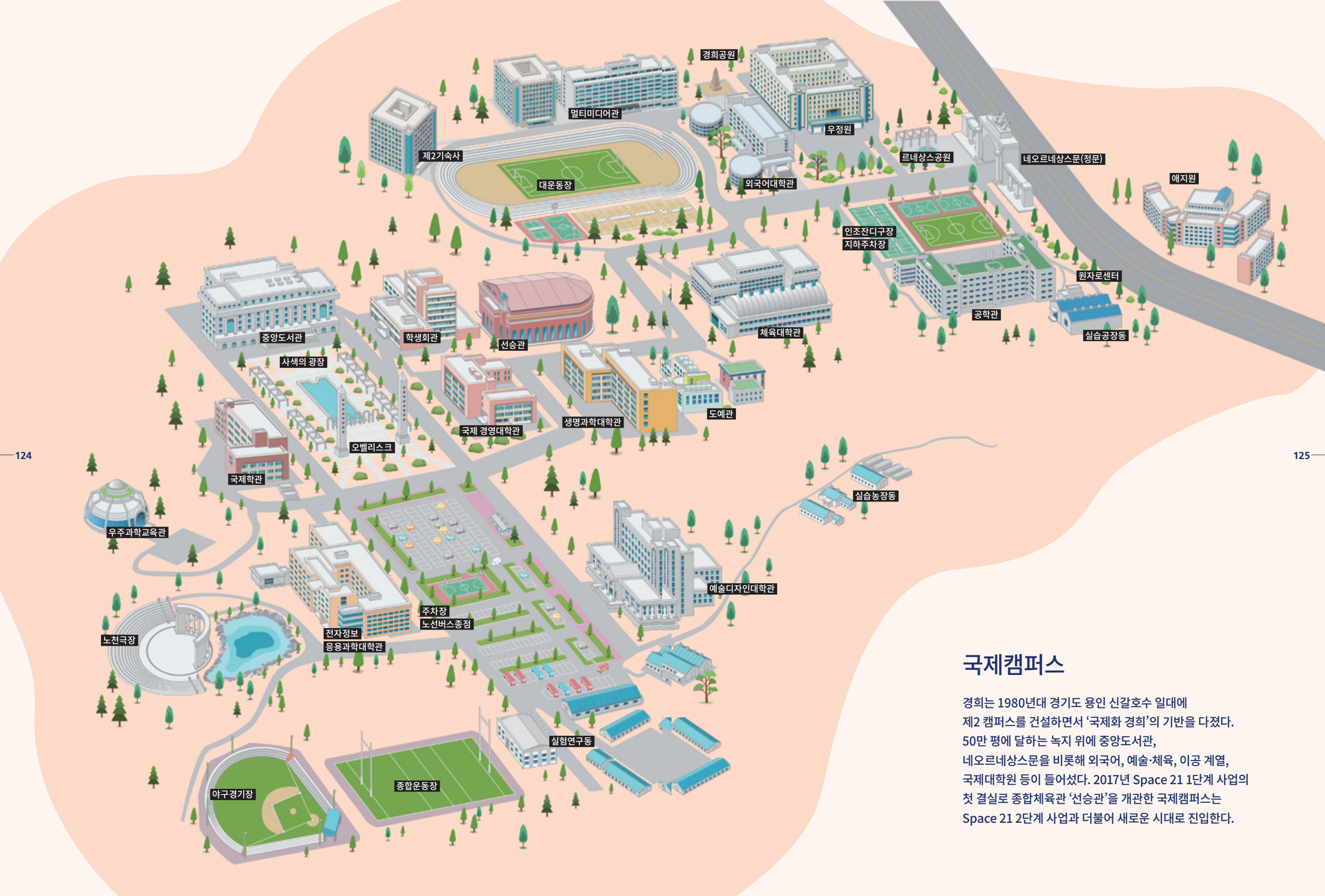
2019년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자 131명이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국내 대학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교육계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었다.

2024년 PBF는 '인류의 미래, 지구 행성의 미래,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를 주제로 지구적. 위기의식에서 출현하는 전환문명의 향방을 탐색했다. 이와 더불어 미원평화상(Miwon Peace Prize)을 제정했다. 미원평화상은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의 공적을 기리면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 지구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첫 수상의 영예는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을 목표로 세계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디 엘더스(The Elders)'에 돌아갔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는 출발부터 남달랐다. 1953년 국내 대학 최초로 마련된 마스터플랜에 의해 각종 건물과 시설이 하나하나 들어섰다. 서울캠퍼스에 숲이 많은 것은 경희대가 설립 초기부터 자연 보호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에도 창학정신이 깃들어 있다. 2017년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캠퍼스는 경희의 76년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국제캠퍼스

경희는 1980년대 경기도 용인 신갈호수 일대에
제2 캠퍼스를 건설하면서 '국제화 경희'의 기반을 다졌다.
50만 평에 달하는 녹지 위에 중앙도서관,
네오르네상스문을 비롯해 외국어, 예술·체육, 이공 계열,
국제대학원 등이 들어섰다. 2017년 Space 21 1단계 사업의
첫 결실로 종합체육관 '선승관'을 개관한 국제캠퍼스는
Space 21 2단계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다.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학장실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TEL 02-961-9311, 9339~40
FAX 02-961-9305
khsa0036@khu.ac.kr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학장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TEL 031-201-3401~4
FAX 031-201-3409
khwc5871@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 홈페이지

http://hc.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연구소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401호
연구소 TEL 02-961-2398
소장실 TEL 02-961-2397
후마니타스 전환센터
범아프리카문화연구센터
인문정보센터
글로벌인문융합연구센터

글쓰기센터

서울캠퍼스 청운관 206B호
TEL 02-961-0991
국제캠퍼스 우정원 B106호
TEL 031-201-3429

글로벌봉사팀

서울캠퍼스 TEL 02-961-2213
국제캠퍼스 TEL 031-201-3581

경희의 상징

대학 휘장

경희를 공식 대표하는 상징 요소. 경희의 창학 이념과 미래상을 표현한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지향하는 '학문과 평화'의 전당 경희,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대학의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경희를 의미한다.

워드 마크

역동적으로 교차하고 상승하는 경희의 이미지를 타이포그래피로 형상화했다. 자유로운 소통, 나눔의 실현, 무한한 미래에 대한 도전을 통해 이상적인 인류 사회를 선도하는 창조적·실천적 선구자를 상징한다.

교화 | 목련

경희의 교화는 목련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목련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동시에 아름다움, 너그러움, 하나 됨의 미덕도 지니고 있다. 웃는 사자와 더불어 목련은 경희의 문화적 서사를 표현한다.

상징 동물 | 웃는 사자

당당한 모습이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웃는 사자', 바로 경희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웃는 사자는 강인함과 관용을 의미한다. 사자 캐릭터 마크에는 횃불과 비둘기의 모습도 담겨있다. 창의성과 진취성, 평화의 정신을 담았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